Weekly 공감

2011.01.12 NO.93
gonggam.korea.kr



똑똑한 일터 혁명

스마트워크로 '스마트코리아'

P 17~31

"구제역 잡아라"… 한파 녹인 방역 현장 르포 P8~11

'크리스마스의 기적' 일군 목포해경 3009함 P32~35



스마트워크로 '삶과 일의 균형' 찾자

우리 정부는 스마트 코리아 국가전략을 수립하고 스마트 기술을 통해 일하는 방식, 국가 행정시스템 전반, 더 나아가 국민 일상생활의 질적 수준을 혁신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스마트워크'는 정부의 이러한 노력 중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스마트워크는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여 시간과 장소의 제약 없이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는 유연한 근무형태를 말한다. 스마트워크의 도입은 현재 당면해 있는 국가의 많은 문제들(저출산 · 고령화, 낮은 노동생산성, 과도한 탄소배출 등)을 해결하기 위해 필요하며, 우리나라의 강점인 정보통신 네트워크 인프라를 활용한다면 그 성공 가능성은 높다.

스마트워크는 스마트 기술을 통해 시간과 장소의 제약 없이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는 유연한 근무형태이다. 이는 저출산, 고령화 등 국가가 당면한 많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반드시 정착되어야 할 제도이기도 하다.

지난 몇 달 동안 행정안전부가 새로 구축한 스마트워크센터에서 근무한 경험을 가진 공무원들은 업무 외의 다른 부담에서 벗어나 자신의 업무에 집중하며 여유있게 생각할 수 있었다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기도 한다. 정부의 이러한 노력들이 스마트워크의 활성화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다양한 이슈와 이해관계자들의 요구를 잘 파악해야 한다. 그리고 현실적 한계에 대한 극복방안을 체계적으로 준비하여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스마트워크는 관련 기술의 단순한 적용이 아닌 사회문화적 변화를 수반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현재 전문가들의 우려는 너무 기술에 치중하여 스마트워크에 접근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기술보다는 적용의 문제에 보다 초점을 맞추어 사회문화적 · 기술적 · 제도적 접근이 조화를 이루도록 해야 한다. 특히 공직사회의 경우 대면문화가 익숙하고 전자결재가 완전히 정착되지 않은 상황에서 스마트워크의 갑작스런 도입은 공무원들의 막연한 불안감을 증폭시킬 수 있다. 공무원들의 스마트워크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스마트워크를 통해 효과적으로 일할 수 있다는 인식제고 노력을 병행해야 한다.

스마트워크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스마트워크의 철학과 비전을 먼저 정립하고 이를 구성원들과 공유하는 작업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비전 공유, 추진대상 업무와 과정에 대한 철저한 분석, 특성에 맞춘 업무형태 설계, 체계적인 집행, 시행 후 효과분석 등의 단계적 시나리오도 마련해야 한다. 유엔의 전자정부 평가에서 1위를 차지한 우리나라는 이제 일(work)에 대한 개념을 새롭게 하고 '일과 여유로운 삶의 균형'이라는 새로운 과제를 스마트워크를 통해 지혜롭게 풀어가야 할 것이다. G



정윤수
명지대 교수
한국지역정보화학회장

contents

Weekly 공감
2011.1.12 NO.93 통권 194호



일러스트 · 이우정 18

기획특집

똑똑~ '스마트워크'가 왔다 똑똑하게 일하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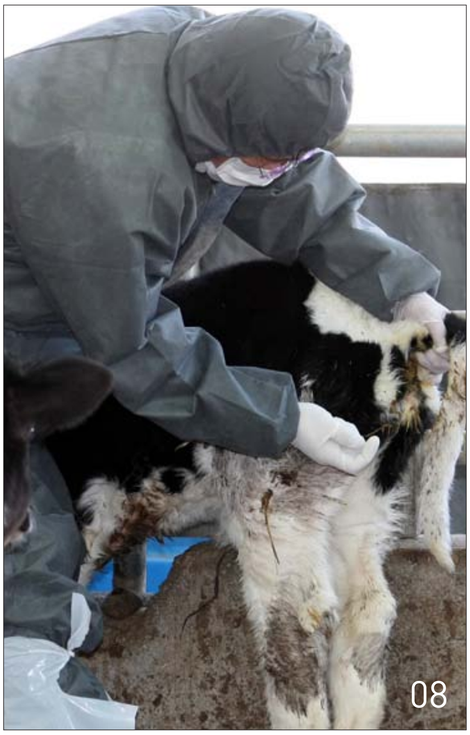
똑똑하게 일하길 원하는가. 그럼 '스마트워크(Smart Work)'하라. 시간 · 장소 제약 없이 업무를 수행하는 스마트워크 방식에서는 집이 사무실이고, 모바일 현장이 일터다. 삶의 질과 업무효율을 높이는 스마트워크, 저탄소 녹색성장에도 기여할 스마트워크는 '스마트 사회'를 앞당겨 구현하는 똑똑한 선택이다.

01 **Reader & Leader** 정윤수 명지대교수
18 **총론** 스마트 코리아! me first!!
20 **'나공감씨'의 하루**
출퇴근 시간 줄고… 만점 가장으로 변신
22 **스마트워크센터 현장**
첨단 사무장비 완비… "효율 좋아요"
24 **기업 스마트워크 대세**
임대비용 줄이고 생산성은 높아지고 '노사 윈윈'
27 **용어 따라잡기** VPN · GPKI… 암호가 아닙니다
28 **해외 선진국 사례**
네덜란드 가장 활발… 기업체 절반서 운영
30 **스마트워크 전략**
'스마트 모바일 오피스'부터 늘려라



표지 이야기
목포해경 3009함은 거센 파도가 치는 악조건에서도 침몰하고 있는 화물선의 조난자 15명 전원을 무사히 구출했다. 승조원들은 "할 일을 했을 뿐"이라고 했지만, 크리스마스 연휴에 들려온 훈훈한 소식은 국민에게 큰 기쁨을 주었다.

발행일 2011.1.12 **발행처** 문화체육관광부 **발행인** 유인촌
제작협력 조선뉴스프레스 **인쇄제본** (주)타라티피에스 **문의** 02-3704-9668 **정기구독** 02-2625-3294
〈Weekly 공감〉에 수록된 내용은 정부의 견해와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알림** 제작시스템 변경으로 인해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변환 바코드는 당분간 싣지 못합니다. 많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 잡지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정부 정책을 빠르고 쉽게 알리기 위해 무료로 배포하는 주간지입니다.





04 **공감 라운지** 병무청 '청춘예찬 기자단' 모집합니다

08 **핫이슈** 구제역 정부 대책과 방역 현장

12 **포커스** 4대강 친수구역 개발이익 90% 공익에 쓴다

14 **포토뉴스** '전통의 숨결, 찰나의 모습' 청계천 무형문화재 사진전

32 **현장 플러스**

바닷속 15명 목숨 구한 목포해경 3009함과 김문홍 함장

36 **스포츠** 평창 "우린 승리하리라"

38 **정책 트렌드** 우리 집의 바뀐 이름 '그린홈'

40 **공감 화제** 배우 이름 딴 '백성희 · 장민호 극장'

42 **알짜 정보** "바가지 상혼 꼼짝 마"… 우수쇼핑인증제 시행

44 **준비하세요** '13번째 월급' 연말정산 잘하는 방법

46 **알아두세요** 새해에 달라지는 것들

48 **생활뉴스** 혹시 돌려받지 못한 세금 없으십니까

49 **정책 포인트** 공공기관 평가방식 뜯어고친다

50 **공감하는 공간** 광화문 녹색성장체험관

52 **역사 탐험** 비운의 고구려 고국원왕

54 **공감 여행** 경주의 밤은 낮보다 아름답다

58 **화제의 공무원** 이름 지어주는 이동우 서초구 OK민원센터장

59 **디딤툰** 글로벌 에티켓 ㉕

60 **이달의 추천도서**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가 추천한 1월의 책

62 **사서가 추천하는 책** 〈이그노벨상〉

63 **공감 카툰** 파랑새를 찾아서

64 **외국인이 본 코리아** 반 우오든 주한 네덜란드 투자진흥청 대표



공감 라운지

Weekly 공감 편집실(gonggam@korea.kr)
홈페이지(gonggam.korea.kr)
대한민국 정책포털 공감 코리아(www.korea.kr)
정책공감(blog.daum.net/hellopolicy)
청와대(www.president.go.kr) 등에 올라온 독자의 편지와 댓글입니다.

〈Weekly 공감〉 92호(1월 5일자) 기획특집 '숫자로 본 2011 국정 지표'와 관련해 많은 독자가 다양한 의견을 보내왔습니다.

2011 국정지표가 희망의 숫자 되길

"숫자로 본 2011 국정지표를 흥미롭게 읽었습니다. 국정 지표 하면 딱딱하고, 읽기 어려울 것 같은데 숫자로 나눠 설명해주니 읽기 쉽고 편했습니다. 기사에서 언급한 무역규모 1조 달러, 물가 3퍼센트 억제, 5퍼센트 성장, 일자리 28만개 창출 등이 모두 이루어져 2011년 희망의 숫자가 되길 바랍니다." **이주원**

소형주택, 고령 서민에게 우선 입주권을

"나이가 지천명을 넘기도록 내 집 한 칸 장만 못하고 사는 서민입니다. 그래서 '소형주택 비율 50~80퍼센트로 늘린다'는 기사에 한동안 눈이 머물렀습니다. 딱히 주택부금을 붓지 않더라도 생애 처음 입주주택 요건으로 저와 같은 고령의 서민에게 우선 입주권을 부여하는 정책이 더불어 도출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황복희**

"심형래 '내가 누구냐고? 글로벌 영구다'" 기사를 읽고 독자가 보내온 의견입니다.

"지난주에 영화〈라스트갓파더〉를 봤습니다. 다시 돌아온 글로벌 영구를 공감에서 만나볼 수 있어서 반가웠습니다. 한국적인 캐릭터를 가지고 세계시장을 두드리는 심형래 감독의 자신감이 멋졌습니다. 심형래 감독이 세계시장의 문을 두드릴 수 있게 해주었던 뒷이야기들 또한 재미있게 읽었네요." **김미혜**

'다시 주목받는 백제 근초고왕' 기사를 보고 독자가 보내온 의견입니다.

"드라마 '근초고왕' 덕분에 역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요즘, 역사탐험 코너는 굉장히 눈길을 끌었습니다. 몰랐던 역사에 대해 알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근초고왕의 위대함에 대해서 새삼 놀라게 되는 기사였습니다." **박민영**

'대한민국 겨울에도 갈 곳 많아요' 기사를 읽고 독자가 보내온 의견입니다.

"방학을 맞아 아이들과 주말여행을 계획하던 중 관광코너가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장소뿐만 아니라 이벤트, 역사 등 여행지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덕분에 좋은 여행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함지현**


210,000
소형주택 비율 50~80퍼센트로 늘린다


정복군주 근초고왕이 2010년 연평도를 바라본다면

알립니다

병무청 '청춘예찬 기자단' 모집해요



병무청은 젊은 감각으로 국민들과 병역을 소통할 블로그 기자단을 모집한다. 국민과의 소통으로 '병역이 자랑스러운 세상' 만들기에 많은 분들의 참여를 기다린다. 활동 기간은 올해 2월부터 11월까지 10개월간이며 활동비 10만 원, 활동증명을 위한 위촉장 및 기자증, 병무청 행사 참여기회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모집 대상 | 대학생기자 25명(4년제대학 이상 재(복)학생), '곰신'기자 10명(연인이 군에 입대한 '곰신'), 어머니기자 5명(군입대/전역한 자녀를 둔 어머니)

지원 방법 | 인터넷 전자우편으로만 접수 가능. 지원서는 병무청 홈페이지(www.mma.go.kr) 또는 병무청 기관 블로그(blog.daum.net/mma9090)에서 내려 받아 작성

접수 기간 | 2011년 1월 16일까지

결과 발표 | 2011년 1월 21일

병무청 대변인실 ☎ 042-481-2703 lsk5181@korea.kr

친환경 선진 장례문화 함께 만들어요

보건복지부는 장례문화 개선을 위한 아이디어를 공모한다. 화장, 자연장 등 선진적이며 친환경적인 장례문화 홍보, 전국 묘지의 효율적 관리 방법, 한시적 매장제도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아이디어를 제출하면 된다. 공모분야는 포스터 · 표어 · 수기 · UCC · 그림 등이며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접수 기간 | 2011년 1월 21일까지

지원 방법 | 공모전 신청서 1부와 해당 작품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방문 및 등기 우편 제출

포상 내역 | 보건복지부장관상과 상금 수여

결과 발표 | 2011년 1월 28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저출산고령사회연구실 ☎ 02-380-8363 www.kihasa.re.kr

공감퍼즐

1	2		3		4
	5				
			6		
	7	8			

빈칸의 답을 주소, 연락처와 함께 1월 19일까지 jjsmall@korea.kr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추첨을 통해 문화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아이폰 〈정책투데이〉 앱에서도 응모하실 수 있습니다.

가로

1. 새로운 소식. 이것을 전해주는 방송 프로그램.
3. 방패 모양으로 만든 이것. 실에 매달아 하늘 높이 날리죠.
5. 옛날 가정집 마당에는 지하수를 끌어올리는 펌프가 있었답니다. 물이 잘 올라오지 않을 때 물 한 바가지를 부어주면, 콸콸 물이 올라오죠.
6.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과 경기도 안양시, 과천시의 경계에 위치한 산. 주위에 서울대학교, 정부 과천청사, 안양유원지 등이 있습니다.
7. 그림 그릴 때 쓰이는 콩테나 파스텔 같은 막대기 모양의 화구. 색연필.

세로

2. 정보통신 기술(ICT)을 이용하여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업무를 수행하는 근무방식을 일컫는 말.
3. 옛날 우리 할머니나 어머니들이 쓰던 화장품, 바느질 기구, 패물 따위의 물건. 이런 물건들을 보따리에 싸서 이 마을 저 마을로 팔러 다니는 이것 장수도 있었답니다.
4. 급여 소득에서 원천 과세한 일년 동안의 소득세에 대하여, 연말에 넘거나 모자라는 액수를 정산하는 일.
6. 남의 잘못을 너그럽게 받아들이거나 용서하는 것.
8. 개인 교습. 개인 지도. "피아노 00을 받으러 갈 시간이다."

〈Weekly 공감〉 91호(12월 29일자) '공감 퍼즐' 정답
가로 **2** 수호 **4** 이듬해 **5** 의구심 **7** 반도 **8** 불패
세로 **1** 서해5(오)도 **3** 호의 **4** 이심 **6** 구제역 **7** 반부패

〈Weekly 공감〉 91호 '공감 퍼즐' 당첨자
고찬호 · 제주도 제주시 이도2동
김윤출 · 부산광역시 수영구 수영동
김은선 · 충남 논산시 취암동
이남순 · 대전광역시 동구 가오동
전진우 · 서울시 동작구 상도2동

대한민국 선진화, 길을 묻다 ⑨

공존과 상생의 지도를 찾아라!

김학준 동아일보 고문


조선 DB

오늘날 전 세계를 보세요. 여기저기서 싸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시점에서 우리는 공존과 상생의 길이 무엇인지 찾지 않으면 안 됩니다.

공존과 상생을 위해서 우리는 어떤 길을 걸어야 할까요. 먼저 자기 욕심을 위해, 남을 헐벗게 하고 수탈하고 착취하는 버릇을 버려야 합니다.

나라와 나라, 개인과 개인 사이에, 어느 한쪽이 다른 한쪽을 착취하여 상처를 남기는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여당과 야당이 서로를 존중하고 집권 세력이 비집권 세력에 관용을 베풀고 대기업이 중소기업을 위할 줄 아는, 협력과 공존의 정책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늘 서로를 존중할 줄 알아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어려운 일이 생기면 대화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야지 무력으로 풀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사회에 무엇이 적합한 것인가를 끊임없이 대화하고 협상해야 합니다. 이것이 공존과 상생의 첫 길입니다.

러시아 생물학자 '크로포트킨'은 다윈의 '진화론'과 대비되는 '상부상조론'을 제시했습니다. 이분은 시베리아 일대에서 자연현상을 연구했습니다. 그리고 내린 결론이 자연세계는 약육강식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시베리아의 많은 동식물은 서로 상부상조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악어가 동물을 잡아먹고 나면 악어새가 와서 이빨 사이를 청소해 줍니다. 그래서 악어는 이가 썩지 않고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죠. 나무에 낙엽이 떨어집니다. 낙엽이 쌓이고 썩어서 비료가 되고 이를 통해 또 다른 나무가 자랍니다. 즉 상부상조의 세계라는 것이죠. 우리 인류 사회도 약육강식으로 가서는 안 됩니다.

상부상조가 이뤄지지 않으면 결국 폭력 집단이 발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탈레반을 소탕하기 위해 수많은 미국 군대를 파견했지만 완전히 소탕하지 못했습니다. 탈레반 역시 생존하기 위해 끊임없이 투쟁을 하기 때문이죠. 인류가 탈레반과 같은 테러집단을 막으려면 상부상조의 정신이 필요합니다. 힘, 지식, 기술, 돈, 즉 가진 쪽에서 한쪽을 배려하고 그리하여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찾아야만 인류사회의 갈등은 완화될 수 있을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세계가 존경하는 큰 나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의 노력이 컸지만 더 좋은 나라로 가기 위해서는 갈등을 완화시켜야 하고, 갈등을 완화시키기 위해서는 상부상조의 마음으로 나가야 할 것입니다.

정리 · 이미령 인턴기자

서울 G20정상회의를 계기로 2010년 10월 1일부터 29일까지 열린 대(對)국민 강연 '대한민국 선진화, 길을 묻다'의 세부 내용을 '공감코리아(www.korea.kr)'에서 발췌 요약해 연재합니다.

공감마당

1. 가장 관심 있게 읽은 기사와 그 이유
2. 지난주 기획특집에 대한 의견
3. 〈Weekly 공감〉에서 다뤘으면 하는 내용

김천연 서울 노원구 월계동

1. 중증장애인 특별채용으로 5급 사무관이 된 지정훈씨의 이야기를 담은 '공정사회를 그리는 사람들' 기사를 매우 인상 깊게 읽었습니다.
   "장애를 떠나 모든 일을 할 때 자신감이 가장 중요하다"는 지정훈씨의 말이 새해벽두에 새로운 의지를 다지게 해줬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제2의 지정훈씨와 같은 인물들이 배출되는 희망찬 공정사회, 선진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 '숫자로 본 2011 국정지표'는 각각의 큰 제목만 봐도 희망으로 일렁이는 내용들이 가득한 보물상자 같았습니다. 무역 1조 달러 선진경제의 원년이 되고 친서민 7대 복지정책의 확대, 일자리 28만 개 창출 등 올해 대한민국의 활기찬 대행진을 한눈에 볼 수 있어 좋았습니다. 이 모든 제도가 건강하게 이루어지길 기대합니다.

3.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데도 간과하기 쉬운 '알뜰생활 백서' 같은 경제, 재테크 기사가 꾸준히 실렸으면 좋겠습니다.

강창규 대전 중구 목동

1. 인생역전의 아이콘이며 공정사회의 롤 모델로 부각 받고 있는 수퍼스타 허각씨의 이야기 관심 있게 보았습니다. 진정한 노력은 결코 배반하지 않는다는 말이 잘 와 닿던 순간이었네요. 아울러 2011년 새해를 힘차게 시작할 수 있는 용기도 함께 얻을 수 있었습니다.

2. 국정운영의 방향과 함께 국가경쟁력 강화에 대한 여러 방안 잘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수치화를 통해 구체적으로 설명되어 이해도 잘됐습니다. 정부의 강한 의지와 서민층을 위한 마음은 계량화할 수 없을 만큼 크고 무거웠으리라 생각됩니다.

3. 새로이 내정된 국무위원들의 소개와 출사표를 들어보았으면 하네요.

독자의견

〈Weekly 공감〉은 독자 여러분께 더욱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 귀한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보내주신 의견은 〈Weekly 공감〉 제작에 소중하게 반영하겠습니다. 아래의 설문에 의견을 적어 주소, 전화번호와 함께 1월 13일(목)까지 gonggam@korea.kr로 보내주십시오. 의견이 게재된 분에게는 3만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1. 이번 주에 실린 기사 중 가장 관심 있게 읽은 기사와 그 이유를 적어주십시오.
2. 이번 주 특집으로 다룬 '스마트워크 시대'에 대한 의견을 적어주십시오.
3. 〈Weekly 공감〉에서 다뤘으면 하는 내용을 적어주십시오.

잘 사는 농어촌 행복한 국민
농림수산식품부

구제역, 모두가 힘을 모으면 조기에 종식시킬 수 있습니다.

구제역은 사람에게 전염되지 않는 가축전염병입니다.

- 구제역은 인체에 무해하므로 우리 축산물을 안심하고 드셔도 됩니다.
- 구제역에 감염된 가축의 고기는 시중에 유통되지도 않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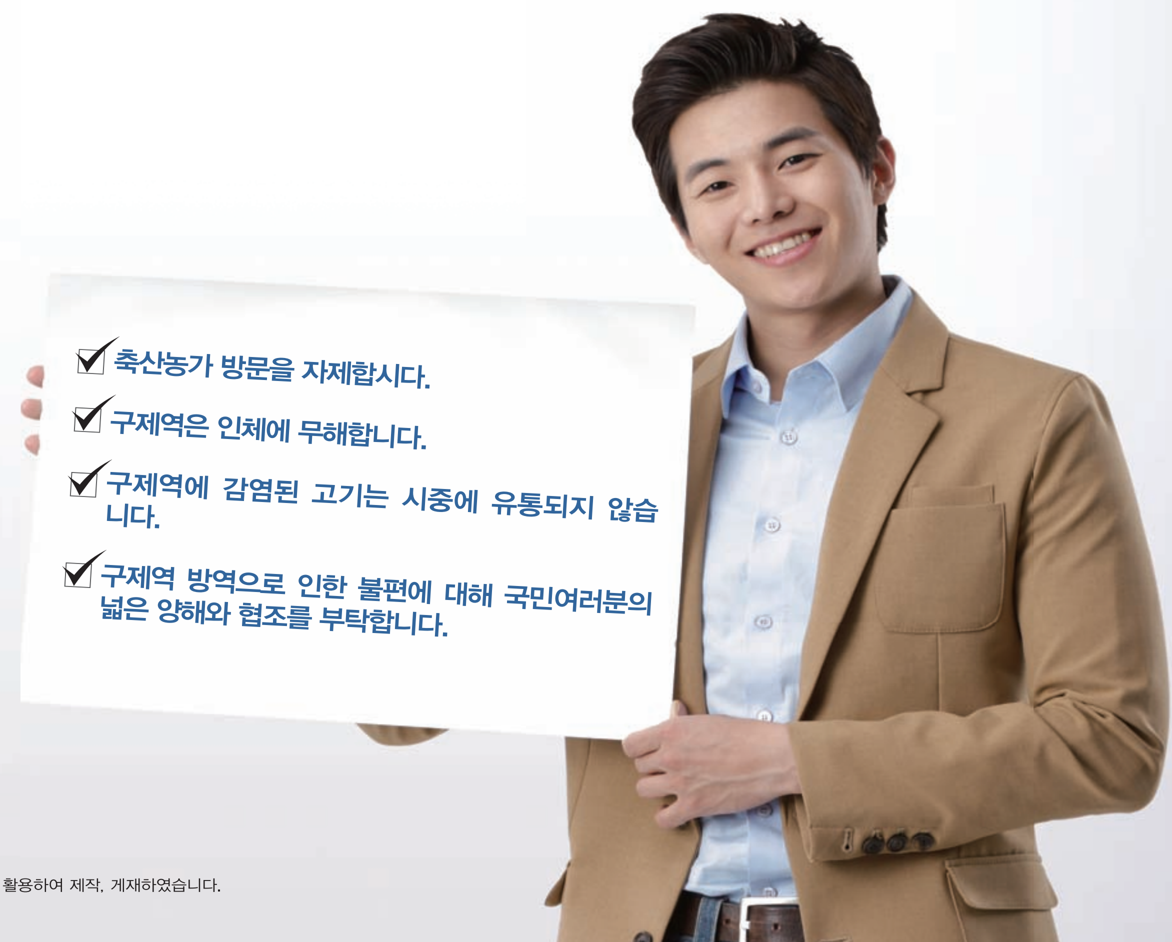
구제역 극복에는 국민여러분의 도움이 절실합니다.

- 구제역 확산 방지를 위해 구제역 발생지역과 축산농가 방문을 자제해 주십시오.

축산농가는 농장 소독을 강화하고, 출입자를 철저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 구제역 의심증상이 있으면, 반드시 신속하게 신고합시다.
- 모임은 자제하고 구제역이 종식될 때까지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단방역과 소독으로 인한 불편에 대해 국민 여러분의 넓은 양해와 많은 협조를 부탁합니다.



이 광고는 한국마사회 특별적립금을 활용하여 제작, 게재하였습니다.

소 이어 돼지에도 구제역 백신

고병원성 AI 위기경보 '주의'로 격상… 수의사·수의대생 자발적 지원나서

전국에 한파처럼 번지는 구제역이 소에 이어 돼지에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일부 지역에서 조류독감(고병원성 AI)이 발생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돼지 백신 접종을 결정했으며, 조류독감 위기 경보를 격상했다. 또 외국에서 발생한 악성 가축질병이 우리나라로 유입되는 일을 막기 위해 축산인들의 입국 검역도 강화됐다.



돼지에게도 구제역 백신접종이 결정됐다. 사진은 지난 1월 6일 백신접종이 실시된 경기도 파주의 한 젖소 사육농가.

소에 이어 돼지에게도 예방백신 접종이 실시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1월 6일 가축방역협의회의 전문가 및 양돈 농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최근 돼지를 중심으로 구제역이 확산되고 있는 충남·북 지역과 인근 경기 남부 지역의 돼지 집산지를 중심으로 종돈(씨돼지) 및 모돈(어미돼지) 약 21만두에 대한 예방접종을 실시하기로 했다.

접종 지역은 ▲경기 안성·이천·여주·평택 ▲충남 보령·홍성·당진·서산·천안·서천 ▲충북 진천·충주·괴산 등 13개 시·군이며, 1천4백56농가의 종돈 9천여두, 모돈 2만여두를 접종하게 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그동안 구제역 발생 돼지농가에 대한 역학조사 결과 사람과의 접촉이 많은 분만 축사에서 주로 감염이 된 점 등을 감안해 종돈 및 어미돼지에 대해 예방접종을 실시하기로 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종돈이나 모돈의 경우 축사 내 돼지의 10퍼센트 정도에 불과하고 면역 형성 시까지 2주 정도의 기간이 걸리는 점 등을 감안할 때 당장 마음 놓을 수는 없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이에 따라 지금과 같은 철저한 방역을 계속해 줄 것을 축산농가에 당부했다.

한편 이명박 대통령은 1월 6일 오전 구제역 대책 관련 긴급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당장의 대책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 선제적 예방체계를 갖출 것"을 주문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이날 1월 말까지 6백50만 마리분의 백신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 "침출수 허점 없도록 하라"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농림수산식품부 등의 철저한 대응체제 가동과 환경부의 후속 조치를 지시하며 최근 대량 살처분 매몰 작업이 진행 중인 것과 관련해 "침출수는 특히 지역 주민들이 대단히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부분이므로, 이런 부분에 허점이 없도록 철저한 사후관리에 신경을 써 달라"고 말했다.

이어 인구이동이 많은 설에 대비한 대책 마련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다음달 설 연휴 때 귀성객을 비롯해 인구 이동이 굉장히 많을 것"이라며 "이에 대비해 치밀하고 철저한 대책을 세워 달라"고 지시했다.

또 "설 연휴 기간 중에는 국외로도 대규모 이동이 불가피하므로 이에 대해서도 대비하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중앙과 지자체의 관계 공무원과 자발적 지원에 나선 수의사, 수의대 학생들에 대해 "사명감 없이는 못할 일이다"라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모습에 격려를 보낸다. 주변에서도 많이 격려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치하했다. G

글 · 박경아 기자/사진 · 황진환(G뉴스플러스 기자)



경기도 방역요원들이 철원과 문산을 오가는 버스 방역 작업을 하고 있다.

해외여행 축산인 입국관리 강화

해외에서 유입되는 가축질병에 대한 문단속이 강화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법무부, 관세청과 합동으로 국경검역 시스템을 강화해 1월 7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그동안 해외여행을 한 축산인이 입국 시 검역기관에 자율적으로 입국을 신고하도록 유도했으나 국경검역 시스템 강화에 따라 해외여행 후 귀국 시 입국심사 과정에서 축산인을 자동으로 확인하게 됐다.
입국심사 과정에서 축산인으로 확인될 경우 입국심사관이 축산인이 소지한 세관신고서에 소독대상으로 표시하고 동물검역 기관으로 안내하게 된다. 폐업 등으로 축산업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도 축산인으로 확인될 수 있으나 일단 검역관에게 신고를 하고 검역관의 안내에 따라야 한다.
축산인이 구제역 등 악성 가축질병 발생국을 여행한 경우 반드시 소독과 방역 교육을 받아야 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이번 강화조치로 축산인으로 확인될 경우 자동 입국심사대를 사용하지 못하는 등 불편이 따르겠지만 범국가 차원의 문제이므로 구제역 방역조치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축산인의 자율 입국신고율도 구제역 확산과 더불어 증가추세에 있다. 지난해 ▲5월 48퍼센트 ▲6월 70퍼센트 ▲7월 80퍼센트 ▲8월 70퍼센트 ▲9월 68퍼센트 ▲10월 53퍼센트 ▲11월 50퍼센트 ▲12월 74.3퍼센트였으나 구제역 발생상황이 악화되자 올 들어 1월 5일 현재 97.5퍼센트에 이르고 있다.

'고병원성 AI' 방역대책본부 가동

구제역에 이어 조류독감이 발생했다.
농림수산식품부가 지난해 12월 29일 충남 천안시의 오리농장과 전북 익산시의 닭 사육농장에서 신고된 AI 의심축을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서 정밀 검사한 결과 '고병원성 AI(혈청형 H5N1)'로 판정됐다.
이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는 국가위기대응 매뉴얼에 따라 12월 31일자로 AI 발생 이전의 위기경보 수준인 '관심단계'를 '주의단계'로 격상시키고, 'AI방역대책본부'를 설치했다
구제역의 경우 이미 최고 수준인 '심각단계'가 발령되어 있는 만큼 AI 방역을 위해 행정안전부에 설치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긴밀하게 협의해 철저한 초동 방역에 나서기로 했다.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천안과 익산의 AI가 지난 12월 만경강 청둥오리, 천수만 수리부엉이 및 해남 가창오리에서 분리된 AI와 동일한 바이러스로 분석됐으며 2009년과 2010년 몽골 야생조류에서 분리된 바이러스와도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닭이나 오리 등 살아있는 가금 또는 가금의 분뇨를 운반하는 차량으로 인하여 고병원성 AI가 전국적으로 확산될 수 있으므로 가금 분뇨를 농장 밖으로 이동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철새에서 지속적으로 AI 바이러스가 분리되고 있는 점을 감안, 지자체에 철새 도래지 등에 대해 철저하게 관리해줄 것을 요청했다.



황진환 G뉴스플러스 기자

구제역 방역요원들은 격무에 파김치가 되면서도 구제역 조기 종식을 위해 묵묵히 맡은 일을 수행하고 있다. 경기도 여주군에서 업무 수행 중인 구제역 방역요원들.

통곡의 살처분… 남몰래 흐르는 눈물

광풍이 지난 자리엔 방역관계자와 자원봉사자의 무거운 침묵만

시간이 걸리겠지만 구제역 광풍은 그칠 것이다. 광풍이 그칠 때쯤 웃을 수 있는 이들이 있다. 2011년 시무식은커녕 'Happy New Year'란 덕담도 듣지 못한 채 구제역 방역현장을 누비는 방역 관계자들이다. 한파보다 빠른 속도로 번지는 구제역을 잡기 위해 새해인사도 잊은 방역현장에 서울대와 건국대 수의과 대학생들도 자원봉사자로 합류했다.

경기 여주군청 축산팀 가축방역관 김형신(여·42) 씨의 올해 소망은 하루빨리 구제역이 사라져 초등학교 5학년인 딸, 3학년인 아들과 함께 여주군 내 관광명소를 유람하는 것이다.

지난해 12월 1일 경기 양주시에서 여주군으로 자리를 옮긴 김씨는 첫 출근 후 일주일 만에 자녀 얼굴을 봤다. 전근하자마자 밤샘근무를 해야 했기 때문이다.

구제역 발생 농가에 들어가 매몰지 선정, 살처분 보상평가, 매몰 사후관리 등을 총괄하는 게 그의 업무다. 한번 살처분할 때마다 보통 20~30명이 투입된다. 볏짚, 가축사료, 약품, 분변 등 오염물질까지 다 태워야 한다. 전부 처리하는 데 하루 정도 걸린다. 돼지 같은 경우 두수가 많으면 살처분에도 며칠이 소요된다. 잠은 모닥불을 피워놓고 쪽잠을 잔다.

여주군 구제역방역대책본부는 현재 군(郡) 공무원을 필두로 경기도, 농림수산식품부 공무원, 군 병력 등이 협력한 가운데 방역대책을 시행하고 있다. 군청 공무원의 경우 농정과 직원 22명을 비롯해 하루 평균 1백50명 이상이 현장에 투입되고 있다. 이는 전 직원의 3분의 1 규모다.

살처분 현장에서 농민들의 통곡을 들을 때마다 김씨의 가슴은 먹

먹해진다.

"돼지를 2백 두 정도 키우는 분이었어요. 살처분하는데도 돼지들이 말을 잘 듣는 거예요. 원래 안 가려고 하는데 가란다고 따라가니 저도 마음이 안좋았어요. 돼지들을 묻고 나서 우시더라고요."

동물을 살리려 수의학을 배운 이들에게 살처분이 수반되는 구제역은 가혹한 형벌이다. 박준조(50) 경기도축산위생연구소 동부지소장은 소·돼지에게 사신(死神) 노릇을 자처할 수밖에 없었던 심정을 눈물을 흘리며 털어놓았다.

"구제역이 종식되면 저희 직원들에게 정신과 치료를 받게 했으면 합니다. 아무리 동물이지만, 살아있는 생명을 죽인다는 게 보통 (심정으로) 하기 어렵거든요."

방역관계자들 밥도 못먹고 악몽 시달리기도

박 지소장은 올해로 공직생활 23년째다. 전남대 수의학과를 졸업하고, 1988년부터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서 공무원생활을 시작했다. 2002년 경기도축산위생연구소로 옮겨 분석팀장으로 일했다. 지난해 2월 동부지소장에 부임했다.

동부지소는 경기 이천·여주·하남·광주·양평 등 도내 5개 시·군의 가축방역 업무를 관할한다. 지난해 12월 24일부터 동부지소 전 직원 22명은 출퇴근 없이 24시간 근무 중이다. 박 지소장도 여느 직원들과 마찬가지다. 올 1월 1일에야 박 지소장은 수원에 있는 집에 갔다 왔단다. 마침 그날은 결혼기념일이었다.

홍승표 파주 부시장은 경기도청 노조홈페이지 게시판에 글을 올려 구제역 방제현장에서 고생하는 직원들과 외부 지원인력에 대해 감사하고 '살아있는 생명체를 살처분해 차마 사람으로 못할 일을 어쩔 수 없이 해야 하는' 현장 분위기를 전했다.

홍 부시장은 "파주를 비롯한 구제역 발생 시·군 공무원들은 남녀 구분 없이 방역 작업을 벌이며 살처분 매몰 작업장에 동원되고 있지만 일부 미흡한 점이 과장되게 알려져 참으로 안타깝다"며 "살처분 현장 참여 후 밥도 못 먹고 악몽에 시달리는 직원이 늘어나고 있다"고 토로했다.

방역장비를 고치다 손가락뼈가 부러진 직원, 살처분 현장 주변 쓰레기를 태우던 중 부탄가스통 폭발로 전신화상을 입은 환경미화원, 모친 임종도 못 지킨 살처분 직원 등 안타까운 사연들을 전한 홍 부시장은 "지친 몸을 이끌고 잠들기 전에 하루빨리 구제역이 종식되기를 간절히 기도한다"며 "구제역이 종식된다면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은 절박감이 가슴을 짓누르고 있다"고 절실한 심정을 고백했다. G

글·남경우(G뉴스플러스 기자)

건국대 수의학과 임소정씨 방역 체험담

구제역 확산을 막기 위한 방역과 예방접종, 살처분 현장에 미래의 수의사를 꿈꾸는 대학생들이 자원봉사자로 나서고 있다. 건국대 수의과대학 학생들이 지난해 12월 29일부터 경기도 지역에서 구제역 방역 현장에 출동했다. 서울대 수의과대학도 1월 5일 이 같은 자원봉사에 참여한다고 밝혔다. 향후 더 많은 대학 수의과대학 학생들이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다음은 경기도 여주에서 구제역 방역에 참여했던 건국대 수의학과 2학년 임소정씨의 체험담이다.



새벽 여섯 시. 달콤한 방학의 여유를 즐기고 있는 대학생에게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이른 시간, 여러 명의 선후배와 경기도 여주 구제역 방역 현장으로 출발했다.

구제역이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가 일손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소식을 듣고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 싶어 봉사활동을 자원했다. 본과 2학년을 마친 나는 지난 일 년 동안 가축전염병의 발병기전이나 증상, 치료법 등에 대해 배워왔고, 특히 구제역은 교수님들께서 집중적으로 다뤄주신 주제였다.

여주군청에 도착해 방역작업에 관한 개략적인 설명을 듣고 조 편성을 한 뒤 곧바로 농가로 출발했다. 농가에서는 백신 접종을 보조하는 역할이 주어졌다. 소를 고정시키고, 주사기와 약물 준비하기, 인식번호 대조하기, 접종한 소를 표시하는 작업들이었다.

우리가 방문했던 농장들은 축사시설이 낙후된 곳이 많았고, 농장주 혼자 농장을 관리하는 곳이 많아 작업에 어려움이 많았다. 소를 틀에 고정시키지 않는 방목형 농장에서는 일일이 소를 밧줄로 잡아 고정해야 했다.

예기치 못한 사건이 이튿째 일어났다. 마지막으로 방문한 농가에서 아침부터 밥을 잘 먹지 않는다는 소를 검사하던 중 잇몸이 벗겨지고 피가 난 것을 발견한 것이다.

더 이상 작업을 진행하지 못하고 정밀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격리조치하기로 했다. 그리고 그날 밤 그 농장이 살처분 처리를 받게 됐다는 소식을 들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봉사활동 기간 동안 농장에서의 기억은 자식같이 키워온 소들을 쓰다듬으면서 걱정하는 모습, 이웃 농장의 안부를 묻고 우리에게 따뜻한 차 한 잔이라도 대접해 주시려는 마음이었다.

이번 봉사활동을 계기로 대한민국 국가재난 시 국가를 위해 맡은 바 의무와 책임을 다할 수 있는 수의사가 돼야겠다는 다짐을 해본다. 우리나라의 축산업을 지키기 위해 많은 수의사, 공직자 그리고 학생들이 노력하고 있는 만큼 하루빨리 방역작업이 마무리되고 구제역 확산도 종식되기를 기대한다. 구제역 사태로 인해 많은 축산농가가 받은 마음의 상처가 빨리 치유됐으면 좋겠고, 구제역 청정국 지위를 회복하는 대한민국이 됐으면 한다.

정리·박경아 기자



4대강살리기 사업이 완료된 부산 화명지구. 4대강살리기 사업을 마친 친수구역은 투기를 억제하고 주거·상업·관광지로 조성한다.

4대강살리기 사업 한강·금강·낙동강·영산강 주변

친수구역 개발이익 90% 공익에 쓴다

정부는 4대강살리기 사업을 진행하는 한강·금강·낙동강·영산강 주변을 친수구역으로 지정해 이곳에 콘도·수상놀이시설·골프장·아파트 등을 지어 주거·상업·관광지로 조성할 예정이다.

정부가 추진 중인 '4대강살리기 사업' 현장 주변에서 발생하는 이익의 대부분이 국가로 환수된다. 국토해양부는 1월 4일 개발이익의 90퍼센트를 환수하는 내용을 담은 '친수(親水)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친수구역이란 강 주변의 경치가 좋고 입지가 우수한 곳으로, 4대강 살리기 사업으로 개발이익이 예상되는 구역을 의미한다. 정부는 4대강살리기 사업을 진행하는 한강·금강·낙동강·영산강 주변을 친수구역으로 지정, 이곳에 콘도·수상놀이시설·골프장·아파트 등을 지어 주거·상업·관광지로 개발할 예정이다.

4대강 연계 지방하천도 정비

정부는 지난 연말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4대강 사업의 핵심법안인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의 제정·공포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한국수자원공사와 지방자치단체는 4대강 사업지 주변에서 주거와 관광 등의 기능을 갖춘 복합단지를 조성할 수 있게 됐다. 이번에 입법예고된 친수구역법 시행령·시행규칙은 친수구역의 구체적인 개발방향을 설정하고 개발에 따른 폐단을 막는 역할을 할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연말 청와대 업무보고를 통해 4대강 사업 이후 국가하천 유지·관리를 위한 통합시스템을 구축하고, 4대강과 연계된 3천7백여 곳의 지방하천을 단계적으로 정비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아울러 20곳의 '물 순환형' 수변도시를 조성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이 과정에서 예상되는 난개발 등을 막기 위해 세부 법안이 이번에 마련된 것이다.

친수구역 특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따르면, 친수구역은 하천구역 경계로부터 양안 2킬로미터 범위 내의 지역 50퍼센트 이상을 포함한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강 주변지역을 50퍼센트 이상 포함한 것은 하천에 대한 접근성과 연계성을 반영하고 친수구역을 친환경적으로 조성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정부는 친수구역의 면적에 대해 '최소 10만제곱미터 이상'이라는 하한선을 마련했다. 사업 면적이 10만제곱미터 이하일 경우 토지의 효율적 이용이 어렵고 포도송이 형태의 소규모 개발이 난립해 또 다른 형태의 난개발이 초래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라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현재 일부 기초자치단체가 3만제곱미터 이하의 농림지역(관리지역 포함)에 대해 무분별한 개발을 허용하고 있다는 점도 고려됐다.

국토해양부 하천계획과 손덕환 서기관은 "10만제곱미터라는 하



금강 금남보의 가동보 구간. 금남보가 위치한 세종지구 친수구역은 세종시와 연계해 조성한다.

한선을 둠으로써 친수구역내에 도로·녹지·공원 등 공공시설을 충분히 배치하고 학교·병원·주거시설 등을 건립해 구역의 자족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4대강살리기 사업으로 난개발을 조장한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법의 취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데 따른 오해"라며 "하천주변 2킬로미터의 50퍼센트 이상을 모두 개발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친수구역으로 지정이 가능한 구역만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소규모 난개발 확산 방지

정부는 낙후지역 개발 촉진과 소규모 난개발 확산 방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친수구역조성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3만제곱미터(약 1만평) 이상도 예외적으로 허용할 예정이다.

친수구역으로 지정을 받기 위해서는 사업계획과 함께 사전환경성 검토 서류 등을 포함한 친수구역 지정제안서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미리 제출해야 한다. 투기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친수구역 내에 건축물을 짓거나 공작물을 설치하는 경우, 토지의 형질변경을 원할 때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허가를 사전에 받아야 한다.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수도권에 위치한 학교, 공장, 기업, 연구소 등이 비(非)수도권 친수구역으로 이전할 경우 해당 기관 근무자에 대해서는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주택을 특별공급할 수 있도록 했다.

친수구역 조성사업으로 발생하는 이익의 90퍼센트는 국가가 환수해 하천 관리나 유지·보수용으로 사용하도록 했다. 국토해양부 손덕환 서기관은 "개발이익에는 하천 정비사업으로 인한 편익이 포함되어 있고 사업시행자도 공공기관으로 한정돼 있어 환수된 금액이 공공목적 재원으로 재투자된다는 측면에서 그 비율이 과도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번에 입법예고된 친수구역 특별법 시행령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오는 1월 24일까지 국토해양부 하천계획과(02-2110-6320)나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에 관련 내용을 개진할 수 있다. G

글·백승구(월간조선 기자)

친수구역 특별법 시행령 주요 내용

가 친수구역의 범위를 국가하천의 하천구역 경계로부터 양안 2킬로미터 범위 내의 지역을 1백분의 50 이상을 포함해 지정된 구역으로 함(제2조)

나 친수구역의 규모는 10만제곱미터 이상으로 하되, 낙후지역 또는 소규모 난개발의 확산 방지 등을 위한 경우에는 친수구역조성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3만제곱미터 이상으로 할 수 있도록 함(제3조)

다 친수구역조성사업의 사업시행자는 사전환경성 검토 서류 등을 포함한 친수구역지정제안서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제4조)

라 1백분의 10 이상 친수구역 면적을 변경하려는 경우 주민 등의 의견을 청취토록 하고 그 절차를 규정(제7조)

마 친수구역의 지정·변경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청취의 공고가 있는 지역 안에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를 구체적으로 규정(제9조)

바 사업시행자가 용지매수·손실보상 등의 업무를 국가, 지자체, 지방공사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제11조)

사 비수도권 친수구역으로 이전하는 학교, 공장, 기업, 연구소 등에 근무하는 자에 대한 주택을 특별공급(제15조)

아 친수구역조성사업으로 인해 정상지가 상승분을 초과해 발생하는 토지가액의 증가분(친수구역 개발이익) 산정시 공제되는 적정수익을 친수구역 개발이익의 1백분의 10으로 함(제25조)

자 친수구역조성위원회의 구성, 심의사항, 심의절차를 규정(제30조)



1

청계천문화관 무형문화재 사진전

'전통의 숨결, 찰나의 모습'을 포착하다

장인(匠人)들의 숨결을 느끼고 싶은 사람은 서울 성동구 마장동에 있는 청계천문화관을 방문해보면 좋을 듯하다. 이곳에서는 국립문화재연구소와 청계천문화관이 공동 개최하는 무형문화재 사진전 '전통의 숨결, 찰나의 모습'이 열리고 있다. 하루 평균 2백명의 관람객이 찾아오고, 그중에는 외국인도 많다.

이번 사진전은 '엄숙한 禮의 공간-제사의례', '신명나는 공동체 놀이문화-음악·놀이·무예', '장인의 혼과 숨결-장인과 작품' 등 세 개의 주제로 나뉘며 50여 점의 작품이 전시된다.

먼저 '엄숙한 禮의 공간'에서는 종묘제례, 옥산서원, 인천향교 등을 통해 선조들과 유림의 효, 예 사상을 엿볼 수 있다. '신명나는 공동체 놀이문화'에서는 가야금연주, 송파산대놀이, 하회별신굿탈놀이, 제주 동김녕마을 잠수굿, 태껸 등 다양한 민속의 예능 전승현장을 간접 체험하게 해준다. 또 '장인의 혼과 숨결'에서는 기와를 잇는 번와장, 전통 가죽신발을 만드는 화혜장, 면천두견주의 제작 현장 등을 보여준다. 이 같은 문화재 기록 사업에 참여했던 6명의 사진작가는 때로는 엄숙하고, 때로는 신명난 순간을 다양한 시선으로 보여준다.

사진 관람이 끝나면 동영상 시청 공간으로 이동해 무형문화재 기록 동영상을 시청할 수 있다. 사라져 가는 전통의 원형을 후세에 전해주고자 노력하는 장인들의 땀과 혼을 한껏 느껴보자. 청계천문화관 1층 기획전시실에서 무료로 관람 가능하며 전시기간은 2월 27일까지다.

글 · 이제남 기자

전시 기간 2011년 2월 27일까지 **전시 장소** 청계천문화관 1층 기획전시실 **관람료** 무료
관람 시간 평일 09:00~21:00, 토 · 일 · 공휴일 09:00~18:00(월요일 휴관)
전시 문의 국번없이 120 www.cgcm.go.kr



서헌강 作 〈종묘제례〉



서헌강 作 〈옥산서원〉



최호식 作 〈택견〉



주병수 作 〈옹기장 방춘웅〉

1 종묘제례는 조선시대 역대 왕과 왕비의 신위를 모셔 놓은 사당(종묘)에서 지내는 제사이다. 1995년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됐다.

2 경북 경주시에 있는 '옥산서원'은 매년 2월 · 8월 향사(제사)를 지내기 위해 50여 명의 유림이 참석한다.

3 학의 우아한 움직임 같기도 하고 사냥감을 향해 공격하는 매의 움직임 같기도 한 것이 바로 태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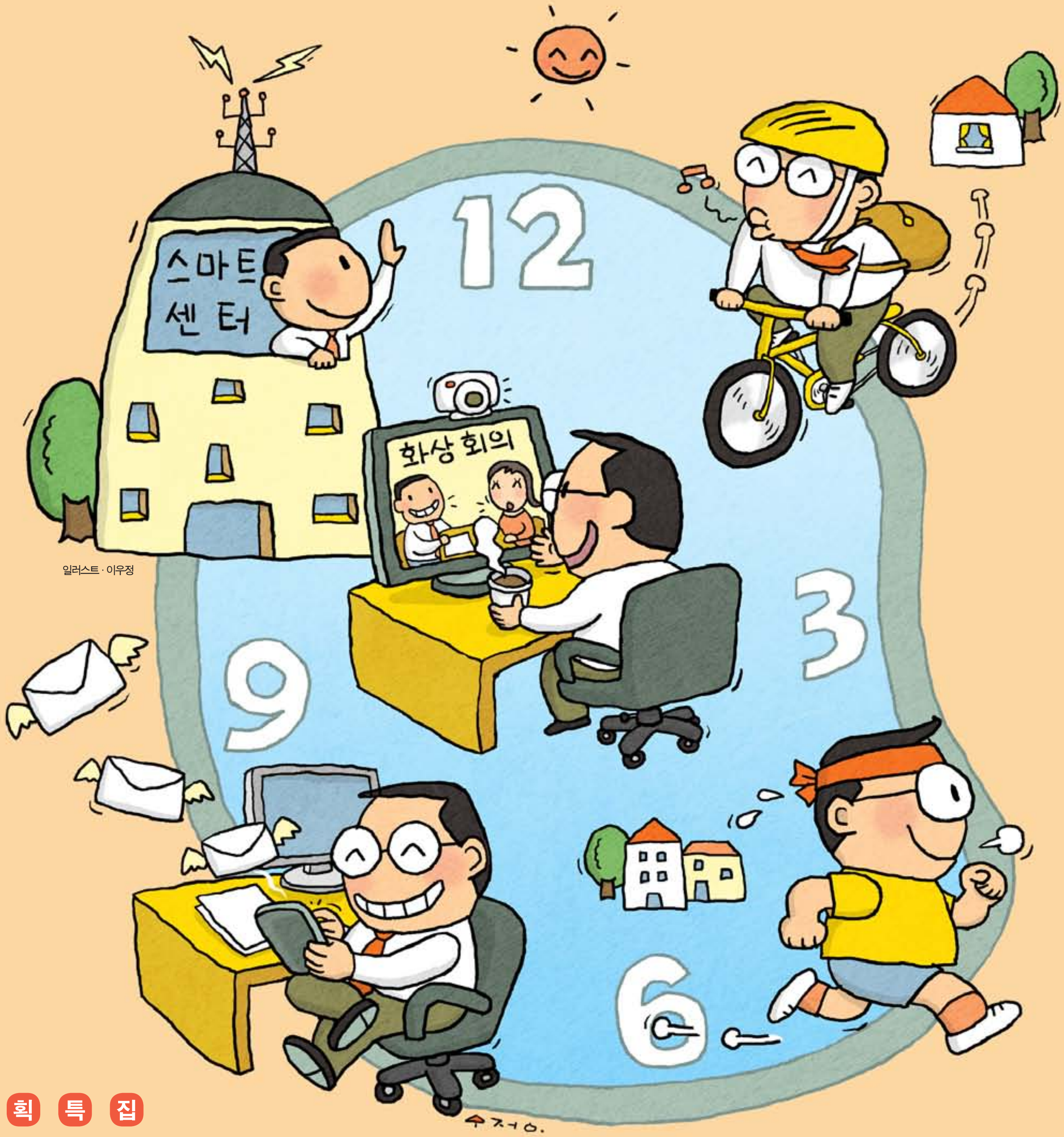
이상윤 作 〈하회별신굿탈놀이〉

4 '옹기장'은 단지, 항아리, 독 등을 만드는 장인이다. 5대째 가업을 이어가는 옹기장 방춘웅씨가 정성스레 옹기를 빚고 있다.

5 경북 안동 하회마을에서는 섣달 그믐날 성황님께 풍요를 기원하며 별신굿을 지냈다. 이때 성황님을 즐겁게 해드리기 위해 하던 탈놀이가 '하회별신굿탈놀이'다. 중요무형문화재 제69호이다.



매립 종료 후 「드림파크골프장」으로 조성 중인 제1매립장



일러스트 · 이우정

기 획 특 집

똑똑~ '스마트워크'가 왔다 똑똑하게 일하라

똑똑하게 일하길 원하는가. 그럼 '스마트워크(Smart Work)'하라.
세계 최고 수준의 정보통신기술(ICT) 인프라를 이용해 시간 · 장소 제약 없이 업무를 수행하는 스마트워크 방식에서는 집이 사무실이고, 모바일 현장이 일터다. 유연한 시간 활용으로 삶의 질과 업무효율을 높이는 스마트워크, 새로운 글로벌 경쟁력으로서 저탄소 녹색성장에도 기여할 스마트워크는 '스마트 사회'를 앞당겨 구현하며 세계적 트렌드가 되고 있다.

스마트 코리아! me first!!

2010년이 스마트폰으로 촉발된 모바일 인터넷 시대가 개막한 해라면 2011년은 스마트워크(Smart Work)의 원년이 될 전망이다. 스마트폰과 태블릿PC, 클라우드 컴퓨팅 등 모바일 정보통신기술(ICT)의 발달이 불러온 스마트워크는 우리의 업무 형태를 ICT가 연결되는 모든 영역으로 확장해 효율성 높고 창조적인 스마트 지식사회의 도래를 촉진할 것이다.



조선DB

대세는 똑똑한 스마트워크다. 서울도시철도공사 직원들이 일회용 교통카드 발매충전기를 점검하면서 스마트폰을 이용해 관련 정보를 확인하고 있다.

속 뒤집는 상사는 가라. 끝없는 잡무도 가라. 붙박이로 근무하던 기존의 직장 환경 대신 효율성과 생산성을 중시하는 업무 방식의 '종결자' 스마트워크(Smart Work) 세상이 도래했다.

지난해 스마트폰 열풍으로 거침없는 모바일 세상이 개막한 데 이어 그저 시키는 대로 '열심히 일하는(Work Hard)' 습성에서 벗어나 보다 창의적으로 '똑똑하게 일하는' 스마트워크 방식이 빠른 속도로 보급되고 있는 것이다.

스마트워크란 날로 발전하는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해 시간·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유연하게 근무하는 형태를 말한다. 모바일 기기 발달로 확산이 가속화되고 있는 스마트워크는 업무의 효율성과 창의성을 중시해온 미국과 일본, 유럽 등지에서 우리나라보다 먼저 새로운 근무 형태로 확산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지난해부터 아이폰을 선두로 스마트폰이 적극 도입돼 '모바일오피스'가 구현되면서 스마트워크 시대가 본격화되고 있다. 최근 KT나 삼성SDS, 한국IBM 등 대기업이나 외국계 기업이 속속 스마트워크센터를 구축하며 업무의 유연성을 높이고 있다.

정부도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와 행정안전부, 방송통신위원회, 한국정보화진흥원 등을 중심으로 정부와 민간의 '스마트모바일'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스마트워크 확산에 소매를 걷어붙였으며, 지난해 11월 이후 서울 등지에 스마트워크센터 3곳을 개설했다. 각종 스마

트워크 지원정책들도 속속 선보이고 있다.

물론 스마트워크라고 해서 '상시' 재택근무나 현장근무를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우리보다 앞선 스마트워크 선진국들의 기준에 따르면 스마트워크란 '주1회 이상 하루 8시간을 직장이 아닌 집이나 현장, 스마트워크센터 등지에서 근무하는 업무 형태'를 의미한다.

최근의 스마트워크 확산은 우선 '시대적 요청'에 따른 것이다. 스마트폰 확산과 고화질 동영상 서비스의 대중화에 따라 언제 어디서나 유연하게 근무할 수 있는 스마트워크 여건이 성숙해 있다.

특히 ICT 인프라가 강점인 우리나라는 전국적으로 구축된 통신망과 국민의 뛰어난 ICT 활용능력, 그리고 스마트폰·디스플레이 등에서 앞선 기술력 등이 결합한 시너지 효과로 세계적인 스마트워크 선도국가로 발돋움하는 것이 충분하다.

매년 발표되는 세계경제포럼(WEF)의 네트워크 준비지수(NRI·2010년)에서 우리나라 종합순위는 조사 대상 1백33개국 중 15위였지만, 부문별(일반 환경, 준비도, 활용도) 순위에서는 ICT 활용도 부문 1위였다. 유엔 산하 국제전기통신연합(ITU)이 발표한 1백59개국의 ICT 종합순위에서도 우리나라는 3년 연속 3위 안에 들었다.

스마트폰 확산으로 '모바일오피스' 구현

근로의 질과 근로 결과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현실적 필요성도 스마트워크 도입을 절실하게 만들고 있다. 우리나라 근로자는 1년 평균 2천2백56시간을 일하고 있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1.3배 길며, 30개 회원국 중 노동생산성은 22위(2008년 기준)로 바닥권이다.

허성욱 방송통신위원회 네트워크기획보호과장은 "굳이 이런 통계가 아니라도 우리는 하루의 대부분을 일이나 출퇴근에 소비하고 있다"며 "긴 노동시간과 낮은 업무 몰입도는 창의적인 업무와 삶의 여유를 갖기 어렵게 만든다. 우리가 매일 하는 일을 좀 더 효율적으로 개선한다면 국가경쟁력이나 우리의 삶의 질이 높아질 것은 자명하다"고 지적한다.

스마트워크는 우리의 국가적 현안인 고용 없는 성장과 저출산·고령화 사회를 대비한 저탄소 녹색성장원으로서의 잠재력도 갖고 있다.

경제적 효과도 무시할 수 없다. KT경영경제연구소 자료에 따르면 스마트워크가 확산·정착될 경우 스마트폰을 이용한 모바일오피스 및 스마트TV 기반의 원격 실감형 영상협업 등이 급성장해 국내 모바일오피스 시장은 2009년 2조9천억원에서 2014년 5조9천억원 규모로 확장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얼마 전 한국정보화진흥원은 스마트워크 공공·민간 활성화를 위한 이슈와 정책을 발굴하기 위해 'Smartwork Insight(스마트워크 인사이트)' 시리즈를 발간하기로 하고 그 첫 번째로 '일하는 방식의 대혁명적 변화 스마트워크'란 제목의 보고서를 내놓았다.

'창의적 업무와 삶의 여유' 두 마리 토끼 잡아

이 보고서는 "사회현안 극복을 위해 스마트워크가 급부상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를 포함한 세계 각국이 일과 삶의 조화, 노동 유연성 및 생산성 제고를 위한 방안으로 다양한 스마트워크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이와 함께 ▲실효성 높은 정책 개발 ▲여성, 장애인, 원거리 출퇴근자 우선 적용 등과 같은 단계적 확산 ▲노조, 사용자, 솔루션 사업자 등 다양한 집단의 이해관계 조정 등 사회적 합의 도출 ▲최고경영자의 관심 등 전사적 지원 ▲보안 관련 기술 및 제도적 보완 등을 스마트워크 확산과 정착을 위한 정책 과제로 제안했다.

김성태 한국정보화진흥원장은 "문명사적 변화를 가져올 스마트워크가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기 위해서는 단순히 사무환경의 변화가 아니라 조직 혁신 차원에서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다양한 이해관계 조정을 위한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고 조직의 최고경영자가 관심을 가질 때 우리 사회에 성공적으로 뿌리내릴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G

글·박경아 기자



LG유플러스

모바일 기기만 있으면 어디서나 회사 시스템에 접속할 수 있도록 스마트워크 체제를 구축한 LG유플러스.

출퇴근 시간 줄고… 만점 가장으로 변신

정부 산하 민간기업의 연구원인 나공감씨(가상인물)는 요즘 "살 맛이 난다"고 말한다. 회사에서 작년 하반기부터 유연근무제 중 하나인 시차출근제를 탄력적으로 실시해 출퇴근에 대한 부담을 줄인 것을 시작으로, 최근엔 스마트워크제 실시로 일주일에 화·수·금요일 3일은 본사 출근 대신 분당 자택 근처 스마트워크센터에서 근무하고 있기 때문이다. "집(분당 백현동)에서 본사(서울 중구 무교동)까지 편도 1시간20분이라는 시간이 걸리는데 스마트워크센터로 출근하면서 약 1시간을 절약, 그것만으로도 라이프스타일에 큰 변화가 왔다"고 전한다. 자칭 '스마트워커'라고 부르는 나씨의 일기를 들여다봤다.

06:30



따르릉~ 소음에 가까운 기상벨 소리에 반사적으로 몸을 일으켰다. 시계를 보니 6시30분. '지각'이라는 생각에 순간 머리카락이 쭈뼛섰지만 생각해 보니 오늘은 스마트워크센터로 출근하는 날이었다.

본사 출근일 경우 출근시간만 1시간 넘게 소요돼 6시면 '칼같이' 일어나야 하지만, 오늘만큼은 그러지 않아도 된다. 스마트워크센터까지는 걸어가도 될 거리니까. 안도의 한숨과 함께 다시 포근한 이불 속으로 쏙 들어간다.

07:30~09:30

폭 잔 덕인지 유난히 개운하다. 뻐근했던 몸도 언제 그랬냐는 듯 가볍다. 잠이 보약이라는 말이 실감난다. 씻고 난 후 아침대용식으로 먹던 선식 대신 오늘은 가족이 함께 식탁에 모여 아침식사를 했다.

이후 초등학교 2학년인 딸과 어린이집에 다니는 세 살 아들의 등교와 등원 준비를 도우며 출근 준비를 했다. 출근시간에 쫓겨 아침마다 예민한 아내지만 오늘은 믿는 구석이 있어서인지 꽤 여유롭다. 다니는 직장이 서울 광화문이라 출근길이 다소 험난한 아내가 먼저 출근하고 난 뒤 두 아이를 데리고 나와 차례로 등교, 등원을 시켰다.



어린이집 문 앞에서 "안녕"하며 손 흔드는 아이를 맡겨두고 나오니 베이비시터에게 아이를 안기다시피 하고 나올 때보다 마음이 한결 가벼웠다.

이후 집으로 돌아와 뒷정리를 한 후 스마트폰과 노트북, 보안인증키가 들어 있는 USB 등을 챙겨 집을 나섰다.

09:30~10:00

집에서 분당 스마트워크센터까지 가는 데 걸리는 시간은 도보로 20분, 자전거를 이용하면 10분 이내다. 오늘은 복잡한 출근 버스를 잡아타는 대신 집 앞 탄천 산책로를 따라 스마트워크센터로 출근했다. 복장도 한결 가볍다.

가는 길에 스마트폰으로 이메일도 확인하고 뉴스도 시청했다. 도착하니 먼저 출근한 주변 직원들이 담소를 나누며 커피를 마시고 있었다. 인사를 나누고 나서 센터 좌석에 앉았다.

분당 스마트워크센터에는 현재 총 25석의 자리가 마련돼 있다. 공무원 석이 20개, 민간기업체 직원 석이 5개다.



10:00~12:00

이제 본격적인 업무 시작. 11시엔 부장에게 업무 보고차 영상회의실로 가서 웹캠을 이용해 보고한 후 팀원이 동시 접속해 영상회의를 진행했다.

센터 내 회의실에는 영상회의가 가능하도록 관련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다. 영상으로 마주한 팀원들은 "처음엔 (화상회의가) 어색했지만, 이제는 실물을 마주하는 게 오히려 부담스러운 것 같다"며 서로 웃었다.

그중 개인 소장 컴퓨터에 보안시스템과 영상회의 시스템을 갖춰 집에서 접속하는 사람도 있었다. 회의를 마친 후 자리로 돌아와 사설 원격 서비스(VPN)가 내장된 USB를 꺼내 컴퓨터에 꽂고 사내 정보시스템에 접속해 업무를 봤다.

12:00~13:00

점심은 대개 센터 내 구내식당에서 해결하지만, 오늘은 둘째 아이의 예방접종이 있는 날이라 점심때를 이용해 어린이집에 있던 아이를 데리고 나와 인근 소아과에 다녀왔다.

예방접종을 마치고 아이를 다시 어린이집에 데려다 준 후 집에 들러 간단하게 식사를 했다. 오후 업무시각에 맞춰 센터로 들어왔다.





13:00~19:00

다시 오후 업무가 시작됐다. 외부 인사 접견이나 중요 회의는 본사 출근일인 월·목요일에 스케줄을 짜고, 스마트워크센터에서는 주로 보고서 작성이나 자료 수집 등을 한다. 주변에 불필요한 말을 거는 사람도 없고 잡다한 일을 하지 않으니 업무집중도가 높다.

당일 업무를 마치니 시계는 5시를 가리켰다. 여유 있게 커피 한잔을 즐기며 인터넷을 통해 동영상 어학 강의를 클릭했다. 시간부족을 핑계로 시도조차 못 했던 것이지만 시간 활용을 잘하면 자기계발에 대한 투자가 가능하다.

7시경 업무를 마무리하고 퇴근했다. '술 한잔하자'는 동료나 '회식하자'는 상사가 없어 허전하긴 하지만 말끔한 모습으로 퇴근 도장을 찍고 나오니 어쩐지 모범가장이 된 기분이다. 몇 달 전 건강검진 때 지방간에 각종 성인병 증상이 나왔던 것을 상기하며 운동 삼아 탄천산책로를 걸어 집으로 왔다.

19:00~20:00

집에 오는 길에 둘째 아이가 다니는 어린이집에 들러 아이를 데리고 왔다. 집에선 아내가 저녁을 준비하는 동안 아이들과 열심히 놀아줬다. 잦은 회식과 야근이 이어졌다면 꿈도 못 꿨을 시간이다. 식탁에 둘러앉아 저녁을 먹으며 서로 하루 일과에 대해 얘기했다.

20:00~22: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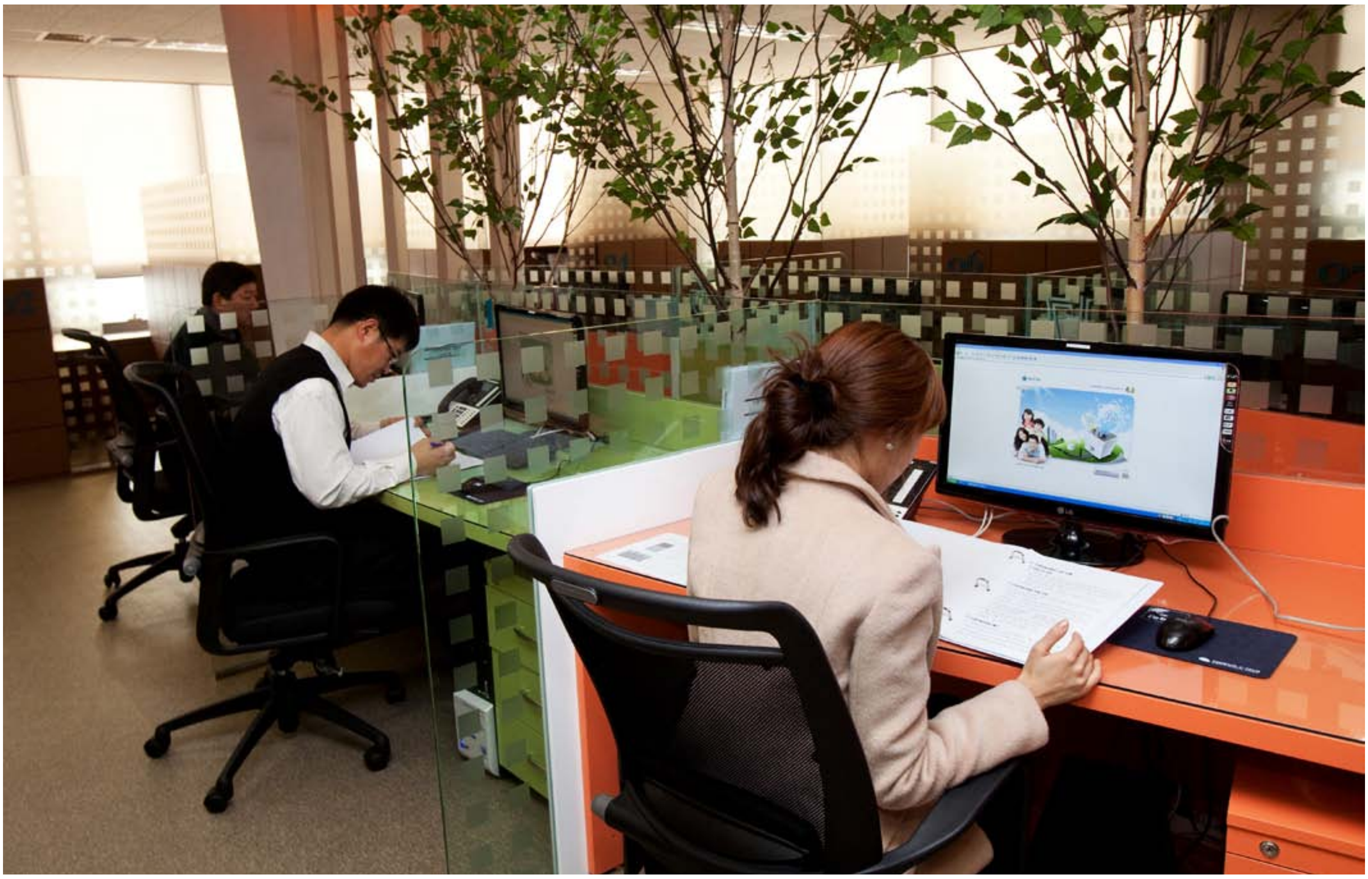
식사를 마치고, 아내가 밀린 집안일을 하는 동안 딸의 숙제를 도와줬다. 느긋하게 소파에 앉아 9시 뉴스를 보며 하루를 마무리했다. 내일은 본사 출근 일이라 일찍 잠자리에 들어야겠다. G

글·박근희 기자 / 일러스트·이우정

스마트워크제 실시 후 나공감씨의 비용절감 사례 비교

내역		본사 5일 근무 시		주 3회 스마트워크센터 근무 및 유연근무제 시차출근제 시		
교통비 - 6만8천2백원	12만 5천6백원	버스(왕복3천6백원X21일) =7만5천6백원	성남시 분당~서울 무교동	5만 7천4백원	버스(왕복3천6백원X9일) =3만2천4백원	성남시 분당~서울 무교동
		택시(2만5천원X2회)=5만원	야근, 회식 등 월2회 택시이용		택시(2만5천원X1회) =2만5천원	야근, 회식 등 월1회 택시이용
식비 - 6만6천원	19만 2천원	점심(6천원X22회) =13만2천원	본사 근처 식당 이용	12만 6천원	구내식당 점심 (3천원X12회)=3만6천원	센터 내 구내식당 또는 집근처 식당 이용
		저녁(6천원X10회)=6만원			주변식당 점심 (6천원X10회)=6만원	
					저녁(6천원X5회)=3만원	
육아 - 1백만원	1백만원	베이비시터 고용		100% 보육료 지원혜택	둘째 구립 어린이집 등록	
기타 - 6만원	12만원	교제 등 기타 모임(최소 3만원X4회)=12만원		6만원	교제 등 기타 모임(최소 3만원X2회)=6만원	
계 - 1백19만4천2백원	1백43만7천6백원			24만3천4백원		

'나공감씨'의 하루는 실제 스마트워크제를 모범적으로 실천하고 있는 행정안전부 산하 한국정보화진흥원 스마트워크지원센터 조용탁 연구원의 하루 일과를 토대로 우수사례들을 모아 재구성한 것입니다.



도봉스마트워크센터는 최첨단 IT 기술을 활용해 본인 사무실과 동일한 근무환경을 제공한다. 쾌적한 사무공간에 컴퓨터는 물론 전화기, 팩스 등 업무 시설이 잘 갖춰져 있어 이용자들의 만족도가 높다.

서울 도봉구 '스마트워크센터'

첨단 사무장비 완비… "업무효율 좋아요"

국내 스마트워크의 활성화는 먼 미래의 얘기가 아니다. 지난해 11월 문을 연 도봉구 '스마트워크센터'는 총 24석 중 하루 평균 15명이 다녀갈 정도로 이용률이 높다. 행정안전부에서 구축한 '스마트워크센터'는 정부뿐 아니라 민간에도 개방되어 바야흐로 '스마트코리아' 시대를 열고 있다.

지난 4일, 도봉구청 6층. 이곳에 자리 잡은 스마트워크센터에는 연초부터 다양한 기관의 직원들이 나와 업무에 열중하고 있었다.

이날 센터를 처음 이용해 본 경기도청 재난관리과 최우진씨는 "영상회의실, 전화기, 복사기 등 기존 업무를 처리하는 데 필요한 모든 시설이 갖춰져 있는 것은 물론 독립적인 업무공간 등 근무여건이 참 좋다"며 "경기도에도 스마트워크센터가 생긴다면 업무의 효율성이 더 높아질 것 같다"고 말했다.

행정안전부 유비쿼터스기획과 정철 주무관은 "일주일에 1~2번은 이곳으로 출근하는데, 왕복 3시간 가까이 걸리던 통근거리가 자전거로 10분이면 도착하니 퇴근 후 7살·4살 딸들과 공원을 산책하는 등 삶의 여유가 생겼다"고 만족감을 표했다.

도봉스마트워크센터는 정부 각 부처·자치단체는 물론 공공기관·민간기업 직원도 이용 가능한 국내 최초의 사례다. 이전의 서울시 u-Work센터와 KT 스마트워킹센터는 소속직원만 이용 가능했다.

스마트워크센터는 사무실에 출근하지 않고도 업무처리가 가능하도록 네트워크와 정보통신 장비 등 원격협업서비스 기능을 갖춘 첨

단사무공간을 말한다. 기본 업무처리에 필요한 컴퓨터는 물론 전화기, 팩스, 복사기 등 다양한 사무용 기기까지 모두 갖추고 있다. 출퇴근시간의 단축 효과는 가져오면서 기존 재택근무의 문제점인 업무 집중도 저하 측면은 개선한 획기적인 방식이다.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는 스마트워크센터를 활용하면 생산성 저하를 막고 고령화, 저출산, 일자리 부족 등 국가 현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물론 국가 경쟁력도 향상시킬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행정안전부 유비쿼터스기획과 김석태 주무관은 "센터 근무자는 독립된 업무공간에서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으며 출퇴근시간과 교통비 부담을 줄이고 가족과 보낼 수 있는 시간을 늘리며 여가나 자기계발 시간도 늘려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민간에 첫 개방… 보안상 문제도 해결

현재 도봉스마트워크센터는 행정망이 연결된 정부기관용 20석과 민간인 개방용 4석 등 총 24석을 갖추고 있다. 공공과 민간은 사무공간을 별도로 두어 보안상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했다. 사무공간은 '손혈관인식' 출입통제시스템이 되어 있어 이용객 외에는 출입이 불가능하다. 사용자 인증번호를 누르고 손을 대면 자동으로 혈관을 인식해 문이 열린다.

근무환경은 쾌적하다. 널찍한 사무공간에는 칸막이가 된 독립형 좌석과 일반 사무실과 비슷한 개방형 좌석이 나뉘어 있다. 또한 클라우드 컴퓨팅(Cloud Computing) 등 첨단 IT 기술을 활용해 본인 사무실과 동일한 근무환경을 제공한다. '클라우드 컴퓨팅'은 인터넷 상의 서버를 통해 데이터 저장, 네트워크, 콘텐츠 사용 등 IT 관련 서비스를 한 번에 사용할 수 있는 컴퓨터 환경을 말한다.

당일 처리한 업무내용은 웹디스크에 올려 저장하며 보완상 USB는 사용할 수 없다. 저장한 자료는 원래 사무실에 가서도 자유롭게 꺼내 볼 수 있어 업무가 매끄럽게 이어진다. 이 밖에 헬스장, 구내식당, 옥상정원 등 부대시설도 풍부하다.

김민혜 센터관리자는 "화상으로 서로 대화할 수 있는 영상회의실이 있어 중요한 회의도 이곳에서 진행할 수 있다"며 "스마트워크센터는 최첨단 기술로 기존 업무를 아무 불편함 없이 모두 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지난해 12월 행정안전부의 조사 결과, 스마트워크 체험자의 80퍼센트가 만족한다고 답했다. 그중 '컴퓨터, 사무공간 등 업무환경이 본청보다 좋고 회의, 전화 등 업무방해요소가 줄어 업무몰입도가 매우 높았다'는 의견이 많았다.

한국정보화진흥원 조용탁 책임연구원은 "스마트워크센터는 IT환경에 익숙한 회사 분위기와 잘 어울린다"면서 "센터 근무 이후 업무 집중도가 늘어 업무처리량도 늘었다"고 전했다.

현재 정부에서 운영하는 스마트워크센터는 도봉, 분당, 부천 등 3곳이다. 센터를 이용하려면 스마트워크센터 홈페이지(www.smartwork.go.kr)에서 근무날짜와 좌석을 예약하면 된다. 이용시간은 평일 오전 8시30분부터 오후 6시30분까지이다. 3월까지는 시범운영 기간으로 방송통신위원회, 보건복지부 등 정부 8개 기관과 예금보험공사, 한국정보화진흥원 등 공공기관 2곳만 이용가능하다.

정부는 올해 수도권을 중심으로 스마트워크센터를 10개로 확대하고 2015년까지 전국 50개로 늘릴 계획이다. 이로써 2015년까지 전 공무원의 30%가 스마트워크를 할 수 있는 환경이 구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G

글 · 이제남 기자 / 사진 · 이경민 기자



도봉스마트워크센터는 원격회의가 가능한 영상회의실도 갖추고 있다.
사진은 김민혜 도봉센터관리자가 분당스마트워크센터 담당자와 화상통화를 하고 있다.



센터 근무자는 독립된 업무공간에서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다. 칸막이가 된 독립형 좌석은 업무의 집중도를 높여준다.



KT

KT의 스마트워크센터. KT는 주요 거점 지역에 구축된 스마트워크센터가 업무의 효율성을 크게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임대비용 줄이고 생산성은 높이고

기업과 근로자 모두 즐겁게 윈윈

스마트워크를 도입하는 기업이 늘고 있다. 업무의 효율이 증가하기 때문이다. 스마트폰을 비롯한 기술의 발전이 도화선이 됐다. 근로자들도 환영하고 있다. 근무여건이 개선되어서다. 비즈니스 모델로도 각광받고 있다. 스마트워크가 기업의 또 다른 성장동력이 되고 있다.

한국IBM의 출근 풍경은 이채롭다. 사무실에 바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로비나 각 층 입구에 설치된 '플렉스 무브(Flex Move)'부터 찾는다. 이 장치는 도서관에서 빈자리를 검색하는 것과 마찬가지 역할을 한다. 빈 책상을 찾아 알려주면 직원들은 그 자리로 가 업무를 본다. 전화가 불편할 것이라 생각하면 오산이다.

책상 위의 전화는 공용인데 자리가 정해지면 자동으로 해당 직원의 번호로 전환된다. 사무실을 떠난 후에는 모바일 네트워크에 바로 연결된다. 스마트폰을 통해 회사의 시스템에 항상 연결돼 있다. 모바일 단말기만 있으면 언제 어디서나 업무를 진행할 수 있다. 이름하여 모바일 오피스다.

한국IBM은 스마트워크의 한 유형인 '모바일 오피스'의 선두기업이다. 1995년 국내 최초로 이 시스템을 도입, 정착시켰다는 평가다. 최근 들어 각광을 받고 있지만 모바일 오피스는 사실 도입기만 해도 성공을 장담하기 어려웠다. 전통적인 업무방식이나 문화와 워낙 달라서 거부감이 없지 않았다.

하지만 막상 실시하고 나니 직원들이 먼저 환영했다. 업무 효율성이 크게 향상됐기 때문이다. 만족도는 70% 이상이다. 비용 절감 효과도 있었다. 줄어든 좌석만큼 사무실 임대비용이 줄었다. 20개 층에

서 11개 층으로 임대공간이 절반 가까이 감소했다. 이를 통해 연간 약 22억원이 절약되고 있다.

이휘성 한국IBM 사장은 직원들에게 보낸 이메일을 통해 "모바일 오피스를 통해 회사는 직원에게, 직원은 회사에, 그리고 회사와 직원은 고객에게 이익을 돌려준 엄청나게 남는 장사를 한 셈"이라며 "스마트워크가 실현되면 생산성 향상이나 비용절감뿐 아니라 탄소배출을 줄여 쾌적한 환경을 유지할 수 있고 일과 개인생활을 좀더 조화롭게 할 수 있는 많은 부가적인 혜택을 기대할 수 있다"고 전했다.

언제 어디서나 모바일 기기로 회사에 '로그온'

국내 최대의 화장품기업인 아모레퍼시픽도 모바일 기반의 스마트워크를 도입, 적잖은 효과를 거두고 있다. 아모레퍼시픽은 기업의 규모가 커지고 해외사업이 활기를 띠면서 심각한 고민에 빠졌다.

2007년 당시 해외출장이 연간 1천 건, 국내출장 1만 건, 각종 회의가 5천 건이 발생했다. 그리고 그 수는 더욱 늘어나는 기세였다. 인력과 커뮤니케이션의 공백이 불가피한 상황이었다.

아모레퍼시픽은 이 문제를 IT기술을 활용한 통합커뮤니케이션으로 해결하기로 결정했다. 유·무선 그룹웨어와 화상회의, 인터넷전화, 스마트폰 등 각종 커뮤니케이션 채널을 메신저를 중심으로 하나로 엮었다. 이를 통해 사람이 직접 돌아다니며 하던 일을 네트워크상에서 해결할 수 있었다.

출장을 가는 대신 화상회의를 열었고 해외출장 중인 상사에겐 실시간으로 업무가 보고됐다. 해외법인의 직원에게도 스마트폰을 지급해 커뮤니케이션의 공백을 최소화했다.

삼성SDS도 '모바일 데스크'라는 이름으로 스마트워크를 적극적으로 실행하고 있다. 스마트폰 등 모바일기기만 있으면 24시간 삼성SDS의 그룹웨어에 접속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메일과 결재, 일정관리, 임직원 조회를 할 수 있다.

직원들의 반응은 대단히 긍정적이다. 2009년 일부 원하는 직원들에게 스마트폰을 지급하며 시작한 '모바일 데스크'에 대한 만족도가 89%에 이른다. 업무의 효율성이 크게 개선됐다는 반응이었다. 지난해 말에는 대상 직원을 확대해 현재 약 6천여 명의 직원이 스마트워크를 사용하고 있다.

이은영 홍보실 과장은 "스마트워크를 사용하면서 업무를 훨씬 편리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됐다"며 "종전에는 휴일이어도 회사에 나와야 하는 상황이 있었지만 이젠 집에서도 업무를 볼 수 있어 그런 불편이 없어졌다"고 말했다.

용인에 거주하면서 광화문으로 출퇴근하는 B씨는 요즘 살맛이 난다. 출퇴근이 한결 간편해져 피로도 덜하고 시간도 넉넉해졌다. 회사가 분당에 마련한 스마트워크센터 덕이다. 스마트워크센터란 ICT(Information & Communication Technology) 환경이 구축된 원격 근무 공간이다. 화상회의, 그룹웨어 등에 접속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는 별도의 사무실이라고 이해하면 된다. B씨의 경우 굳이 광화문 회사에 가지 않더라도 분당의 스마트워크센터에서 자신의 업무를 불편없이 처리할 수 있다.

모바일 오피스 등 스마트워크센터 도입

스마트워크센터를 도입하는 기업들이 증가하고 있다. 활용도가 다양하기 때문이다. 집이 먼 직원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것은 그중 하나일 뿐이다. 이동이 많은 영업직이나 컨설팅 직종의 직원들에겐 업



ⓒ뉴시스

아모레퍼시픽은 화상회의 시스템을 도입해 출장으로 인한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고 의사결정의 속도를 높이고 있다.



한국IBM

한국IBM 직원의 60%는 모바일 근무를 한다. 내근이 필요할 경우 자리예약시스템을 통해 자신의 자리를 찾아 이용한다.

무의 거점이 된다. 스마트워크 시스템 구축을 사업화한 기업의 경우엔 일종의 '모델하우스'가 될 수도 있다.

스마트워크센터 구축에 가장 적극적인 기업은 KT다. 지난해 9월 분당사옥에 1호를 개설했고 올해 광화문, 관악 등에 추가 설치해 모두 9개소로 확대할 예정이다. 2012년엔 30개까지 늘린다는 계획이다. 화상회의실과 음성회의 장비, 분리된 사무공간인 '콰이어트룸'이 구축돼 있어 본사와 협업과 기밀업무를 무난하게 소화할 수 있다.

박승근 KT 홍보실 차장은 "스마트워크센터는 집이 멀거나 육아 등의 문제로 출퇴근에 애로가 있는 직원들을 위한 공간이기도 하지만 모바일로 하기 어려운 업무, 가령 기밀스럽거나 회의가 필요한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구축됐다"며 "KT는 스마트워크센터 외에도 케이트(KATE)라는 플랫폼을 활용한 모바일 오피스를 구축하는 등 다양한 방식의 스마트워크를 시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2014년 스마트워크 도입 기업 65만개로

삼성SDS도 서울 역삼동과 삼성동, 경기 분당과 수원 등 4곳에 '어댑티브 워킹 존(AWZ)'이라는 이름의 스마트워크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이 회사는 업무의 특성상 영업이나 컨설팅 인력이 많다. 대부분 '모바일 데스크'를 이용하고 있지만 모바일로는 해결이 안되는 문제가 발생하면 본사로 돌아와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스마트워크센터는 이에 대한 해결사로 도입됐고 직원들의 만족도도 상당히 높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스마트워크를 도입한 기업은 아직까지는 대부분 대기업이다. 하지만 머잖아 상당수 기업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기업의 자발적 수요에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더해질 예정이기 때문이다. 삼성경제연구소가 국내 CEO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 따르면 81.2퍼센트가 3년 안에 스마트워크가 업무의 중심이 될 것이라고 답했다. 또 30% 이상이 모바일 오피스 도입을 계획하고 있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014년까지 2400억원을 투입해 스마트워크 도입 기업을 65만 개로 늘린다는 방침이다. 스마트워크 구축을 사업화한 기업들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다. 사업의 특성상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와 네트워크 기업들이 특히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기업들 스마트워크 시장 '대격돌'

SK텔레콤은 초기 모바일 오피스 시장에 가장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기업이다. 지난해 8월 말 고객 기업 500개를 돌파했다. 이 가운데 상당수가 업계의 선두기업이라는 점에 고무된 분위기다.

회사 홍보실 측은 "리딩 컴퍼니가 SK텔레콤의 B2B 솔루션을 활용한 뒤 높은 생산성 향상 효과를 거두게 될 경우 시장 내 다른 기업들에 큰 파급력을 가져올 수 있다"며 "기업 고객 중 많은 기업이 이미 업무효율성이 향상돼 생산성 증대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강조했다.

SK텔레콤의 올해 주요 타깃은 중소기업이다. 저렴한 비용으로 높은 생산성 향상을 제공해 이 시장을 주도한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한국생산성본부와 협약을 맺고 중소기업에 대한 모바일 오피스 교육과 컨설팅, 캠페인 작업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KT도 중소기업 스마트워크 시장에 출사표를 던졌다. 본격적인 사업에 앞서 지반 다지기에 들어갔다. 포럼과 공모전 등을 통해 스마트워크에 대한 이해와 인식을 확산시켜 분위기를 조성하겠다는 것. 이를 통해 스마트워크 도입을 희망하는 100개 기업에 대해서는 무료 컨설팅을 제공하기로 했다. 박 차장은 "KT는 스마트워크 시장의 50%를 확보할 계획"이라며 "스마트워크는 KT의 차세대 수종사업"이라고 말했다.

LG유플러스는 맞춤형 전략을 추진한다. 개별 기업이 최상의 업무효율 향상을 달성할 수 있고 향후 유지보수와 확장에도 용이한 토털 솔루션을 제공해 고객 기반을 확장해간다는 전략이다. 특히 최근 마이크로소프트와 함께 중소기업 대상의 스마트워크 솔루션인 'U+ 스마트 SME'를 내놓아 주목받고 있다. 클라우드 기반의 플랫폼을 사용하기 때문에 중소기업 맞춤형 서비스를 저렴하게 제공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특징이다.

고현진 LG유플러스 BS사업본부장은 "U+스마트SME는 대기업의 전유물이었던 ICT환경을 중소기업도 저렴한 비용으로 쉽게 누릴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G

글 · 변형주 기자



VPN·GPKI… 암호가 아닙니다

스마트워크는 우리 사회의 저출산·육아문제, 낮은 노동 생산성, 저탄소 녹색성장 등 당면 현안 해결을 위한 대안으로 부각되고 있다. 스마트워크 유형으로는 스마트워크센터 근무, 재택근무, 모바일 근무 등이 있다. 아래에 스마트워크 시스템을 구축하는 과정에서 자주 등장하는 관련 전문 용어 몇 가지 소개한다. 소개된 용어는 반드시 스마트워크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IT 관련 산업 전반에 걸쳐 사용되기도 하며, 그 개념도 해당 기관(공공기관, 민간업체, IT 업계)에 따라 미세한 차이를 보이기도 한다.

스마트워크센터

도심에 있는 사무실에 출근하지 않고 원격지에서 업무가 가능한 정보통신기술(ICT) 기반의 사무실. 기존 사무실과 동일한 사무환경을 제공하여 업무의 질을 유지하면서, 정보보안 및 직원의 업무관리도 쉽다. 공간의 제약에서 벗어나 근무가 가능함에 따라 근로자의 이동시간, 교통비용이 줄어들고 업무 프로세스 효율은 증가한다.

VPN
사설 원격근무 서비스

재택 근무자, 출장이 잦은 직원, 현장 근무자들을 인터넷을 통하여 회사 내부 정보시스템과 연결시켜 주는 사설 원격근무 서비스. 이에 반해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등 공무원들의 재택·파견 등 원격근무 시 전자결재 및 행정포털 등의 업무처리를 지원하는 시스템은 GVPN(정부 온라인 원격근무) 서비스라고 부른다.

GPKI
행정전자서명 인증서

행정전자서명이 진짜라는 것을 확인·증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행정기관, 은행 또는 사용자에게 발급하는 전자적 정보. 전자거래 시 인증서를 사용하면 신원이나 문서의 위·변조를 막을 수 있다. 인증서에는 인증서 버전, 인증서 일련번호, 인증서의 유효기간, 발급기관명 및 전자서명 알고리즘 정보, 가입자 이름 및 신원확인정보 등이 포함되어 있다.

클라우드컴퓨팅

소프트웨어 등 IT 자원을 구매·설치·운영할 필요 없이, 인터넷상의 서버를 통해 데이터 저장, 네트워크, 콘텐츠 사용 등 IT 관련 서비스를 한 번에 사용할 수 있는 컴퓨터 환경을 말한다. 예를 들어 기존에는 응용 프로그램을 구매하여 각 PC에 설치·운영·관리하였으나, 클라우드 컴퓨팅 시스템에서는 인터넷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 가능하다.

SBC
서버기반컴퓨팅

애플리케이션이나 IT 정보 자원의 배포, 관리, 지원, 실행 등 모든 운영이 100% 서버에서 이루어지는 신개념 컴퓨팅 환경. 모든 정보를 서버에 올려두기 때문에 본청과 스마트워크센터 간 개인별 자료 공유를 통한 업무의 연속성 확보가 가능하다. 인증 과정이 있어서 정보 유출을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다.

스마트 사회
Smart Society

농업사회 → 산업사회 → 정보사회 다음에 도래할 새로운 패러다임의 사회를 일컫는 IT 업계의 용어. IT 기술을 바탕으로 국민의 일하는 방식, 생활양식, 사회문화 전반이 변하게 된다. 사람이 일하러 특정 공간에 가는 것이 아니라, 일과 사람이 같이 움직이는 사회다. G

글·이상흔 기자

네덜란드 가장 활발… 기업체 절반서 운영

'스마트워크'는 국내에서 아직 낯선 개념이지만 해외에서는 이미 활발하다. 미국은 정부가 주도해 스마트워크를 적극 확대하고 있으며 네덜란드, 일본 등은 정부 차원을 넘어 민간 기업이 스마트워크를 활용해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새로운 수익모델을 창출하고 있다.



한국정보화진흥원

네덜란드의 영리법인 'Spaces'는 공공시설, 호텔 등으로 활용되던 1600년대식 고건물을 리모델링해 모든 층을 스마트워크센터로 운영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1인당 평균 노동시간은 OECD 국가 평균 노동시간의 1.3배다. 반면 업무생산성은 절반밖에 되지 않는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스마트워크가 업무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으로 떠오르고 있다.

미국, EU, 일본 등 선진국의 경우 일찍부터 스마트워크를 도입해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있다. 정병주 한국정보화진흥원 책임연구원은 "2년 전부터 해외 선진국의 스마트워크 현장을 직접 둘러보며 국내 스마트워크 도입을 준비해 왔다"며 "미국의 경우 지난해 12월 '연방공무원 텔레워크 촉진법'을 제정하고 텔레워크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해외에서는 '텔레워크(원격근무)'라는 말로 스마트워크가 이미 활성화돼 있다. 스마트워크가 가장 활발한 나라는 네덜란드다. 네덜란드는 전체 사업체 중 49퍼센트가 원격근무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고용 규모가 큰 기업일수록 원격 근무자 비율이 높고 500인 이상의 경우에는 91퍼센트가 원격근무를 할 만큼 스마트워크는 이미 보편적 형태로 자리 잡고 있다.

해외에선 '텔레워크'로 이미 스마트워크 대중화

집과 회사의 장점을 복합한 제3의 공간인 '스마트워크센터' 근무도 활발하다. 현재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주변에는 99개의 스마트워크센터(SWC)가 운영되고 있다.

이곳 스마트워크센터는 원격근무, 영상회의, 금융, 복지시설 등이 완비되어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공공기관과 민간 기업이 공동으로 활용하는 경우도 많다.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민관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Double U 재단도 설립됐다.

Double U 재단은 스마트워크센터를 직접 만들기보다는 일정 기준에 부합하는 비즈니스 사업장을 스마트워크센터로 인증하고 있다. 인터넷·스마트폰을 통해 전국 스마트워크센터의 검색과 예



한국정보화진흥원

일본의 민간 기업 'DESK@'에서 운영하는 텔레워크센터는 사무공간과 함께 회의실도 시간제 요금을 책정해 임대하고 있다.



한국정보화진흥원

미국의 텔레워크센터는 사무공간뿐 아니라 퇴근 후 지역주민의 커뮤니티 모임 공간으로 활용해 부가가치를 창출한다.

약이 가능하여 이용이 편리하다. 스마트워크센터는 비영리센터인 BrightCity를 제외하고 영리법인 형태로 사무공간, 커뮤니티, 회의실, 식음료 서비스를 제공한다.

미국의 경우, 정부가 적극 나서서 스마트워크를 확대하고 있다. 미국은 다른 나라에 비해 재택근무가 활성화된 편이지만 업무생산성, 인사관리 측면에서 스마트워크센터가 새롭게 각광받고 있다.

오바마 정부는 지난해 12월 '연방공무원 텔레워크 촉진법'을 제정하고 2011년까지 연방공무원 15만명의 텔레워크를 추진할 계획이다. 장시간 걸리는 연방공무원들의 출퇴근시간을 줄여줄 대안적 장소로 스마트워크센터를 구축하고 있으며 현재 워싱턴DC 인근에 14개의 텔레워크센터를 운영 중이다.

미국의 텔레워크센터는 다양한 부가가치도 창출하고 있다. 단순한 사무공간이 아니라 퇴근시간 이후에는 지역주민의 커뮤니티 모임 공간으로 활용된다.

일본은 민간형 스마트워크센터가 발달했다. 1984년 기치조지 위성오피스 실험을 시작으로 현재 10여 개의 텔레워크센터가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운영되고 있으나 민간형 텔레워크센터 운영이 훨씬 활발하다.

도쿄, 오사카 등 일본 대도시 중심으로 텔레워크센터가 성업 중이다. 직원들은 집과 가까운 곳에서 근무할 수 있고 회사는 높은 건물임대비, 주차비 등 경비를 절감할 수 있어 인기가 높다. 스마트워크센터의 민간 임대를 운영하는 회사 'DESK@'는 임대의 약 50%를 100여 개 회원사와 계약형태로 운영하며 수익을 올리고 있다.

이와 함께 베드타운과 도심의 통근선상에 위치하는 '직주(職住) 접근형 텔레워크센터', 도심지역 터미널 주변에 위치하는 '고객접근형 텔레워크센터' 등 새로운 형태의 텔레워크센터도 등장하고 있다.

이처럼 세계적으로 '스마트워크' 방식은 점차 일상이 되고 있다. 정병주 책임연구원은 "재택근무가 활성화된 미국, 유럽 등 선진국에서도 업무효율성 측면에서 원격근무센터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며 "성과주의 체계가 잘돼 있는 서양의 경우는 물론 조직문화가 유연하지 못한 일본의 경우도 스마트워크센터가 확대되고 있다"고 전했다.

일본, 스마트워크센터로 노사 화합

스마트워크가 정착된 해외 기업들에서는 이미 가시적인 성과도 나타나고 있다. 영국 브리티시텔레콤(BT)은 스마트워크 도입 전보다 생산성이 24퍼센트 상승했고, 네덜란드의 경우 생산성이 사회 전체적으로 20퍼센트 향상됐다고 한다.

영국 브리티시텔레콤은 직원의 88퍼센트가 스마트워크를 하고 있다. 이곳 직원들은 재택근무를 하거나 스마트워크센터에서 업무를 본다. 사무실에는 고정된 책상이 직원의 70퍼센트 정도뿐이라 직원들은 사무실에 와서 필요한 사무를 보고 언제든지 밖으로 나가는 형태다.

스마트워크로 저출산·고령사회도 대비할 수 있다. 영국 BT는 출산·육아 후 직장복귀율이 44~46퍼센트 정도였다가 스마트워크를 시행한 후 복귀율이 99퍼센트가 됐다고 한다.

정병주 책임연구원은 "선진국에 비해 스마트워크의 도입은 늦은 편이지만 발달된 IT기술을 바탕으로 우리 정부는 스마트워크센터 구축에 중점을 두고 있다"며 "올해 스마트워크센터 10개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해외사례를 참고해 가이드라인, 교육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여 스마트워크센터의 운영도 활성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G

글 · 이제남 기자

‘스마트 모바일 오피스’부터 늘려라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의 정보통신기술(ICT)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대면 중심의 조직문화와 관련 제도 미비로 선진국에 비해 스마트워크 도입 실적이 저조했다. 이에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는 행정안전부 · 방송통신위원회와 공동으로 ‘스마트워크 활성화 전략’을 수립하고 기업의 스마트 모바일 오피스(SMO) 확산과 중소기업의 SMO 지원, 스마트워크센터 확대 등 스마트워크 전략들을 속속 구체화하고 있다.



조선DB

여성부는 여성과 육아를 지원하는 스마트워크 환경 구축을 추진한다. 사진은 이명박 대통령이 경기도 용인시의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 여성들과 대화하는 모습.

스마트워크(Smart Work)를 확산시키기 위해 ‘스마트 모바일 오피스’(SMO · Smart Mobile Office)부터 늘려라.

방송통신위원회는 스마트폰, 스마트패드 등 무선 인프라의 확산으로 모바일 업무 기반이 조성됨에 따라 스마트 모바일 오피스를 조기 도입하고, 중소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스마트 모바일 오피스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이는 방송통신위원회가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 행정안전부와 공동으로 수립해 지난해 7월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한 ‘스마트워크 활성화 전략’에서 제시된 ‘7대 핵심과제’와 연계돼 있다.

스마트워크 활성화 전략이란 ‘2015년까지 전체 근로자의 30퍼센트가 스마트워크할 수 있는 스마트워크센터 5백 개(공공 스마트워크센터 50개 포함) 구축’을 목표로 한다. 그리고 ‘7대 핵심과제’란 국내 정보통신기술(ICT) 경쟁력과 민간의 경쟁력을 토대로 ‘한국형 스마트워크 모델’을 전 산업 분야로 확산시키기 위한 방안들이다.

방송통신위원회가 SMO 도입에 역점을 두는 이유는 통신(영국 BT) · 유틸리티(미국 시스코), 소매금융(GE Money) 등 주요 글로벌 기업들이 이미 SMO를 도입해 국내 기업들보다 앞서 나가고 있기 때문이다.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우리나라 중소기업들은 가장 시급한 신(新)정보화 분야로 SMO를 꼽고 있다. 중소기업은 예산 부족, 인프라 미비 등으로 SMO의 도입이 어려워 중소기업의 SMO 도입률(8.1퍼센트)은 대기업의 절반 수준에 그치고 있다.

SMO 중소기업 확산 지원과 모바일생산성지수 도입

이에 따라 중소기업에 절실한 ‘SMO 도입 선도 중소기업’ 육성 · 지원 정책이 도입된다. 이동통신사, 솔루션업체, 중소기업 등 ‘SMO 가치사슬(부가가치 형성과정)’ 참여주체의 협력을 받아 중소기업이 SMO를 도입하면 정부가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SMO 도입을 확산

시킨다는 계획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또 SMO 도입 기업의 생산성 향상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한국생산성본부와 함께 '모바일 생산성 지수(MPI)'를 개발한다. 이를 활용해 성공·실패사례를 분석, SMO 준비 기업에 컨설팅을 제공하고 이미 도입한 기업에는 개선점을 제시해 준다.

이 밖에 SMO을 지원하기 위한 기술개발도 추진된다. 먼저 SMO 기술 수준을 지속적으로 높여나가기 위해 편의성과 보안이 강화된 'SMO 2.0' 기술이 개발된다. 언제 어디서나 자기업무환경이 구현 가능하도록 '모바일 가상 LAN(근거리통신망) 기술'을 개발하고,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이용환경 구축을 위해 모바일 보안 기술도 개선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를 통해 향후 4년간 국내에서 SMO 도입 기업이 65만 개 이상으로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올해부터 스마트워크센터 확대에 적극 나선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스마트워크센터를 확대하고 장기적으로 스마트워크촉진법을 제정한다.

지난해 11월 이후 서울과 수도권에 스마트워크센터 3곳을 개설한 행정안전부는 ▲2011년 실수요가 많은 수도권 중심으로 10개 센터를 구축하고 ▲2012~13년 수도권 25개, 지방 주요거점에 5개 센터를 구축하며 ▲2014~15년 전국적으로 총 50개 센터를 구축할(이상 누적 계산) 계획이다. 특히 정부 부처의 세종시 이전과 병행하여 중앙청사·여의도에 대규모 스마트워크센터가 개설된다.

전국 곳곳에 스마트워크센터

이와 함께 스마트워크 활성화를 위해 법제도 기반도 마련된다. 행정안전부는 현행 전자정부법의 적용 범위가 공공부문에 한정돼 있어 국가 전체적으로 스마트워크를 추진하는 근거로는 다소 미흡하다는 판단 아래 장기적으로 '스마트워크촉진법' 제정에 나선다. 이와 관련해 '전자정부법' 개정과 '지방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표준조례(안)' 제정 등도 추진한다.

또 공무원 누구나 유연근무가 가능하도록 복무규정을 바꾸고, 기관별 스마트워크담당관도 지정하게 된다.

한편 여성가족부 차원에서도 '여성과 육아를 위한 스마트워크'가 추진된다. 여성가족부는 올해 '가족 모두가 행복한 사회, 함께하는 평등사회'란 정책 목표 아래 공공·민간 부문에서 여성의 유연근무제 확산에 주력하는 동시에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행정안전부와 협조해 '여성·육아친화적 직장환경 조성'에 적합한 방향으로 스마트워크를 추진한다. G

글·박경아 기자

강유민 행정안전부 조직진단과장

"효과 낮은 재택근무의 대안 기대"

"스마트워크는 모든 사람이 가능합니다. 정부조직의 스마트워크도 보안과 대민(對民) 업무를 제외하면 모든 사람이 가능하다는 점을 전제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스마트워크 확산에 앞장서고 있는 행정안전부의 강유민 조직진단과장은 정부조직 내에서 스마트워크를 확산시키기 위해 곧 '스마트워크 적합 직위 발굴을 위한 직무분석(가제)'이란 연구용역을 발주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김승원 기자

스마트워크도 좀 더 편한 자리, 어려운 자리가 있는 것 아닐까요.

스마트워크는 연구와 조사, 검토 등 분야에서 효율성이 높을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직급이 위로 올라갈수록, 일반 행정업무일수록 스마트워크에 적합합니다. 정부조직에서의 스마트워크란 스마트인프라뿐 아니라 유연근무를 포함한 조직과 청사 관리 등 같이 여러 업무가 복합되며, 거의 모든 부처와 관련 있습니다.

민간의 스마트워크와 유사한 가이드라인이 적용될까요.

직무분석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나오는 가이드라인은 민간의 것과는 조금 다를 듯합니다. 민간의 경우 모든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할 수 있고, 재택근무도 자유롭겠지만 공직자들의 경우 보안 문제로 인해 스마트워크센터가 중심이 될 것입니다.

스마트워크센터가 강조되는 이유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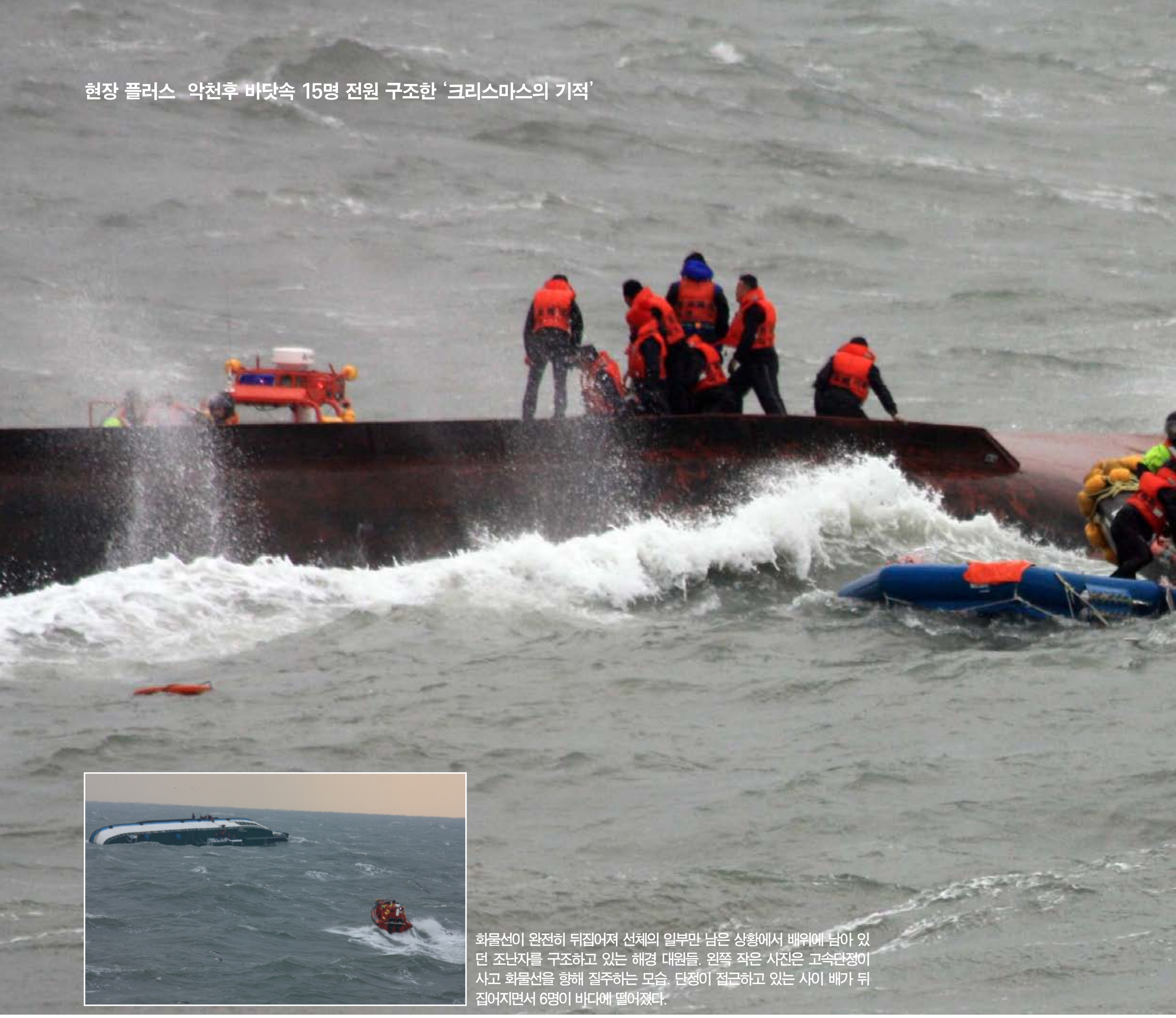
우리의 가족주의 문화로 인해 재택근무 효과가 선진국에 비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또 모바일오피스 도입 초기여서 재택근무를 위한 기술 여건이 덜 조성돼 있고, 스마트워크센터는 집과 사무실의 중간지대로서 '새로운 선택'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선진국의 공공 부문의 스마트워크는 어떤 방식으로 이뤄지는지요.

우리와 같이 스마트워크에 적합한 직위를 발굴하기 위한 직무분석은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신 스마트워크를 장려하는 법을 제정하거나 스마트워크를 권리로 부여하고, 또는 공공기관의 의무 사항으로 스마트워크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스마트워크 연착륙을 위해 어떤 점들이 보완돼야 할까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스마트워크 확산에 장애가 되는 것은 기술적인 문제보단 면대면의 만남을 중시하는 문화입니다. 따라서 스마트워크 확산을 위해서는 인간의 심리적 측면과 문화적 특성을 반영한 기술적 진보, 제도적 지원이 이뤄져야 합니다. 또 성과지향적인 조직 문화와 조직관리 기술의 고도화도 뒷받침돼야 합니다.



화물선이 완전히 뒤집어져 선체의 일부만 남은 상황에서 배위에 남아 있던 조난자를 구조하고 있는 해경 대원들. 왼쪽 작은 사진은 고속단정이 사고 화물선을 향해 질주하는 모습. 단정이 접근하고 있는 사이 배가 뒤집어지면서 6명이 바다에 떨어졌다.

목포해경 3009함 김문홍 함장

"해양경찰 25년 생애 최고의 날"

목포해경 3009함은 악천후 속에서 침몰 화물선의 탑승 인원 15명 전원을 무사히 구조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3009함 함장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연말 어려운 여건에서, 국민이 힘들어하는 과정에서 3009함이 국민에게 희망을 줘서 대통령으로서 뿌듯하게 생각하고, 해양경찰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격려했다.

"해양경찰 생활 25년 동안 이처럼 감격스러운 날은 처음이었습니다. 온 국민의 칭찬을 받은 것도 과분한데, 연초에는 대통령께서 직접 전화를 걸어 '뿌듯하고 자랑스럽다'고 격려해 주셨습니다. 공직자로서 당연히 할 일을 했을 뿐인데 너무 많은 관심과 사랑을 받은 것 같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더욱 열심히 일해야겠다는 생각뿐입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해경 3009함 김문홍 함장(52 · 경정)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흥분이 남아 있었다. 김 함장은 작년 12월 26일 파



해양경찰청

조난 선박은 60도 정도 기울어져 있었다. 바람은 초속 20미터로 불고, 파도는 5미터 높이로 넘실거렸다. 풍랑주의보가 내려진 바다의 거친 파도를 뚫고 고속단정 2대에 나눠 탄 8명의 해경구조대원은 이미 물에 빠진 6명을 포함해 조난자 15명 전원을 구조하였다. '크리스마스의 기적'이었다.

도에 휩쓸려 침몰하는 배(항로페리 2호)에서 조난자 15명 전원을 구한 주인공이다. 김황식 국무총리는 3009함의 구조활동 다음 날 김문홍 함장과 대원들에게 전화를 걸어 "크리스마스의 기적을 보여주었다"는 말로 치하했다. '크리스마스의 기적'은 원래 1950년 12월 24일 흥남철수 과정에서 미국의 화물선 메러디스 빅토리아호(선장 레너드 라루)가 1만4천명의 피란민을 무사히 거제도까지 피란시킨 사건을 두고 당시 서방 언론이 표현했던 말이다. 김황식 총리가 이번 목포해양경찰서(서장 최재평) 3009함의 조난자 구조활동을 '기적'이라고 표현한 것은 단순한 과장이 결코 아니다.



해양경찰청

해경 3009함 김문홍 함장(경정).

경비 근무중 울려온 "메이데이, 메이데이" 구조 요청

해경 3009함이 사고현장에 도착했을 때 이미 조난선박은 60도 정도 기울어진 상태였다. 바람은 초속 20미터로 불고, 파도는 5미터 높이로 넘실거렸다. 구조 현장을 지휘한 김문홍 함장은 "뱃사람들은 흔히 그런 규모의 파도를 '집채만 한 파도'라고 표현한다"고 말했다. 3009함이 사고 현장에 도착해서 고속 단정(短艇)을 출동시키는 사이 조난당한 배가 거꾸로 뒤집혀 6명이 차가운 바닷물로 떨어졌다.

김 함장은 "통계학상으로는 한겨울 차가운 바닷물에서 사람이 10분 정도 버틸 수 있다고 하지만, 한파(寒波)와 파도가 심한 상태에서는 2~3분도 위험하다"고 말했다. 3009함이 단 몇 분만 늦게 도착했어도 조난자들이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급박한 상황이 벌어졌던 것이다.

조난자뿐 아니라 단정으로 구조현장에 투입되는 해경 요원들의 안전도 장담할 수 없었다. 파도가 높고 바람이 거센 상황에서 자칫 단정이 철제로 된 화물선에 부딪히기라도 하면 그대로 부서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김 함장은 구조현장에 투입되는 대원들을 함장실로 부른 후 다음과 같이 말했다고 한다.

"여러분은 목숨을 걸고 구조현장에 투입되어야 하는 상황이다. 하지만 저기 위험에 처한 사람들의 생명을 구하지 못하면 국민의 공복(公僕)으로서 사명을 다하지 못하는 것이다. 우리는 할 수 있다. 그

동안 잘해 오지 않았느냐. 최선을 다하자!"

김문홍 함장이 목포선적 495톤 화물선인 항로페리 2호로부터 조난신호를 받은 것은 12월 26일 오전 9시15분경이다. 김 함장이 지휘하는 해경 3009함은 신안군 가거도 인근 해상에서 중국 어선의 불법조업을 감시하고 있었다. 서해에는 풍랑 주의보가 내려진 상태였다. 김 함장의 설명이다.

"물에 빠진 여섯 명을 먼저 구하라"

"경비 근무 중에 갑자기 통신기에서 '메이데이(Mayday), 메이데이' 하는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국제 조난신호 공용어인 '메이데이'라는 말은 우리 어선들이 잘 쓰지 않는 용어라서 처음에는 멀리 외국 선박에서 보내는 무전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통신을 해보니 우리 화물선에서 보내는 무선이었습니다. 화물선의 선장은 '지금 배가 침몰 직전'이라며 '빨리 좀 도와달라'고 다급하게 외쳤습니다."

김 함장은 즉시 위치를 확인해 보았다. 조난 화물선은 3009함으로부터 17마일(27킬로미터) 떨어진 전남 신안군 흑산면 만재도 남방 15킬로미터 지점에 있었다.

김 함장은 "배가 조난당한 곳은 삼각파도가 치는 곳으로 너무 위험해 우리 어선이 조업을 피하는 곳이지만 국제선의 항로"라며 "그 곳을 지나다가 사고를 당하는 외국선적의 배가 많다"고 말했다. 위치를 확인한 후 함정의 엔진 4개를 전부 가동시킨 채 전속력으로 사고지점을 향해 달렸다.

"선박은 파도를 앞뒤에서 맞으면 파도의 힘이 분산되어 비교적 안전하지만, 옆에서 치는 파도에는 대단히 취약합니다. 조난현장으로 가는데 큰 파도가 함정의 옆을 계속 때렸습니다.

함정이 좌우로 정신없이 기우뚱거렸기 때문에 무척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당장 사고 배가 가라앉고 있는데 우리의 안전을 위해 파도의 방향을 봐가면서 몇 시간씩 빙 돌아서 갈 수는 없는 노릇 아닙니까? 배가 부서져라 달려갔습니다."

3009함이 사고 현장으로 이동하는 사이 조난당한 배에서는 "배가 더 기울었다"는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김 함장은 조난 선박에 탄 사람들을 안심시키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했다고 한다. 김 함장은 조난 화물선 선장에게 "지금 우리가 전속력으로 가는 중"이라며 "모두 구명조끼를 입고, 절대로 동요하지 말고 침착하게 기다려라. 어떠한 경우에도 바다에 뛰어들면 안 된다"고 말했다.

구조 요청을 받은 지 40분 후 3009함이 현장에 도착했다. 김 함장은 "현장에 도착해서 보니 배가 생각보다 커서 고속단정으로 현장에 접근하는 것이 상당히 위험해 보였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즉시 3009함이 보유한 고속단정 두 대를 구조현장에 투입했다. 한팀에 4명씩 총 8명의 해경 구조요원이 두 개의 단정에 나누어 탑승했다.

순간 배가 기울더니 6명이 바닷물로 떨어지는 것이 김 함장의 눈에 들어왔다. 이날 조난 화물선에는 교사 5명과 학생 1명을 비롯하여 모두 15명이 타고 있었다.

위기일발의 순간이었다. 김 함장은 즉시 무전을 통해 "물에 빠진



해양경찰청

1년 365일 우리의 바다를 지키는 목포해경 3009함의 늠름한 모습. 3009함은 2010년 12월 26일 높은 파도 속에 침몰 중인 화물선에서 15명의 조난자 전원을 구조하는데 성공했다.


해양경찰청

조난자 구조 후 선상에서 "화이팅"을 외치고 있는 3009함 승조원들. 뒤쪽에 구조에 투입된 고속단정의 모습도 보인다. 앞줄 왼쪽부터 시계 반대방향으로 고천주 순경, 박대연 순경, 임정주 경사, 박철 순경, 방현성 경장, 김민석 수경, 윤석한 순경, 이승재 순경, 김영석 경사, 임동근 순경, 김문홍 경정(함장), 김용기 순경, 황세준 순경, 문병국 경장, 김양선 순경, 이명수 경위.

사람부터 구하라"고 지시했다. 다행히 뒤집힌 화물선은 공기 부력(浮力)으로 곧바로 가라앉지 않고 떠 있었다. 물에 빠지지 않은 9명은 뒤집힌 배 밑바닥 위에 올라가서 구조를 기다렸다. 김 함장의 설명이다.

"단정이 큰 파도의 힘을 이기지 못하고 엔진이 두 번이나 꺼졌습니다. 우리 대원들은 평소 위기 상황에서 침착하게 대응하는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다시 단정의 시동을 걸어 구조 활동에 전념했습니다. 물에 빠진 사람부터 먼저 건져 올렸는데 이들은 이미 저체온증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구조 성공은 평소 훈련의 결과"

3009함이 조난현장에 도착해서 조난자들을 모두 구해내는 데 10여 분이 걸렸다. 김 함장은 차가운 물에 빠져 저체온증에 걸린 구조자들을 함정에 있는 사우나실로 옮겨 체온을 서서히 회복하도록 응급조치를 취했다.

무사히 구조활동을 마친 3009함은 구조자들을 육지로 이송하고 나서 곧바로 경비 업무를 위해 바다로 나갔다. 3009함이 임무를 마치고 목포해경 부두로 복귀한 것은 12월 30일. 모강인 해양경찰청장이 직접 부두에 나와서 김문홍 함장과 3009함 승조원들을 격려했다. 모 청장은 "정말 고생 많았다. 이번 일은 우리 해양경찰 역사에 길이 기록될 쾌거"라고 말했다.

모 청장은 해경 부두에서 구조활동을 벌인 단정장 이명수 경사와 윤청금 경장, 문병국 순경 등에게 각각 1계급 특진 계급장을 달아주었다. 33명의 3009함 승조원 전원이 표창을 받았다.

이날 조난 화물선에 탔다가 구조된 가거도중학교 박소라(28)씨 등 교사 4명과 중학생 1명이 귀환한 3009함 승조원들에게 감사의 꽃다발을 전달했다. 김문홍 함장은 "임무를 마치고 귀환한 함정의 승조원을 청장이 직접 마중 나와서 격려하고 해경 부두에서 특진 임용식을 한 것은 내 기억에 처음"이라며 "해경이 된 것이 무척 자랑스러웠다"고 말했다.

김 함장은 "3009함이 악조건에서 15명의 고귀한 생명을 구할 수 있었던 것은 평소 훈련으로 다져진 대원들의 팀워크 덕분"이라고 강조했다.

"갈수록 흉포해지는 중국 어선을 단속하기 위해서는 밤낮없이 훈련을 해야 합니다. 평소 승조원들이 훈련이 잘되어 있기 때문에 서로 눈빛만 봐도 마음을 알 수 있을 정도입니다. 당연히 할 일을 한 것이지만 저는 이번의 조난 화물선 구조 성공이 평소 저를 믿고 힘든 훈련을 따라준 우리 승조원들의 노력이 만든 결과라고 봅니다."

김문홍 함장은 2006년 해경 305함 함장으로 재직 시 1년 동안 중국 불법조업 어선 110척을 나포한 해경의 베테랑 현장 경력자다. 2010년 3월 현장에 투입된 3009함 함장을 맡으면서 김 함장은 2010년 중국 불법조업 어선 단속 실적 1위를 기록했다. 김 함장이 속한 목포해경은 해양경찰청이 주관한 '2010 하반기 해상종합훈련 평가'에서 종합 1위를 차지했다. G

글 · 이상흔 기자

2018년 동계올림픽 7월 IOC 총회서 결판

"평창은 승리하리라"

강원도 평창은 삼수 끝에 2018년 동계올림픽을 유치할 수 있을까? 그 결과는 올 7월 남아프리카공화국 더반에서 결정된다. 두 번의 준비 과정에서 축적한 스포츠 외교 역량, 최신 경기장·교통망 등 인프라, 정부의 강력한 지원, 국민의 뜨거운 열기 등이 동계올림픽 유치 자신감의 배경이다.



'삼세 번'을 벼르는 평창의 꿈이 무르익어 간다. 아쉬운 역전패로 끝난 첫 도전이나 재수(再修) 때의 분위기와는 사뭇 다르다. 동계올림픽 유치위원회는 물론, 정부도 발벗고 나서고 있다. 정부는 평창이 2018년 동계올림픽을 유치할 경우 '올림픽 특구'로 지정해 이 지역이 아시아 지역 동계스포츠 허브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대회 개최 예정지인 평창 알펜시아에 투자하는 중국인 등 외국인에 대해 영주권을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외신들도 평창의 열정과 경쟁력에 긍정적인 보도를 내놓고 있다. 2018년 동계올림픽 개최지는 올해 7월 6일 열릴 제122차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총회(남아프리카 더반)에서 결정된다.

평창의 '역전패' 역사

2010 동계올림픽 개최지 결정 투표(2003년 7월 2일 체코 프라하)

후보도시	1차 투표	2차 투표
벤쿠버	40표	56표
평창	51표	53표
잘츠부르크	16표(탈락)	-

2014 동계올림픽 개최지 결정 투표(2007년 7월 4일 과테말라 과테말라시티)

후보도시	1차 투표	2차 투표
소치	34표	51표
평창	36표	47표
잘츠부르크	25표(탈락)	-

스포츠 역량·정부 지원·국민 열기 3박자 응원

평창이 삼수(三修)를 결심하기까지의 과정은 한 편의 '불운 드라마'였다. 2003년 체코 프라하 IOC 총회에서 열렸던 2010 동계올림픽 개최지 결정투표를 돌아보자.

캐나다 밴쿠버, 오스트리아 잘츠부르크와 경쟁했던 평창은 1차 투표에서 가장 많은 51표를 얻었다. 하지만 잘츠부르크가 탈락하면서 지지표가 밴쿠버로 쏠렸다. 결국 평창은 2차 투표에서 53대56, 3표 차이로 졌다.

평창은 2014년 동계올림픽 유치에 다시 뛰어들었다가 러시아의 소치에 저 쓴맛을 봐야 했다. 2007년 1백19차 IOC 총회(과테말라시티)의 투표 결과도 4년 전과 흡사했다. 1차 투표 1위였던 평창은 2차 투표에서 4표 차로 눈물을 삼켰다. 포기는 없었다. 평창은 다시 동계올림픽을 유치하겠다고 나섰다. 두 번의 준비 과정에서 축적한 스



평창유치위원회

강원도 평창 알펜시아 리조트내에 설치된 스키점프장.

포츠 외교 역량, 최신 경기장과 교통망 등 인프라, 정부의 강력한 지원, 국민의 뜨거운 열기 등이 자신감의 배경이었다.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이 유치위 위원장을 맡았다.

2008년 9월 유치위원회를 발족한 이후 기술위원회, 환경위원회, 선수위원회를 꾸렸다. 국가 차원의 유치지원체제를 갖춘 정부지원위원회와 실무위원회, 국회 국제경기대회 유치지원특별위원회도 구성했다. 자치단체 차원에서는 강원도 행정지원본부, 도의회 특위, 범도민후원회, 시·군별 추진위원회 및 리조트 전담기구 등이 구성됐다.

피겨 스케이팅의 김연아와 스피드 스케이팅의 모태범, 이상화, 이승훈 등 밴쿠버올림픽 금메달리스트를 비롯한 국가대표 출신 선수 24명은 선수위원회 소속이다.

이들은 기술, 시설 자문을 맡으면서 IOC 현지 실사 때 평가단과 외신 기자들을 상대로 인터뷰에 나설 예정이다. 김진선(64) 청와대 지방행정특보(전 강원도지사)는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한 대통령 특임대사로 선임됐다.

김 특임대사는 2010, 2014 동계올림픽 유치위원회 집행위원장을 지내며 국제 체육계 인사들과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해 놓았다. 더반 총회까지 남은 일정 중에선 IOC의 실사가 중요하다. IOC 평가위원회는 2월 14일부터 20일까지 평창을 찾는다.

구닐라 린드베리(스웨덴) 평가위 위원장을 포함한 11명이 현장을 둘러보고 평창의 유치 계획을 점검한다.

평창의 장점으로는 선수촌에서 경기장까지 10분 이내 도착할 수 있는 편의성, 최첨단 경기장 및 교통 인프라, 동계 스포츠 불모지 국가의 꿈나무 육성을 위한 드림 프로그램 실천 등을 꼽을 수 있다.

평창의 경쟁도시는 독일 뮌헨과 프랑스 안시이다. 안시는 2월 8일부터 13일까지, 뮌헨은 2월 27일부터 3월 5일까지 IOC 평가단 실사를 받는다.

내달 14일 IOC 실사단 방문

IOC 평가위원회는 5월 스위스 로잔에서 열리는 설명회에서 현지 실사 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다. 뮌헨은 토마스 바흐 독일올림픽위원회(DOS) 위원장 겸 IOC 부위원장이 동계올림픽 유치위원장을, 피겨 스케이팅 올림픽 챔피언 출신인 카타리나 비트가 유치위 이사회 의장을 맡아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바흐 IOC 부위원장은 자크 로게 IOC 위원장에 이어 차기 IOC 위원장으로 유력하게 꼽히는 인물이다.

프랑스 안시는 경쟁에서 한발 뒤처지는 느낌이다. 1992 알베르빌 동계올림픽 프리스타일 스키 금메달리스트 출신인 에드가 그로스피롱 위원장이 얼마 전 전격 사퇴하면서 주춤거리고 있다.

그로스피롱 위원장은 안시의 유치 가능성에 대해 회의적인 목소리가 높아지자 부담감을 이기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외신들도 유치 경쟁을 평창과 뮌헨의 2파전으로 보는 듯하다. 특히 평창에 호의적이다. 미국의 〈뉴욕 타임스〉는 지난달 "많은 IOC 위원이 아시아 개최를 선호하고 있으며, 지난 두 차례 도전에서 아깝게 패한 평창에 기회를 줘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전했다.

안시·뮌헨과 3파전… '아시아' 개최 필요성 설득

평창 유치위 조양호 위원장은 얼마 전 세르비아 베오그라드에서 열린 제39회 EOC(유럽올림픽위원회) 총회에서 후보도시 공식 프레젠테이션을 했다.

프레젠테이션은 20여 명의 IOC위원, 유럽 49개 회원국 NOC대표, 스포츠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뮌헨, 안시, 평창 순서로 15분씩 진행됐다. 조 위원장은 "올림픽 무브먼트 확산과 동계스포츠 성장을 위해 아시아에서 동계올림픽이 개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IOC 더반 총회까지 정부와 평창유치위, 대한올림픽위원회가 유기적으로 협력해 나간다면 평창의 동계올림픽 유치 가능성은 어느 때보다 커질 전망이다. G

글 · 성진혁(조선일보 스포츠부 기자)


이승복 연세대 교수



“2025년까지 에너지 제로 주택 실현”

우리 집의 바뀐 이름은 ‘그린홈’

주택 건설 패러다임의 대변화가 진행되고 있다. 키워드는 친환경이다. 국토해양부는 2025년까지 에너지 제로 주택을 실현한다는 목표 아래 관련 기술을 개발하고 보급하기 위한 ‘그린홈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 분야를 선도해 건설부문 녹색성장의 디딤돌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서울 중계동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A씨는 예년보다 따뜻한 겨울을 보내고 있다. 지난해 살고 있는 아파트를 대대적으로 보수했기 때문이다. 발코니의 오래된 알루미늄 창틀을 걷어내고 단열이 잘되는 플라스틱 복층 새시를 설치했다. 복도로 난 창문도 갈았다. 얇은 이중창 대신 두툼한 플라스틱 복층 이중창을 달았다.

효과는 기대 이상이었다. 바늘구멍으로 들이치던 황소바람이 거짓말처럼 사라졌다. 난방을 전보다 조금 해도 방안은 오히려 더 훈훈했다. 보일러를 덜 돌리니 관리비도 줄어들 것 같다. 꿩 먹고 알 먹는다는 말이 이런 것이지 싶은 요즘이다.

A씨의 마음이 더욱 흐뭇한 것은 주택 보수에 돈이 전혀 들지 않았기 때문이다. 국토해양부와 LH공사가 비용을 전액 부담했다. 에너지를 덜 쓰는 친환경 주택사업인 ‘그린홈 사업’의 일환이었다. 에너지 효율이 떨어지는 노후한 영구임대주택을 수리해 에너지 사용도 줄이고 주거의 질도 높이자는 취지다. 지난해 A씨처럼 무상으로 주택을 수리한 세대는 1만2백29세대에 이른다. 국토해양부는 이 사업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2018년까지 보금자리주택 1백만호 ‘그린홈’ 공급

그린홈 사업의 시작은 2008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8·15 경축사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집집마다 신재생에너지를 쓸 수 있도록 ‘그린홈’ 1백만호 프로젝트를 전개한다고 밝혔고 같은 해 10월 이 프로젝트는 100대 국정과제로 채택돼 본격적인 궤도에 올랐다. 그린홈 사업의 궁극적 목표는 주택의 에너지 사용을 ‘제로’로 만드는 것이다. 단열 등을 통해 에너지 유출을 차단하고 고효율 기기를 사용해 에너지



이승복 연세대 교수

국토해양부는 신재생에너지 기술 등을 활용한 친환경주택인 '그린홈' 사업을 확대하고 있다(왼쪽). 관련기술 개발을 위해 설립된 연구동인 '그린홈 플러스'(오른쪽).

효율을 높이고 신재생에너지를 사용해 탄소 배출을 원천봉쇄하는 등 다양한 방식이 동원된다.

정부는 에너지 제로 주택을 달성하기 위해 단계적 계획을 수립했다. 에너지소비량 기준을 2012년까지 수준 대비 30퍼센트, 2017년까지 60퍼센트로 줄이고 2025년에는 '에너지 제로 주택'을 의무화한다. 계획대로라면 전체 에너지소비량도 상당부분 절감할 수 있다.

2008년 현재 총에너지의 22퍼센트가 건축물에서 소비되는데 이 중 57퍼센트가 주택에서 쓰인다. 단순 계산으로도 에너지 제로 주택이 완성되면 10퍼센트 이상의 에너지소비를 줄일 수 있는 것이다.

사업 추진 방향은 크게 두 가지다. 신규주택의 경우 규제를 강화한다. '친환경 주택의 건설기준 및 성능'을 제정,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은 에너지 절감률을 의무적으로 지키도록 했다. 인센티브도 주어진다. 친환경 주택에 대한 취·등록세를 감면해주고 그린홈 건설에 따르는 추가 비용을 분양가 가산비로 인정해줘 친환경 주택의 수요와 공급이 확대되도록 유도하고 있다. 에너지 절감률이 높을수록 취·등록세 감면폭도 크다. 2018년까지 보금자리주택을 통해 1백만 호의 그린홈을 공급할 계획이다.

기존주택의 경우 에너지 절감을 위한 개·보수를 지원하고 있다. 우선 오래된 영구임대주택을 그린홈화하고 있다. LH공사가 소유하고 있는 준공 후 15년 이상 된 주택을 대상으로 발코니 새시와 보일러 등을 교체해준다. 이를 통해 약 10퍼센트의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해양부 주택건설공급과 황우정 사무관은 "2010년에 첫 사업을 시작해서 에너지 절감 효과는 올 겨울이 지나봐야 정확하게 산출할 수 있겠지만 일단 입주민들의 만족도는 80퍼센트 이상인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혔다.

그린홈 사업은 녹색성장의 한 축이기도 하다. 단순히 에너지소비를 줄일 수 있기 때문이어서가 아니다. 적극적인 의미에서 '성장'의 동력이 될 수 있다. 친환경 건축이라는 전세계적 흐름을 주도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한다면 경제와 산업적 파급효과가 엄청날 것이기 때문이다. 기술개발이 그린홈 사업의 핵심 중 하나인 이유다.

'한국형 에너지 제로 시범단지' 하반기 착공

정부는 이를 위해 지난해 송도국제도시에 '한국형 저에너지 친환경 공동주택 연구동'을 개관했다. '그린홈 플러스'라고 이름 붙여진 이 연구동은 R&D센터인 동시에 기존 연구의 성과물이다. 연세대와 대림산업 등 30여개 산학연 기관과 기업이 참여하고 정부가 지원한 '저에너지 친환경 공동주택 기술개발'의 성과가 집대성됐다. 현재 그간 개발된 요소기술들의 성능을 측정, 보완하는 중이다.

연구에 참여하고 있는 이승복 연세대 저에너지 친환경 공동주택 연구단장(연세대 건축공학과 교수)은 한국의 친환경 건설기술이 수출산업화할 가능성이 크다고 강조한다.

이 교수의 설명이다. "동남아시아 지역의 주택보급률은 50퍼센트가 채 되지 않습니다. 반면 인구밀도는 매우 높죠. 경제가 발전하면서 주택 수요가 증가할 텐데 어떤 형태의 주택이 필요하겠습니까. 고밀도 주거형태인 아파트가 유력합니다. 미국이나 일본, 호주, 캐나다 등 선진국이 기술에 앞섰다고 하지만 고밀도 주택에 대한 경험은 많지 않습니다. 반면 한국은 경험이 많죠. 우리의 경험에 친환경 기술을 겸비한다면 동남아시아 시장의 미래 주택시장을 주도할 수도 있습니다."

국토해양부가 올 하반기 착공할 예정인 '한국형 에너지 제로 시범단지'도 미래를 위한 포석이다. 한국의 공동주택 경험과 친환경 기술을 실증할 수 있는 시범단지를 조성해 기술의 상용화를 촉진하고 해외시장에 그 성과를 마케팅해 해외진출의 발판으로 삼을 수 있다.

이승복 교수는 "그린홈 사업의 성패는 결국 시장에 달려 있다"며 "신규주택뿐만 아니라 기존의 대형 빌딩을 대상으로 한 에너지 절감 사업 등 비즈니스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G 글·변형주 기자

문의·국토해양부 주택건설공급과 (02-2110-6228)



자신들의 이름을 딴 극장 앞에 선 배우 백성희(왼쪽) · 장민호씨.

"제가 살아 있는 동안 제 이름을 붙인 극장이 탄생할 줄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극장 현판을 보고 너무 감격했습니다. 감개가 무량합니다."(백성희)

"배우의 예술은 '커튼콜'과 함께 소멸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이름이 붙은 극장이 생기는 것은 배우로서 최대의 영광이죠. 이 극장이 인재 양성의 산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장민호)

지난 12월 27일 오후 서울역 옆 기무사(옛 보안사) 수송대 부지에 마련된 열린문화공간에서 '백성희·장민호 극장' 현판식이 열렸다. 이는 2백60석 소극장으로 배우의 이름을 따서 만든 최초의 국공립극장이다. 열린문화공간에는 '백성희 · 장민호 극장' 외에도 국립극단, 다목적 스튜디오,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국 등이 자리를 잡았다.

80대 중반에도 왕성하게 활동하는 현역들

이날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백성희·장민호 극장'의 건립은 단순히 연극계만의 일이 아니다. 너무 급격히 변해 그간 소홀했던 전통을 다시금 반추하는 계기이자 우리 사회의 어른과 원로를 조명하고 대우하는 첫발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극장 이름의 앞자리를 차지한 백성희(86)씨는 장민호(87)씨보다 나이는 한 살 연하지만 데뷔 연도로 보면 선배다. 백씨는 1943년 극단 현대극장의 〈봉선화〉로 배우 생활을 시작했다. 서울에서 나고 자란 그는 한동안 현대적이고 지적인 역할

배우 이름 딴 국내 첫 국립극장 '백성희·장민호 극장'

"우리 사회 어른과 원로 대우하는 첫발"

'올리비에 극장' '체호프 극장' 등 외국에는 예술가의 이름을 딴 극장이 많지만, 국내에는 거의 없었다. 지난 12월 서울역 부근 열린문화공간에서는 '백성희 · 장민호 극장' 현판식이 열렸다. 이는 배우들의 이름을 딴 최초의 국립극장으로 기록됐다.

을 해오다가 1964년 〈만선〉에서 구포댁을 맡아 연기 폭을 넓혔다.

백씨는 1954년 주한미군을 위로 방문한 마릴린 먼로와 한 무대에 서기도 했다. 그는 "지금까지 400편 정도에 출연했다"면서 "창작 작품으로는 김동리의 〈무녀도〉, 차범석의 〈산불〉, 노경식의 〈달집〉 등이 기억에 남는다. 번역극으로는 셰익스피어의 〈베니스의 상인〉, 테네시 윌리엄스의 〈욕망이라는 이름의 전차〉 등"이라고 말했다. 이어 백씨는 "그동안 작품은 가려도 배역은 가리지 않았다. '나한테 오기만 해! 넌 내 거야!'라는 심정으로 살았다"고 했다.





배우들의 이름을 딴 최초의 국립극장인 백성희 · 장민호 극장. 서울역 옆 기무사 수송대 부지에 지어졌다. 작은 사진은 극장 내부.

황해도 신천이 고향인 장민호씨는 1945년 월남해 조선배우학교에 입학했다. 1947년 성극 〈모세〉로 주연배우가 됐고, 지금까지 〈파우스트〉 〈대수양(大首陽)〉 〈성웅 이순신〉 등 230편 정도에 출연했다.

장씨는 "1957년 전국의 내로라하는 배우 52명을 모아서 김동인 원작의 〈대수양〉이라는 작품을 공연했는데, 내가 주연을 맡았다"고 말했다. 연극 〈파우스트〉의 파우스트 역으로도 유명한 그는 "깊은 우물에 조약돌을 던졌을 때 '펑'하며 울리는 소리,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깊은 소리를 내야 한다는 게 나의 연기론"이라고 했다.

한국 연극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은관문화훈장

한편 장씨는 백씨에 대해 "아내보다 내 속을 더 잘 아는 사람"이라고 말한다. 또 백씨는 장씨에 대해 "장 선생이 없었다면 외로움에 지쳐 연극을 놓아버렸을지도 모른다. 부디 건강해서 오래 무대에 섰으면 좋겠다"라고 한다.

서로를 아끼는 이 두 배우가 위대한 건 과거에 이름을 날렸던 중견배우여서가 아니라, 80대 중반인 현재까지도 왕성하게 활동 중인 현역배우이기 때문이다.

두 배우는 2010년 7월 한국 연극 예술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은관문화훈장을 받았다. 백성희씨는 1972~74년, 1991~93년 두 번에 걸쳐 국립극단장을 맡았다. 그는 "세계 최연소이자 여성으로 국립극단 단장이 됐다"면서 "1950년 국립극단 창립 때부터 단원으로 활동했다"고 말했다. 백씨는 후배 배우들에게 "스타의식을 갖는 것보다 예술가라는 생각을 가져야 한다"면서 "사명감을 가지고 평생을 걸고 하면 잘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장민호씨도 1967~69년, 1980~90년 두 번에 걸쳐 국립극단장을 역임했다. 장씨는 "국립극단장을 할 때는 성우, TV탤런트, 영화 등을 접고 연극에만 전념했다"고 말했다. 그 역시 후배 배우들에게 "정성을 다해 연극에 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면서 "큰 예술가가 되기 위해서는 건강에도 유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두 배우의 이름이 아로새겨진 '백성희 · 장민호 극장'은 현판식에 이어 3월 중 정식 오픈한다. 국립극단 공연기획팀 최홍일 PD는 "극장 개관과 함께 두 배우가 출연하는 〈3월의 눈〉이 공연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G

글 · 서일호 기자

해외에는 위대한 예술가 이름 딴 극장 많아

'백성희 · 장민호 극장'처럼 예술가의 이름을 딴 극장은 국내에 거의 없다. 2008년 동국대 안에 건립된 '이해랑 예술극장' 정도를 들 수 있다. 반면 해외에서는 위대한 예술가의 이름을 딴 극장이 많다.

1791년 프랑스 파리에서는 극작가이자 배우 몰리에르를 기리는 '테아트르 몰리에르'가 문을 열었다. 1995년 파리시청이 시인과 연극배우들에게 시 낭송 전용극장으로 쓰라고 넘겨줬다. 2002년 한국 시 낭송이 열려 고은 · 황동규 · 신경림 시인이 무대에 섰다.

파리 시립극장은 '사라 베르나르 극장'으로도 불린다. 20세기 초 유럽 최고 여배우로 꼽혔던 베르나르를 기념한 극장이다. 또 영국 런던에 있는 '올리비에 극장'은 로렌스 올리비에를 기린다.

미국 뉴욕 브로드웨이에는 '헬렌 헤이스 극장'이 있다. 여배우 헤이스는 1910년 열 살 때부터 영화에 출연했다. 러시아에는 푸슈킨 기념극장, 막심 고리키 극장, 스타니슬랍스키 극장, 체호프 극장 등이 있다.


조선DB

쇼핑 관광이 늘고 있는 가운데 명동 일대에서 일본관광객이 지도를 들고 쇼핑할 곳들을 찾고 있다.

1st PREMIUM SHOPPING & TOUR

우수쇼핑인증 1st마크

우수쇼핑인증 '1st(퍼스트)' 제도 시행

바가지 상혼 꼼짝마! "오~쇼핑 천국 코리아"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12월 29일 우수쇼핑인증제 '1st(퍼스트)' 제도를 도입, 올해부터 본격 시행한다. 국내에 처음으로 도입되는 쇼핑 부문 인증제로 '쇼핑 천국 코리아' 도약을 위한 발판이 되고 있다. 때마침 외국인관광객 대상 국내 최대 쇼핑 축제인 '2011 코리아그랜드세일'도 시작됐다.

외국인관광객 1천만 시대를 앞두고 지적돼 온 것 중 하나가 바로 '쇼핑'이다. 그동안 바가지 요금에 울고, 불량 상품에 실망하고 돌아선 외국인관광객이 적지 않다. 최근 방한 외국인관광객의 관광 목적 제1순위가 쇼핑(2009년 56.6퍼센트, 2008년 44.4퍼센트)으로 나타날 만큼 쇼핑이 주요 관광자원이 되고 있지만 일부 상점들은 여전히 바가지 요금 강요나 품질이 떨어지는 상품 강매 등으로 '쇼핑 천국 코리아' 이미지 구축에 걸림돌이 돼 왔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도입한 것이 1st제도다.

1st제도란 국내에 처음으로 도입되는 쇼핑 부문 인증제도다. 구매자들이 안심하고 쇼핑 관광을 즐길 수 있도록 우수한 매장 환경과 상품 및 친절한 서비스를 갖춘 쇼핑업체를 발굴해 문화체육관광부가 후

원하고 한국관광공사가 인증하는 제도로, 쇼핑 천국 코리아를 향한 첫걸음이나 다름없다.

1st에는 '최고 쇼핑 관광(No.1 Shopping&Tour)'이라는 제도가 추구하는 지향점이 담겨 있다. 지난 달 우선 서울과 부산의 외국인관광객 방문 지역(관광특구 포함) 쇼핑점 중 신청업체를 대상으로 서류 심사와 관련 전문가의 현장 심사를 거쳐 최종 1백20곳을 우수 쇼핑업소로 선정했다.

서울·부산에 우수 쇼핑업소 1백20곳 선정

이번에 도입한 쇼핑인증제의 성공적 정착 여부는 우수 쇼핑점 선정에 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에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전문인증 심사자, 관련 분야 전문 교수진과 함께 상품의 특성, 매장 환경, 가격 수준, 종사원 서비스, 부가 서비스 등 5개 부문에 중점을 두고 평가했다. 평가단엔 한·중·일 외국인도 참여시켰다. 실소비자인 외국인관광객의 입장을 적극 반영하겠다는 취지다.

우수쇼핑인증 1st의 인증 대상 품목은 식료품, 인삼, 화장품, 의류, 패션 액세서리, 공예품, 기념품 등이다. 인증 대상 필수 기준으로는 정식 건축 허가를 받은 건물에서 영업하는 업소로 신청일 기준 최소 1년 이상 영업 활동을 지속하고 있고 영업 관련 사업허가증을 발급받은 업소여야 한다. 국세와 지방세를 완납하고 주 6일 이상 정상영업, 개점 및 폐점 시간도 명시하는 업소여야 한다.

평가단의 현장 점검 시 항목별 인증 적정 여부 평가 기준은 ▲구비 상품의 특성(상품 품질의 신뢰성·상품 구비의 다양성 등) ▲매장 서비스 수준(매장 간판 및 안내문·매장 위치·매장 내부 환경 등) ▲가격 서비스 수준(정찰제 및 가격 표시제·가격의 적정성 여부 등) ▲종사원 서비스 수준(외국어 능력·복장·상품에 대한 지식·친절도 등) ▲부가 서비스 수준(고객 관리 및 구매 후 서비스 수준 등) 등이 평가 기준이 된다.

우수 쇼핑업소로 선정되면 인증브랜드인 '1st' 로고 등 상표 사용권을 부여받는 것을 시작으로 이른바 '글로벌 홍보'를 보장받게 된다. 관광공사 홈페이지에 인증업체에 대한 소개(한·영·일·중간·중번)와 함께 우수 쇼핑업소에 대한 국내외 광고 및 관광공사 해외지사를 통한 홍보, 더불어 인증업체 홍보 리플릿 제작·배포 지원을 받게 되며 전국 관광 안내 전화 1330을 통해 인증업소 안내 서비스도 받게 된다. 종사원 대상 서비스 교육 실시, 이와 함께 서비스 품질 평가 및 고객 만족도에 따른 'best of best(베스트 오브 베스트)'



외국인관광객 대상 2011 코리아그랜드세일이 10일부터 시작됐다.


조선DB

'우수쇼핑인증제'가 정착되면 상품의 품질과 서비스가 한층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매장 선정·시상 등 경영 지원 혜택도 있다.

문화부는 작년 시범단계를 거쳐 한국관광공사와 협력, 우수쇼핑인증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올해엔 전국 관광특구 내 쇼핑점을 3백여 개로 확대할 예정이다. 2012년엔 전국 쇼핑점을 5천여 개로 늘리고 2013년 이후엔 전국 쇼핑점을 대상으로 매년 1백 개소를 신규 지정할 계획이다.

"우수쇼핑인증제가 자리 잡으면 그동안 업계 스스로 해결하기 어려웠던 쇼핑 불만들이 해소돼 '쇼핑 천국 코리아' 이미지 구축에 커다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문화체육관광부 국제관광과 김진곤 서기관은 설명했다.

10일부터 쇼핑관광 축제 '코리아그랜드세일'

한편, 서울, 부산, 제주 등 전국 대도시에서 쇼핑·호텔·외식·공연·편의시설 등 거의 모든 부문에 걸쳐 할인혜택이 제공되는 외국인관광객 대상 국내 최대 쇼핑관광 축제 '2011 코리아그랜드세일'이 10일 시작, 2월 말까지 열린다.

코리아그랜드세일 기간에는 갤러리아·신세계·현대·롯데 등 시내 주요 백화점 및 영등포 타임스퀘어, 여주 프리미엄아울렛 등을 비롯해 이마트·롯데마트 등 대형 마트, 롯데·동화·워커힐·신라·파라다이스·공항면세점까지 총 1만3천여 개 업소가 참여한다. 할인 축제와 함께 명동과 인사동 일대에선 관련 행사들도 다양하게 열린다.

한국방문의해위원회 노영우 본부장은 "2011 코리아그랜드세일은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에게 한국관광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며 "이번 축제가 국제적인 쇼핑 관광 축제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G

글·박근희 기자

‘13번째 월급’ 연말정산 꼼꼼히!

‘13번째 월급’이라 불리는 연말정산을 앞두고 있다. 월급이라 표현하지만 금액이 정해진 것은 아니어서 ‘성과급’ 개념이 더 강하다. 얼마나 알고 꼼꼼히 준비하느냐에 따라 환급액은 달라지기 때문이다. 그래서 연말정산을 마친 뒤 맞이하는 첫 급여일은 근로자들에게 반갑고 기다려지는 날이기도 하다.

2010년 연말정산과 관련해 개정된 항목 중 가장 반가운 것은 ‘저소득 근로자 월세 소득공제’가 신설됐다는 점이다.

배우자 또는 부모님, 자녀 등 부양가족이 있는 총급여 3천만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을 임차하고 지급한 월세의 40퍼센트를 연간 3백만원 한도 내에서 공제받을 수 있게 됐다. 단, 임대차계약서와 주민등록표 등본의 주소지가 동일해야 하며 월세 이외에 보증금을 지급한 경우 확정일자를 받아야 한다. 이 규정에 해당되는 근로자는 반드시 서류와 관련 내용을 파악해 놓는 것이 좋다.

또 금융기관은 물론 개인에게 빌린 주택임차자금도 소득공제에 추가됐다.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 주택에 대한 임차자금(전세금 또는 월세보증금)을 개인으로부터 차입한 경우에도 소득공제가 가능하게 된 것이다.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손안에 연말정산 2010’을 활용하면 연말정산도 스마트하게 할 수 있다.

3월 11일까지 소득공제 신고서 · 증빙서류 제출

다만 금융기관과 달리 개인으로부터 차입한 경우에는 반드시 총 급여가 3천만원 이하이고 배우자나 기본공제 대상이 되는 부양가족이 있는 근로자만 해당된다. 금융기관과 개인 차입을 포함, 해당 근로자는 주택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의 40퍼센트를 연 3백만원 한도 내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해 종교단체 외 지정기부금 공제한도가 기존의 15퍼센트에서 20퍼센트로 확대됐다. 또 사업자에게만 적용되던 기부금 이월공제가 근로자에게도 적용된다. 이에 따라 해당 연도에 공제한도를 초과한 기부금액에 대해서는 다음 과세연도에 이월하여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물론 기부금 종류에 따라 이월공제 가능 기간은 각각 다르다. 법정기부금은 1년, 특례기부금은 2년, 지정기부금은 5년이다. 종교단체 기부금은 소득금액의 10퍼센트 내로 종전과 동일하다.

종합소득세율 인하 또한 근로자들에게는 유리한 변경사항이다.

과세표준 1천2백만원 이하와 8천8백만원 초과 구간의 소득세율은 각각 6퍼센트와 35퍼센트로 기존과 같다. 하지만 1천2백만~4천6백만원과 4천6백만~8천8백만원 구간은 각각 15퍼센트와 24퍼센트로 1퍼센트 포인트씩 세율이 인하된다.

한편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한도가 축소됐다는 점도 알아두자. 신용카드 소득공제의 최저 사용금액 기준이 총급여의 20퍼센트 초과에서 25퍼센트 초과로, 공제한도도 5백만원에서 3백만원으로 각각 낮아졌다.

미용·성형수술비,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보약 포함) 구입비용도 치료목적과 무관한 것임을 고려해 공제가 불가능하게 변경됐다.

장기주택마련 저축 소득공제도 폐지돼 2010년 가입한 근로자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 다만 2009년 12월 31일 가입자(가입기한을 2010년 이후로 연장한 경우 포함)는 총급여 8천8백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2012년까지 기존과 동일하게 납입액의 40퍼센트를 3백만원 범위 내에서 공제가 가능하다.

2010년 연말정산 신고·납부기한은 올 3월 11일이며, 대개 2월분 급여를 계산하기 전까지 연말정산에 필요한 소득공제신고서와 증빙서류를 원천징수의무자(회사 내 연말정산 부서)에게 제출한다. 대부분의 회사는 소득공제 서류를 1월 말까지 제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근로자가 출장 등으로 연말정산 신고·납부기한 내에 서류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 2011년 5월 말까지 국세청에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거나 2011년 3월 이후 납세자연맹 홈페이지에서 환급신청하면 회사를 통하지 않고 근로자 본인이 직접 처리할 수 있다.

연말정산 신고기간 중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 제공

국세청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www.yesone.go.kr)를 종이서류 없이도 연말정산이 가능하도록 업그레이드, 1월 15일부터 제공한다. 간소화서비스 홈페이지를 방문, 소득공제 증명서류를 전자파일로 다운받아 클릭만 하면 자동으로 제출이 가능하다.

근로자가 전자파일로 제출한 자료는 회사 연말정산 프로그램에 자동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회사도 영수증 금액을 일일이 대조하는 수고를 덜 수 있다.

간소화 서비스에서는 보험료, 의료비, 주택자금, 퇴직연금, 신용카드, 개인연금저축, 주택마련저축,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부금, 장기주식형 저축, 기부금 등 모두 12개 항목에 대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병원과 금융사 등을 통해 수집한 영수증은 종이문서로 제출해야 한다. 예를 들어 의료비 중 안경(콘텍트 렌즈) 구입비, 교육비 중 국외 교육비와 교복 구입비, 주택자금 가운데 월세액과 개인 간 차입한 주택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학원비 지로 납부액, 투자조합 출자공제 등 서류는 직접 방문해 소득공제 영수증을 수집해 제출해야 한다.

기부금의 경우도 국세청에 기부금 자료를 제출한 단체 자료만 조회가 되기 때문에 그 외 단체에 대한 기부금 자료는 직접 수집해야 한다. G

글·강선임(객원기자)

문의·국세청고객만족센터 call.nts.go.kr
연말정산 맨투맨 상담 www.yesone.go.kr/call
국세청 세미래콜센터 126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손안에 연말정산 2010'

2010년 연말정산 달라지는 것들

항목		2009년	2010년
기본세율		1,200만원 이하 :6% 4,600만원 이하 :16% 8,800만원 이하 :25% 8,800만원 초과 :35%	1,200만원 이하 :6%(변동 없음) 4,600만원 이하 :15% 8,800만원 이하 :24% 8,800만원 초과 :35%(변동 없음)
주택월세 소득공제		신설	총급여 3,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 근로자의 월세액 40% 소득공제(300만원 한도)
주택임차차입금	공제 대상	금융기관에서 차입한 주택임차 차입금	개인으로부터 차입한 주택임차 차입금도 공제대상 추가 (총급여 3,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에 한함)
	공제 요건	대출 이전에 주택마련저축 가입 필요	주택마련저축 가입 요건 폐지
기부금 이월공제공제		신설	기부금 공제한도를 초과한 기부금 이월공제 허용. 법정기부금 1년, 특례기부금 2년, 지정기부금 5년
신용카드 소득공제	공제 문턱	총급여 20% 초과 금액	총급여 25% 초과 금액
	공제 한도	최소 사용액 500만원	최소 사용액 300만원
	공제 비율	20% 일률 적용	신용카드 현금영수증:20% 공제 직불카드 체크카드 :25% 공제
장기주택 마련저축		납입금액의 40%를 300만원 한도 소득공제	2009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한 근로자 중 총급여 8,800만원 이하인 사람이 2012년까지 납입한 금액에 대해 소득공제 (2010년 가입자는 공제불가)
장기주식형 저축		납입금액(분기당 300만원 한도)에 대해 1년차 20%, 2년차 10%, 3년차 5% 공제	2009년 12월 31일까지 가입자만 공제가능 (2010년 가입자는 공제불가)
미용 성형수술 및 건강증진 의약품 구입비		의료비공제 가능	의료비공제 대상 제외
장기미취업자 중소기업취업 시 비과세 특례		신설	장기미취업자가 2010년 3월 12일 ~2011년 6월 30일까지 중소기업에 취업한 경우 3년간 비과세(매월 100만원 한도)
외국인근로자 비과세특례		총급여 30% 비과세와 15% 단일세율 중 선택	15% 단일세율 적용여부만 선택 가능
외국인 기술자 소득세 감면 대상 제한	대상 제한	신설	고도기술사업의 고도기술을 제공하는 외국인근로자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
	감면 금액	5년간 소득세 100% 면제	2년간 소득세 50% 면제로 축소 (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는 종전 규정 적용)
자녀보육수당 비과세		지급월을 기준으로 6세 여부 판단	과세기간 개시일 기준으로 6세 여부 판단
국외건설 근로자비과세		항목 추가	국외건설 지원근로자도 150만원 비과세

자료:국세청

모르면 毒… 새해 달라지는 제도 확인하세요

'기획재정부는 2011년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을 정리해 〈2011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란 책자를 발간했다.
책자는 주요 공공기관에 배포될 예정이며, 전체 내용은 기획재정부(www.mosf.go.kr) 등 각 부처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2011년 새해부터 오전 9시~오후 9시였던 휴일 경부고속도로 버스전용차선제가 오전 7시~오후 9시로 바뀐다.

시력이 아무리 나빠도 안경 등으로 교정이 가능한 경우 현역병으로 입대하게 되고, 인공 디스크를 삽입하는 수술을 받았어도 보충역으로 근무하게 된다.

다(多)자녀 가구에 대한 추가공제액이 2010년의 두 배 수준으로 확대된다. 하반기부터 자동차 운전면허시험에서 기능시험이 없어지고 도로주행시험으로 일원화된다.

새해부터 달라지는 정책 중 주요한 내용을 소개한다.

서민 복지

다자녀 추가공제 확대 다자녀 가구에 대한 추가공제금액이 자녀 2명인 경우 연 1백만원(기존 50만원), 자녀 2인 초과의 경우 1인당 연 2백만원(기존 1백만원)으로 확대된다.

신생아, 장애인 등 사회적 관심계층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기존 30만원이던 출산진료비가 40만원으로 늘고, 골다공증·당뇨·신생아 호흡곤란증후군 치료제와 항암제 등이 급여화돼 중증환자, 신생아, 장애인을 위한 건강보험 적용이 확대된다.

양육수당 및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 확대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차상위 이하 가구의 24개월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원을 지원하던 보육료 지원금이 36개월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20만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확대된다.

보육료 전액지원 대상도 중산층까지 확대하고 맞벌이 및 다문화 가정에 대한 보육료 지원을 강화한다.

근로여건 개선 7월부터 5인 이상 20인 미만 사업장에 주40시간제가 도입되며, 시급 4천1백10원이던 최저임금액이 11월부터 4천3백20원으로 인상되는 등 근로자의 근로여건이 개선된다.

저소득층 성적우수 장학금 신설 올해 1학기부터 소득 5퍼센트 이하, 성적 A 이상인 대학생 중 1만8천명에게 연간 최대 5백만원의 등록금을 지원한다. 특히, A+ 이상인 대학생 1천명에게는 연간 최대 1천만원을 지원해 가정형편과 관계없이 고등교육을 받을 기회를 제공한다.



삼성서울병원

보건의료 분야에서는 골다공증과 당뇨 치료제, 항암제 등도 보험급여 항목에 들어간다. 사진은 병원에서 골다공증 검사를 받고 있는 모습.

세제

기부금제도 간소화 및 세제혜택 확대 기부금의 소득공제 한도가 개인기부금은 20퍼센트에서 30퍼센트로, 법인기부금은 5퍼센트에서 10퍼센트로 확대된다. 법정, 특례, 지정 등 3단계로 구성돼 있던 기부금 구분체계는 하반기부터 법정과 지정으로 간소화된다.

신용카드 등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우대제도 일몰 연장 음식·숙박업자 등 중소상공인의 세금부담 경감을 위해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등 발행(결제)금액의 일정부분을 세액공제 시 우대하는 제도의 일몰기한이 2010년 12월 31일에서 2012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된다.

통합 취득세 분납제도 3년 한시 도입 취득세와 등록세가 통합된다. 취득 후 60일 이내 '통합 취득세'를 납부해야 하는데, 납세자의 일시적인 자금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취득세 분납제도를 3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한다. 30일 이내 등기·등록하는 경우, 2011~2012년은 세액의 50퍼센트, 2013년에는 세액의 70퍼센트를 선납하고, 나머지 세액은 납부기한(60일) 내 납부하면 된다.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강화 고액·상습체납자 공개 대상


조선DB

서울 신월동 7남매 다자녀 가족(황운기씨와 부인, 그리고 7남매). 올해부터 다자녀 가구에 대한 추가공제금액이 확대된다.

체납액 기준이 1억원에서 3천만원으로 바뀐다. 단 3천만~5천만원 범위 내에서 하한선을 자치단체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공개방식도 기존 관보·공보 게재, 정보통신망·게시판 게시 등에 언론매체가 추가된다.

인터넷통관포털서비스(Uni-pass) 수출입신고를 할 때, 1월 3일부터 세관을 방문하거나 관세사에게 위임하지 않고, 온라인상에서 인터넷통관포털서비스(Uni-pass)를 활용해 간편하게 통관 고유부호(국내 수출입업체의 고유번호) 등을 직접 신청할 수 있다.

친환경 · 농식품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 구제제도 시행 석면과 관련된 직업 이력이 없더라도 일상생활에서 석면에 노출돼 석면관련 질환을 앓는 경우 요양급여 및 요양생활수당 등의 구제급여가 지급된다.

폐기물 재활용 분리배출 표시 변경 도안의 종류가 12종에서 7종으로 단순화되고 플라스틱 관련 도안이 한글화되는 등 폐기물 재활용 분리배출 표시가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개선된다. 1월 1일부터 변경된 도안을 사용해야 하지만, 사업자의 부담 요인을 감안해 고시 시행일 기준 기존 제품·포장재에 대해서는 최대 1년6월의 준비기간을 부여키로 했다.

농지연금 시행 고령농민의 안정된 노후생활을 위해 65세 이상, 영농경력 5년 이상, 소유농지 3만 평방미터 이하인 농민은 농지를 담보로 부부 모두 평생 연금을 지급받는다. 가령 70세의 농민이 2억원의 농지를 담보로 가입할 시 매월 77만원을 수령할 수 있다.

닭·오리 고기 전면 포장유통 실시 닭·오리 고기와 식용란(계란)에 대한 도축, 보관, 운반 판매 등 전(全) 단계 포장유통이 의무화된다.

술 품질인증제 실시 탁주(막걸리), 약주, 청주, 과실주 등 4개 주종에 대해 술 품질인증제를 실시한다. 희망업체가 신청하면 품질인증기관에서 심사를 한 후 품질인증서 및 품질인증 마크를 부여한다.

생활

일정조건하 복수국적 허용, 국적이탈은 제한 11월부터 우리 국적을 취득한 일부 외국인(우수 외국 인재, 특별공로자, 결혼이민자, 해외 입양인, 65세 이상 영주귀국 동포)과 선천적 복수국적자 등이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을 하면 외국 국적을 포기하지 않고도 우리 국적을 계속 유지(=복수국적 보유)할 수 있게 된다.

성범죄 예방제도 확대 기존 19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범죄자에게만 적용되던 신상정보 공개제도가 4월 16일부터 19세 이상 전 연령 대상 범죄자로 확대, 인터넷에 공개된다. 7월 24일부터 16세 미만의 아동 등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19세 이상의 성도착증 환자로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사람은 법원의 판결 등을 통해 약물 및 심리치료를 병행하는 성 충동 약물치료를 받게 된다.

119 안전서비스 확대 재난·사고 관련 긴급전화번호 11종을 119와 연계해 119에 신고하면 해당기관에 이첩하거나 3자 통화 등을 통해 쉽고 신속한 긴급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재난·사고 시스템이 개선된다.

단독세대주 국민임대주택 공급면적 확대 3월부터 단독세대주라도 휠체어 등을 이용하는 장애인과 전용면적 40평방미터 이하의 국민임대주택 공급이 없는 지구에서는 전용면적 50평방미터 이하의 국민임대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다.

국가유공자 보상금 등 인상 국가유공자 및 유족에게 지급하는 보상금 등 보훈급여금이 2010년 대비 4~7% 인상된다.

특성화고 학생 장학금 전액 지원 올해 1학기부터 특성화 고등학교 재학생은 수업료 및 입학금을 전액 지원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특성화 고등학교(구 전문계고) 재학생 약 26만3천명이 1인당 연평균1백20만원씩 총 3천1백59억원을 지원받는다. G

정리 · 김정우(월간조선 기자)

혹시 돌려 받지 못한 세금 없으십니까

잠자는 돈을 깨워라. 우리 국민이 돌려받아야 할 국세 환급금이나 지방세 과오납금, 법원 송달료 등에 대한 정보를 일괄 제공하는 '미환급금 찾아주기 통합서비스'가 인터넷에 개설됐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12월 23일부터 '민원24' 홈페이지(www.minwon.go.kr)를 통해 ▲국세 환급금(국세청) ▲지방세 과오납금(행정안전부) ▲송달료 및 보관금(대법원) 등 3개 기관의 미환급금 정보를 일괄 제공하고 있다.

정부의 여러 기관에 산재되어 있는 미환급금의 경우 그간 개별 기관에서 따로따로 조회하고 신청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어 미환급금을 돌려받아야 할 사람들도 자신이 받아야 할 환급금이 있는지도 모르고 지나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조선DB

'민원24' 홈페이지에서 미환급금 정보를 일괄제공하고 있어 편리하게 미환급금을 찾을 수 있게 됐다. 사진은 서울 국세청 삼성·역삼·서초 통합세무서.

민원24 사이트에 미환급금 찾아주기 통합서비스

이번 서비스는 행정정보공유추진단이 지난해 11월 말 각 부처에 있는 미환급금 관련 데이터베이스를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에 연계하면서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국민 누구나 개별 기관이나 홈페이지에 방문 없이 '민원24'에 접속해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면 클릭 한 번으로 자신의 미환급금 관련 정보를 일괄적으로 알 수 있게 됐다. '민원24'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미환급금 바로가기' 코너가 마련돼 있으며, 회원 가입 없이 조회가 가능하다.

다만 조회 후 환급신청은 국세청이나 지자체, 대법원 등 개별 홈페이지를 통해 해야 한다. '민원24' 홈페이지에는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도 연계돼 있다.

미환급금 찾아주기 통합서비스는 앞으로 이동통신전화 미환급액(방송통신위원회), 휴면주식 및 배당금(금융위원회), 건강보험 과오납금(건강보험공단) 등을 대상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또 2011년 말에는 조회뿐 아니라 환급신청과 신청결과 조회까지도 '민원24' 홈페이지에서 가능하게 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가 이처럼 미환급금 찾아주기 통합서비스에 적극 나선 이유는 우리 국민이 찾아가지 않아 잠자고 있는 미환급금의 규모가 엄청나기 때문이다. 통합서비스가 실시되고 있는 3개 종류의 미환급금 현황만도 2010년 9월 현재 ▲국세 미환급금 연간 28만 건 1백53억원 ▲지방세 과오납금 연간 2백94만 건 3백30억원 ▲법원 송달료 및 보관금 2백37만 건 1천1백억원 등 총 1천5백83억원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장광수 행정안전부 행정정보공유추진단장은 "이번 서비스를 통해 우리 국민이 미환급금을 찾기 위해 행정기관을 일일이 방문해야 했던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게 됐다"며 "이번 서비스가 그동안 우리 국민이 알지 못해 누락된 미환급금에 대한 권리를 되찾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G

글·박경아 기자

문의·행정안전부 행정정보공유추진단 (02-2100-4425)

'민원24' 홈페이지 www.minwon.go.kr

미환급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국세 및 지방세 종류

국세	직접세	법인세, 소득세, 부당이득세, 상속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
	간접세	부가가치세, 인지세, 개별소비세, 증권거래세, 주세
	목적세	교육세, 교통에너지환경세(목적세이면서 간접세), 농어촌특별세
	관세	관세
지방세	보통세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 레저세,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농업소득세, 도축세, 담배소비세, 주행세
	목적세	공동시설세,지역개발세,지방교육세,도시계획세, 사업소세

확 바뀐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

방만경영 막아 글로벌 공기업 만든다



일러스트 · 남동윤

정부가 매년 실시하는 공공기관(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경영평가제도가 대대적으로 개편됐다. 기획재정부 윤증현 장관은 작년 말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하면서 "2011년부터 부채관리와 일자리 창출, 사회공헌을 비중 있게 반영하는 새로운 평가제도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방만경영을 막고, 공정사회 구현에 앞장서는 글로벌 공기업을 육성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경영평가제도 개편의 핵심이다.

글로벌 선진 공기업 실적과 직접 비교

개편된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에서 가장 눈에 띄는 점은 우리 공기업의 실적을 선진 외국의 공기업과 직접 비교하겠다는 대목이다. 해당 공공기관의 전년도 자체 실적과 비교하던 그동안의 경영평가 방식에서 벗어나, 글로벌 선진기업의 경영실적과 비교함으로써 우리 공기업의 국제 경쟁력을 키우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다. 글로벌 공기업과의 실적비교는 한국전력, 인천공항, 가스공사 등 10개 공기업부터 우선 적용된다.

새 경영평가제도는 공기업의 고질병으로 지적돼온 방만경영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도 대폭 강화했다. 방만경영과 관련된 평가지표의 비중을 2010년 19점(100점 만점 기준)에서 올해 26점으로 확대한 것이다. 그동안은 공기업이 복리후생비를 과다하게 지출하거나, 노조 전임자를 과다하게 운영하는 등 정부의 지침을 위반한 경우에도 관련 평가지표에서 비교적 가벼운 불이익을 받는 수준이었으나, 앞으로는 방만경영 적발 시 해당 지표에서 최하점(E등급)까지 부여할 수 있다.

공공기관의 방만경영에 대해서는 '반드시 득(得)보다 실(失)이 크도록 엄정한 평가를 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의지다. 또한 공공기관의 재무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부채가 많은 기관(예 LH공사)의 부채관리지표 평가비중을 확대해 해당 기관의 부채 축소 노력을 정밀하게 평가할 예정이다.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평가항목이 새로 생기거나 강화된 것도 주목된다. 동반성장(상생경영)이나, 공정사회 구현 등을 평가하는 '사회공헌 지표'를 신설했으며, 채용이나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정부 정책 이행실적에 대한 평가를 강화했다. 특히 청년미취업자 고용, 신규채용 등 일자리 창출 노력과 성과에 대해서는 중점적인 평가가 이루어진다.

기타 국민이 공감하는 평가가 될 수 있도록 해당 공공기관의 국민경제 기여도, 신뢰에 대한 일반 국민의 인식을 조사하여 평가에 반영하기로 했다. 정부는 평가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금까지 '기관 평가단'과 '기관장 평가단'으로 나뉘어 있던 양(兩) 평가단을 '경영평가단'으로 통합 운영하고, 민간기업의 CEO 등을 참여시켜 평가의 전문성을 높일 방침이다.

정부의 개편된 경영평가제도가 맞춤형 평가로 공공기관의 평가부담을 줄이면서도 인력운용의 효율화와 노사관계 합리화 등을 이끌어내 공공기관의 선진화를 이루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의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 개편 방안의 궁극적 목표는 경영평가의 품질과 신뢰를 높여 '국민에게 사랑받는 공공기관'으로 탈바꿈시킨다는 데 있다. G

글 · 이상흔 기자

공공기관 평가제도 개편 주요 내용

- 한국전력 등 10개 주요 공기업은 글로벌 선진기업의 실적과 비교 평가
- 동반성장(상생경영), 공정사회 구현 등을 평가하는 사회공헌지표 신설
- 청년 미취업자 · 장애인 채용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위한 정부권장정책 이행실적 평가 강화
- 민간부문의 일자리 창출 지원노력을 핵심 사항으로 평가
- 부채가 많은 기관의 부채 관리지표 평가 비중의 확대
- 방만 경영이 시정되지 않을 경우 해당지표에서 최하점(E등급)까지 부여
- 일반 국민의 견해를 평가에 반영(기관에 대한 국민경제 기여도나 신뢰도 등에 대한 국민의식 설문조사 방식)
- 공공기관과 기관장으로 이원화된 평가체계를 통합하여 평가 지표수를 축소 · 간소화



광화문 '녹색성장체험관'

"한 바퀴 빙 돌았더니 녹색박사 됐어요"

서울 광화문 통신센터빌딩 1층에 있는 '녹색성장체험관(EGG Hall)'은 '저탄소 녹색성장'의 내용과 그 중요성을 국민에게 알리기 위해 만든 홍보의 장이다. "녹색생활 실천법이 궁금하다"는 주부 김명희씨(수원시 영통구 매탄동)가 딸 배지연(10) · 서연(6) 양을 데리고 녹색성장체험관을 방문했다.

글 · 박근희 기자 / 사진 · 이경호 기자



1F



1 직접 에너지 생산 야외 체험공간

환경부 녹색성장위원회가 운영하는 '녹색성장체험관'은 녹색성장 실천 방법들을 체험을 통해 배울 수 있는 곳이다. 먼저 입구 그린포토존에선 자전거를 탄, 새하얀 북극곰이 반가운 듯 맞아준다. 한쪽엔 '바람의 하모니'가 있다. 설치된 막대를 위아래로 움직여 직접 바람개비를 돌려보는 체험이 가능한 곳이다.

압전소자를 활용한 '당신이 에너지다' 공간에선 압전소 발판을 밟아 LED 조명의 불을 켜볼 수 있는 체험이 기다린다. 녹색성장체험관을 처음 방문한 지연 · 서연 양은 호기심 가득한 표정이다.

2 생활 속 에너지 절약법 체험 그린홈

전체적인 공간이 모델하우스 축소판 같다. 전기를 생산하는 염료를 이용한 염료감응형 태양전지 등을 관람할 수 있다. 한쪽엔 커다란 추들이 놓여 있다. '끙끙' 거리며 20킬로그램의 추를 들어 보이는 지연 양의 질문에 관람 안내를 맡은 도슨트 박지혜(24)씨는 "하루에 종이컵을 5개씩 사용했을 때 연간 발생하는 이산화탄소의 양"이라고 설명한다. 엄마 김씨는 절수형 샤워기와 삼중창 등을 살펴보고서 "당장 집에 가서 설치해야겠다"고 말했다. 실제 콘센트를 꽂아놓았을 때 전자레인지, 컴퓨터, 밥솥 등의 대기전력이 얼마나 낭비되는지 확인해 볼 수 있다.



3 미래교통 수단과 친환경 운전습관 체험
녹색교통

'녹색교통'관에는 "물 이외에는 배출물이 거의 나오지 않는다"는 미래형 자동차이자 가장 친환경적인 자동차로 주목받는 수소연료전지 자동차와 전기 자동차, LED 신호등 등이 전시돼 있다. 전기 자동차는 직접 시승도 가능하다. 에코드라이빙 시뮬레이터는 시뮬레이션으로 친환경 운전법을 경험해 볼 수 있는 장비다. 급출발이나 급정지 시 CO_2가 얼마나 발생하는지도 확인 가능하다.

위치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100번지 1층
관람시간	오전 9시30분~오후 6시(오후 5시30분 입장 마감)
휴관일	매주 월요일 및 공휴일 익일, 1월 1일, 명절 연휴
관람예약	단체(20인 이상)의 경우 3일 전까지 온라인 또는 전화 예약 (※개인체험은 예약 없이 자유 관람 가능)
소요시간	전시관람 약 40분 / 체험학습 약 50분
문의	02-720-7100 www.egg.go.kr





4 자전거 타고 4대강 구경
생명의 강, 4대강

차세대 전력 시스템 스마트 그리드와 풍력발전, 시화호 조력발전 등 그린 에너지 관련 시스템을 관람할 수 있는 '그린 에너지'관을 지나면 '생명의 강, 4대강'관이 나온다. 이곳에선 수자원과 4대강 살리기 사업을 확인해 볼 수 있다. 그중 지연 양의 시선을 사로잡은 것은 '4대강 자전거체험'. 자전거에 올라 페달을 밟자 맞은편 TV의 배경화면이 움직이며 자전거 여행이 시작된다. 도슨트는 "페달을 밟으면 운동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로 전환돼 화면이 움직이는 원리"라고 설명한다. 짧게나마 자전거를 타고 4대강 사업으로 달라진 4대강의 한 자락을 신나게 달리는 기분을 느껴볼 수 있다.



5/6 녹색 생활습관 점검
녹색성장의 미래 & 녹색성장의 다짐

녹색성장을 위한 신기술 제품과 정부의 녹색정책 등을 살펴볼 수 있다. 관람객이 간단한 퀴즈를 통해 스스로 친환경 생활습관을 진단해 보도록 하고 그에 따른 실천방법을 제시한다. 누구나 자신의 손을 이용해 에너지를 만들 수 있는 '내가 만드는 에너지' 코너도 마련돼 있다. 마지막 체험관은 '녹색성장의 다짐'으로, 지연 · 서연 양은 스스로 녹색생활을 하고 있는지 반성한 다음 나뭇가지가 그려진 '약속카드'에 스탬프를 찍으며 녹색생활 실천 의지를 다짐하는 것으로 관람을 마무리했다.

2F



매달 다양한 주제로 환경의 소중함 교육
체험교실

2층 체험교실은 사전 신청자에 한해서만 체험 참가가 가능하다. 매주 수 · 목 · 토 · 일요일(오전 10시 · 11시30분, 오후 2시 · 3시30분)에 6명의 강사가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체험학습 교실의 운영을 담당하는 손창성 녹색생활체험관 체험교실팀 과장은 "참가자 특성이나 연령대를 고려해 기후변화 및 지구온난화에 대한 기초적 지식을 간단한 체험 활동을 통해 쉽게 전달하고 있다"고 전한다. 별도의 체험 참가비는 없다.

녹색성장체험관에서 제안하는 녹색성장 간단 실천법

1 냉장고를 벽면에 딱 붙이지 말고 어느 정도 거리를 둬 배치하면 전기료를 줄일 수 있다.
2 양치질할 때 양치컵을 사용하거나 설거지 그릇을 사용하는 것으로도 물 낭비를 줄일 수 있다.
3 '아나바다'(아껴 쓰고, 나눠 쓰고, 바꿔 쓰고, 다시 쓰고)를 실천해 '버리는 양'을 줄인다.
4 음식을 남기지 않는다.

비운의 고구려 고국원왕

무력했던 '장수왕의 증조부' 100년후 아차산에서 '피의 복수' 낳다

고국원왕은 자신의 무능으로 어머니와 처가 전연(前燕)의 포로가 되었고, 그 아버지인 미천왕의 시신까지 빼앗기는 신세가 됐다. 아버지 시신과 어머니는 돌아올 수 있었지만, 처인 왕비는 결국 데려오지 못했다. 노년에는 떠오르는 백제의 근초고왕과 싸우다 평양성에서 전사했다.

342년 11월 선비족(鮮卑族) 모용씨의 전연(前燕)이 고구려를 침공해왔다. 고구려 조정에서 방어력 배치를 놓고 회의가 열렸다. 북쪽 평지에 주력을 배치하고 남쪽 험지에 나머지 병력을 배치하기로 결정했다. 고구려 고국원왕의 아우 무(武)가 주력 5만명을 이끌고 북쪽 길로 가고, 고국원왕(故國原王, 16대, 재위 331~371)은 나머지 병력을 이끌고 남쪽 길로 갔다. 왕은 전연의 주력이 북쪽 길로 오리라고 생각했다. 예측은 완전히 빗나갔다. 왕의 액운은 여기서 시작되었다. 하지만 그것은 잘못된 접근로 판단이 가져온 인재(人災)였다.

전연에 패하고 아버지의 시신을 빼앗기다

전연의 왕 모용황은 주력 4만을 직접 거느리고 남쪽 길로, 그의 신하인 왕우(王寓)의 병력 1만5천이 북쪽 길로 왔다. 초반 남쪽 길에서 고구려군은 선전했다. 고구려 군대가 험지의 길목을 장악한 상태에서 전선이 교착됐다. 얼마 가지 않아 소강은 깨졌다. 전연의 장군 선우량이 소수 기병을 이끌고 고구려 진중으로 돌진했다. 많은 고구려군이 있었지만 그들을 당해내지 못했다. 영웅적인 분투는 당하는 고구려군에게는 두려움을 주었고, 전연군(軍)의 사기를 올렸다.

진(陣)에 균열이 생기자 전연군은 노도와 같이 들어왔다. 고구려의 장군 아불화도가가 전사했다. 전연의 기세에 고구려군은 밀렸고, 전열을 가다듬을 시간도 갖지 못했다. 남쪽 고구려군이 괴멸당했다. 병력이 거의 없었던 환도성으로 전연의 군대가 들어왔고, 고국원왕의 어머니와 처는 포로가 되었다. 이 둘을 두고 도주하던 왕은 어떠한 생각에 잠겼을까.

같은 시간 북쪽 평지의 고구려군은 우세한 기병전을 벌이고 있었다. 고구려군 5만은 전연군 1만5천을 전멸시켰다. 소식을 접하고 당황한 모용황은 북쪽의 고구려군이 환도성에 도착하기 전에 철수할



342년 전연의 모용황이 4만명의 병력을 이끌고 남쪽 길을 따라 고구려 환도성을 점령했다.
고국원왕은 전연의 주력이 북쪽으로 올 것으로 예상하고 그곳에 병력을 배치했다가 낭패를 당했다.

일러스트 · 이철원

것을 결정했다. 먼저 모용황은 대대로 물려 내려온 고구려의 신기와 보물들로 가득찬 왕실의 창고를 약탈했다.

궁궐을 불태우고 환도성을 해체한 그는 고국원왕의 아버지인 미천왕의 무덤을 발굴하라고 명령했다. 병사들이 개미떼처럼 달라붙어 삽질을 했다. 관 뚜껑이 열리고 시신이 나왔다. 환도성에 거주하던 남녀 5만이 줄줄이 묶였다. 골짜기에는 울부짖음으로 가득 찼다.

이듬해인 343년 2월 고구려 사절이 전연의 수도 용성(龍城, 요령성 조양)에 도착했다. 고국원왕의 국서가 모용황에게 전달됐다. 왕이 모용황에게 스스로 신하라 칭하고 천 가지의 진기한 보물도 바쳤다. 모용황은 그 대가로 불과 수개월 전에 고구려에서 파온 미천왕 시신을 주었다. 큰 수확이었다.

무덤을 잃어버리고 구천을 떠돌 아버지 미천왕의 기나긴 고통을 생각하면서 고국원왕은 얼마나 괴로웠을까. 하지만 살아있는 어머니는 방면되지 못했다. 모용황은 그녀를 인질로 삼아 왕의 의지를 계속 억압했다. 345년 10월 모용황은 고구려를 침공해 남소(南蘇)를 빼앗고 그곳에 전연의 군대를 주둔시켰다. 하지만 왕은 어떠한 반격을 할 수도 없었다.

전연의 모용황이 죽고 모용준(慕容儁)이 즉위했다. 349년 12월 고국원왕은 전연에 사신을 보냈다. 여기에는 후조(後趙)와 내통하다 고구려에 망명하여 용준이 증오하던 송황(宋晃)이라는 자도 묶인 상태로 동행했다. 왕은 정성을 보였다. 하지만 모용준은 아무런 언급이 없었다. 6년이 흘렀다.

그동안 전연 세력은 팽창해 하북의 일부를 후조로부터 빼앗고 수도를 지금의 북경 부근인 계(薊)로 옮겼다(350년). 352년에 모용준은 후조의 염민(冉閔)을 공격하고 패퇴시켰다. 이로써 전연은 관중을 제외한 하북을 대부분 차지하게 됐고, 수도를 업(鄴, 하북성 림창현)으로 옮겼다.

어머니만 13년 만에 고구려로 송환

355년 12월 고구려 사절단이 업에 도착할 당시 전연은 강력한 제국으로 변모해 있었다. 공물과 함께 인질도 데리고 온 사절단은 모용준에게 왕모의 송환을 부탁했다. 왕모는 꼭 13년 만에 돌아올 수 있었다. 하지만 함께 잡혀간 왕비는 데려오지 않았다. 국제 상황의 변화 때문에 이후 양국은 원만한 관계를 유지했다. 왕은 황해도지역을 두고 백제와 국지전을 벌이고 있었고, 전연은 서쪽에서 부견의 전진(前秦)이 팽창하자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었다.

15년 후인 370년 전진은 낙양과 진양(晋陽, 산서의 태원)을 연속으로 함락시키고 노천(濁漳河, 탁장하)에서 모용평이 이끄는 전연의 15만 군대를 크게 물리쳤다. 이어 전진군은 전연의 수도 업을 포위했다. 전연이 망하자 그 실권자 모용평은 고구려로 망명했다. 모용평이 왔을 때 고국원왕은 어떤 생각에 잠겼을까. 아버지의 시체를 파내갔을 뿐만 아니라 어머니와 아내 그리고 왕실의 보물을 약탈하고 우리를 그토록 철저히 유린한 전연이 이렇게 한순간에 무너질 줄은 몰랐다.

> *"고구려 고국원왕은 백제 근초고왕의 강력한 군사를 막아내기엔 힘이 부쳤다. 그래도 평양성을 포기할 수 없었다. 이곳의 상실은 소중한 곡창지대의 포기와 국제무역의 이권을 백제에 잃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전연이 망하자 근초고왕 백제에 또 밀려

왕은 그 망명객을 동여매 전진에 보냈다. 감정 때문만은 아니었다. 북중국 최강국으로 부상한 전진과 우호적인 관계를 가질 필요가 있었다. 공포의 대상이던 전연의 멸망을 본 왕은 안도감이 들었다. 이제 남쪽 백제와의 전쟁에 전념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운명의 여신은 나이가 들어 누추해진 왕을 향해 문을 열어주지 않았다. 이듬해인 371년 왕은 백제와의 전쟁을 위해 평양성에 머물고 있었다.

3년 전부터 백제에 밀리고 있었다. 백제 근초고왕의 아들 근구수에게 패해 자신의 병사들 5천이 죽거나 노예가 되었다. 다시 군대를 소집했지만 임진강에서 매복에 걸려 많은 병력을 잃었다. 또 다시 군대를 모아 '반걸양'에서 대진했다가 백제에 약점을 간파당해 참패를 했다.

근초고왕의 백제는 강했다. 왕은 힘없이 평양성으로 들어갔다. 371년 겨울 근초고왕이 병력 3만을 동원하여 공격해왔다. 힘이 부쳤다. 그래도 평양성을 내줄 수는 없었다. 그것의 상실은 남쪽의 소중한 곡창지대의 포기를 의미하고 국제무역에서 백제에 모든 이권을 잃는 것을 말한다.

371년 겨울 10월 23일 성이 함락될지도 모르는 상황까지 왔다. 화살이 쏟아지는 순간에도 노인이 된 왕은 다니면서 군사들을 독려했다. 그러다 날아오는 화살에 맞고 쓰러져 일어나지 못했다. 백제군이 물러나고 시신은 수레에 실려 국내성(國內城)으로 향했다. 고구려 전체가 비탄에 잠겼다. 전연의 팽창기에 청·중년기를 보냈고, 이어 백제가 흥기하던 시대에 노년을 맞이했던 고국원왕. 그도 시대에 무력(無力)한 개인이었다. 그로부터 104년 후 한성백제의 비극은 여기서 배태되었다. 475년 증손인 장수왕은 워커힐호텔 자리에서 백제 개로왕과 그 가족들을 공개 처형했다. G

글 · 서영교(중원대 박물관장)



경주의 밤은 낮보다 아름답다

경주로 겨울 나들이를 간다. 봄, 여름, 가을 내내 개구리처럼 오글대던 관광객들은 다들 어디로 사라졌는지 도시는 한적하기만 하다. 천천히 걸어서, 혹은 자전거를 한 대 빌려 타고 느긋하게 경주를 거닐어보자. 겨울은 경주가 가장 경주다울 때다.



저녁 무렵의 노서동 고분군. 노을과 고분의 곡선이 절묘하게 어우러져 그림같은 풍경을 빚어낸다.



저녁의 안압지. 조명이 들어오면 한층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한다.

밤에 경주를 보신 적이 있으신지. 단언컨대, 경주가 가장 아름다울 때는 해질 무렵이다. 첨성대 앞에 서 보시라. 건너편으로 보이는 노서동 고분이 경주를 둘러싼 금강산, 남산, 선도산과 어울려 곡선의 퍼포먼스를 벌인다. 그 퍼포먼스는 화려하지만 난잡하지 않고, 변화무쌍하지만 어지럽지 않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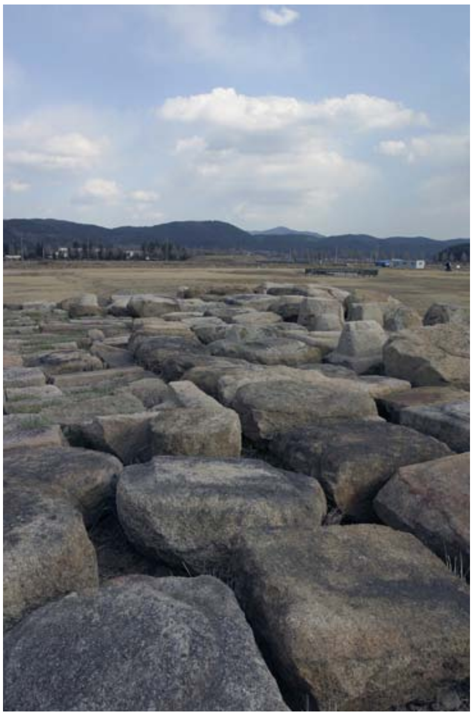
한 걸음을 가면 두 개의 능이 겹치고 두 걸음을 가면 세 개의 능이 포개진다. 가까운 능은 진한 곡선을 만들어내고 먼 산은 옅은 곡선을 만들어낸다. 지붕은 그 곡선 사이에서 올망졸망한 곡선을 다시 그린다. 그리고 그 곡선 위로, 신라의 땅 위로 장엄하게 번지는 노을. 옛 신라는 아마도 이보다 더 황홀한 왕국이었을 것이다.

달빛 아래 신라 천 년의 숨결을 느낀다

안압지의 밤 풍경도 분위기 있다. 안압지는 신라의 궁궐을 화려하게 장식했던 연못. 좁은 연못을 넓은 바다처럼 보이도록 어느 곳에서도 연못 전체를 조망할 수 없도록 만든 것이 특징이다. 연인들은 연못 주위를 걸으며 밤늦도록 데이트를 즐긴다.

신라의 밤 속으로 더 깊숙이 들어가고 싶다면 남산을 오를 것을 권한다. 매월 보름을 전후해 경주에 가면 기막힌 여행을 해볼 수 있다. 이름하여 남산달빛기행. 경주 남산연구소에서 "이레 좋은 불상 남 보여주려고" 만들었다.

달빛기행은 보통 오후 7시 또는 7시30분부터 시작된다. 산에 오르기 쉬운 간편한 복장에 음료수와 가벼운 간식거리 등을 준비하면 된다. 출발하기 전 김 소장이 간단한 주의사항을 전한다.


황룡사지 한편에 쌓여 있는 석재들.


문무대왕수중릉~감포항 해안도로를 따라가다 보면 그림 같은 바다풍경과 만난다.

"손전등을 사용하면 앞뒤 사람의 눈이 부시기 때문에 산행에 방해가 됩니다. 달빛만으로도 충분히 산행할 수 있습니다."

남산에 대한 대략적인 설명이 끝나고 산길에 오른다. 윤은골을 따라 올라가 마애삼존불과 상실절터를 지나 해목령에 오른 후 금오정과 늠비봉을 거쳐 하산하는 코스. 약 4시간가량이 소요되는데, 아이도 오를 수 있을 만큼 쉽다.

남산에서 펼쳐지는 달빛기행

포석정 주차장을 빠져나오면서 본격적인 달빛기행이 시작된다. 길은 자동차 한 대가 충분히 지나가고도 남을 만큼 넓다. 여기저기서 두런대는 소리가 들린다.

"달빛기행 처음이세요?" "네. 우연히 참가하게 되었는데 너무 좋네요." "막걸리 한 잔 하면 좋겠다." "그럴 줄 알고 배낭에 한 병 넣어 왔어요. 나중에 경치 좋은 데서 나눠 마십시다."

이렇게 걷기를 30여 분. 문득 김 소장이 "잘 생긴 부처님 한 분"을 뵙고 가잔다. 윤은골 마애삼체불이다. 비탈길을 올라가자 평범한 바위가 하나 나타난다. 김 소장이 바위 한쪽에 자리를 잡고 앉아 설명을 시작한다.

"일반적으로 삼존불은 본존불과 좌우 두 협시 보살로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이 세 부처는 기역 모양의 바위벽 남향면에 두 분 계시고 서향면에 한 분 계시는 것이 특이하죠."

그러면서 "잘 보세요." 하더니만 촛불을 켠다. 촛불이 부처님 얼굴을 비추기 시작하자 여기저기서 '아!'하는 탄성이 터진다. 달밤, 돌에 새겨진 부처님 앞에 서면 그 기분, 단순한 관광이나 등산과는 조금 다르다.

상실절터와 해목령을 지나면 늠비봉 오층석탑에 다다른다. 석탑 아래로 환하게 불을 밝힌 경주 시가지가 펼쳐진다. 먼 서쪽으로는 배리평야와 선도산이 굽어 보이고, 북쪽으로는 해목령을 마주하며 서라벌이 한눈에 굽어 펼쳐진다.

"이 탑의 위대함은 기단에 있습니다. 서양 사람들은 하늘에 닿기 위해 40~50년 걸려 첨탑을 세웠어요. 하지만 신라인들은 산을 기단으로 삼아 탑을 세웠죠." 누군가는 탑에 기대 경주 시내를 바라보고 있고 누군가는 탑 주위를 빙빙 맴돈다. 또 누군가는 탑 위에 걸린 달을 향해 두 손을 모으고 기도를 올리고 있다.

추령재를 넘어 감은사지를 지나 감포 바다에 닿는 길은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에서 "우리 강산의 아름다움을 한꺼번에 맛볼 수 있게 한다"고 했던 그 길이다. 여정은 보문관광단지를 지나면서 시작되는데 여정의 대강은 이러하다.

보문호를 지난 길은 뱀처럼 똬리를 틀며 토함산 북동쪽 산자락을 타고 오른다. 눈 덮인 토함산이 예쁘다. 오가는 차도 드물다. 여기

서부터 한적한 드라이브가 시작된다. 잘 닦인 아스팔트길을 따라 이리저리 핸들을 돌리다 보면 눈앞에 너른 호수가 등장한다. 경주 일대 상수원인 덕동호다. 1975년 덕동댐이 건설되면서 만들어진 인공호수다.

덕동호를 지나면서 길은 한층 가팔라지고 굴곡이 심해진다. 추령재로 오르는 길이다. 예전에는 경주사람들이 감포에 가기 위해서는 추령재를 힘겹게 넘어야 했지만 지금은 추령터널이 뚫리면서 한결 편해졌다. 터널을 지나는 대신 옛길을 따라 추령재를 넘는 길을 택한다. 고갯마루에서 바라보는 토함산 자락의 전망이 그만이다. 추령재를 넘어 들판을 가로질러 양북면 어일 삼거리에 이른다. 여기서 우회전하면 929번 지방도.

이 길을 따라가면 감은사지를 지나 문무대왕 수중릉으로 갈 수 있다. 929번 지방도 오른쪽에는 대종천이 흐른다. 하지만 지금은 도시의 여느 하천이나 다를 바 없다. 대종천을 따라 10여 분 달리면 길 저편에 우뚝한 두 기의 탑이 보인다. 감은사 삼층석탑이다. 추령재~대왕암 드라이브 구간의 하이라이트다.

감은사지의 위엄과 만나다

감은사 삼층석탑은 웅장하다. 높이는 13.4미터. 지금까지 남아 있는 신라탑뿐 아니라 삼층석탑 중에서도 가장 크다. 보는 사람을 압도하는 거대한 위압감. 탑에 서린 동해바다만큼이나 시퍼렇고 날카로운 전의. 죽어서도 나라를 지키겠다는 문무왕의 호언이 가슴속에 전해지는 듯하다. 감은사탑은 아무리 보아도 싫증이 나지 않는다. 햇빛을 받아 시시각각으로 변하며 다가오는 탑의 영상은 어느 조각품보다 완벽하고 장엄하다. 학자 중에는 감은사지를 '경주 답사여행의 클라이맥스'라고 강조하는 사람도 많다.

자, 이제 바다로 간다. 감은사지에서 5분 거리에 대왕암이 있다. 대왕암은 문무왕이 묻힌 곳. 문무왕은 죽어서도 왜구로부터 나라를 지키겠다고 동해바다에 묻혔다. 봉길리 해수욕장에서 감포 쪽으로 가면 이견대다. 이견대란 용을 본 곳이라는 뜻. 이곳에서 신문왕은 만파식적(萬波息笛)을 얻었다. 세상의 파도를 없애고 편안을 얻는 피리다. 용이 된 문무왕이 건네준 보물이다.

감포항은 이견대에서 40킬로미터 정도 떨어져 있다. 멋진 바다 드라이브를 즐길 수 있다. 감포 어시장에는 오징어와 멸치, 말린 생선, 미역, 김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다. 포구 한편에서는 과메기와 오징어가 해풍에 말라간다. 방파제 쪽으로 발걸음을 돌리면 눈이 아릴 정도로 하얀 등대가 서 있다. 방파제에는 바다낚시에 세월 가는 줄 모르는 강태공들이 잔뜩 몰려 있다. G

글과 사진 · 최갑수(시인 · 여행작가)



이견대에서 40킬로미터 떨어진 감포항. 바다낚시를 즐기는 사람들이 많이 찾는다.

여행 정보

교통 경부고속도로를 이용해 경주 IC로 나온다. 국립경주박물관에서 7번 국도를 따라 시내 쪽으로 가다 보면 첨성대. 그 옆 대릉원 앞에 넓은 주차장이 마련되어 있다. 국립경주박물관 앞 사거리에서 안압지 뒤쪽으로 나 있는 길을 따라 500미터 가면 황룡사지가 나온다. 분황사에서 황룡사터로 들어갈 수도 있다. 차는 분황사 입구에 세워두어야 한다. 감은사지는 경주 IC에서 직진해 4번 국도를 타고 감포 쪽으로 간다. 양북면 어일리에서 929번 지방도를 따라 양남 쪽으로 6.5킬로미터를 가면 길 왼쪽 산자락 아래 감은사지가 보인다. 감은사지 입구에 주차장이 마련돼 있다.

숙소 보문단지에 경주 힐튼호텔(054-745-7788), 호텔 현대(054-748-2233) 등 특급호텔이 많다. 경주 조선온천호텔(054-740-9600)에서는 온천욕도 즐길 수 있다. 마그네슘이 많이 함유되어 있다.

먹을거리 쌈밥과 해장국이 유명하다. 쌈밥집은 대릉원 동편 골목 후문 쪽에 많이 있다. 구로쌈밥(054-749-0060), 삼포쌈밥(054-749-5776)이 유명하다. 경주역 부근 팔우정 로터리에는 해장국집 골목이 있다. 해초와 콩나물, 메밀묵을 넣고 시원하게 끓여 내는데, 팔우정 해장국(054-742-6515)이 유명하다.

포토 포인트 노서동 고분군 사진을 찍기 위해서는 저물 무렵의 첨성대 앞이 좋다. 망원렌즈가 필요하다.

최갑수 신문과 잡지에서 오랫동안 여행담당 기자로 일했다. 1997년 〈문학동네〉로 시 등단, 현재 프리랜서 여행작가로 활동하고 있다. 저서로는 시집 〈단 한 번의 사랑〉(문학동네), 여행사진 에세이 〈당분간은 나를 위해서만〉(예담), 〈구름그림자와 함께 시속 3km〉(상상공방), 〈목요일의 루앙프라방〉(예담), 〈잘 지내나요, 내 인생〉(나무수), 〈오토캠핑 바이블〉(랜덤하우스) 등이 있다.

'무료 작명봉사' 이동우 서울 서초구청 OK 민원센터장

"좋은 이름 지었으니 행복하게 사세요"



이경호 기자

'센터장'이라는 근엄함 대신 친근함으로 작명 상담을 하는 이동우씨. 공직 사회의 모범이 되고 있다.

"이름에도 '트렌드'가 있는데 요즘엔 중성적인 이름이 인기예요. 하지만 자신의 음양오행과 잘 맞는 글자들을 조합해서 지어야 하죠. 무엇보다 부르기가 편해야 하고요. 듣기에도 거슬림이 없어야 좋은 이름이라고 할 수 있죠."

서초구청 OK 민원센터장 이동우(59)씨는 '좋은 이름'에 대해 이렇게 말한다. 이씨는 서초구청에서만 12년째 무료 작명 봉사를 해오고 있는 인물이다. 지난해 11월엔 행정안전부와 〈서울신문〉이 공동 주관하는 '지방행정의 달인' 중 '작명·중매' 분야로 '서울특별시 10인의 행정 달인'에 선정, 이름을 알리기도 했고 인터넷상에 회원수만 4천2백여 명인 작명 관련 카페(cafe.daum.net/name7)를 운영하고 있을 정도로 이 분야에선 왕성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어렸을 때 서당에서 이름 관련 한자풀이를 배운 것을 시작으로 사주와 육효를 독학했어요. 성균관대 유학대학원에 들어가 역학과정을 수료(1998년)하기도 했고요."

그가 작명을 시작한 건 35년 전, 작명 봉사를 시작한 건 1998년 9월 구청 호적계장을 할 무렵이었다. "민원인이 신생아의 출생신고를 하러 온 게 분명한데 서류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 확인해 보면 대부분 아이의 이름 때문이었어요. 한자를 모르거나 어려운 형편 탓에 아이를 낳고도 이름을 정하지 못하는 것을 보니 '이름을 지어주는 봉사를 해야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죠."

엄마에 이어 아이까지 2대 걸친 인연도

이후 그는 민원여권과장으로 재직하며 비공식적으로 무료 작명 봉사를 해오다 당시 구청사 내에 작명봉사 창구가 생기면서 공식 봉사 활동을 시작했다. 이후 전국 단위로 소문이 나면서 지금은 인터넷 카페를 통해서도 작명을 해주고 있다. 단, 공직선거법을 준수하기 위해 형편이 어려운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장애인 등 특정 경우에 한해서 무료 작명을 해준다. 현재까지 그를 통해 이름을 얻어간 사람만도 6천여 명에 달한다.

오랫동안 해온 일이라 에피소드도 많다. 지난해 5월에는 그가 이름을 지어준 1979년생 엄마가 아기 이름을 의뢰해 2대에 걸쳐 작명해 주는 일도 있었다. "한 할머니의 경우는 친손자·손녀를 비롯해 외손자·손녀까지 모두 8명의 이름을 서비스받았다"며 웃는다.

현재 구청 작명 센터를 통해서는 하루에 20~30건 작명 또는 개명 의뢰가 들어오고 있다. 이씨는 맑은 정신으로 작명해야 한다는 생각에 매일같이 새벽 4~5시에 기상해 하루 1~2건의 작명을 해오고 있다.

작명을 했다고 모든 절차가 다 끝난 것은 아니다. 그는 "부모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선명증(選名證)을 교부할 때 남편과 아내가 지켜야 할 덕목 30가지도 전해주며 간단한 계몽 교육을 겸하고 있다"고 말한다. '이름도 중요하지만, 부모가 환경을 잘 만들어주고 정성껏 키우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이라는 생각에서다.

자신의 작명 노하우를 묶어 이달 중 책으로 펴낼 예정이라는 이씨는 "재능으로 봉사한다는 생각을 갖고 하는 일인 만큼 많은 분이 좋은 이름처럼 평안하고,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전했다.

글·박근희 기자

세상을 채우는 법

구성 | 권우영
그림 | 안종만



내가 먼저 꽃을 심는 주인공이 되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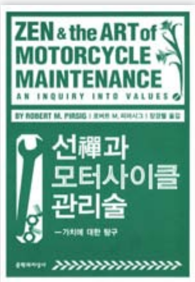
새해 새 책갈피를 펼치며…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한 해를 시작하는 1월. 2011년 신묘년을 책과 함께 산뜻하게 열어보는 것은 어떨까.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의 좋은 책 선정 위원 10명이 문학, 역사, 아동 등 다양한 분야의 책 10권을 선정했다. 새해를 맞이해 새로운 분야의 책들에 도전하고 싶은 사람들은 특히나 주목할 만하다.

글 · 이미령 인턴기자



이경호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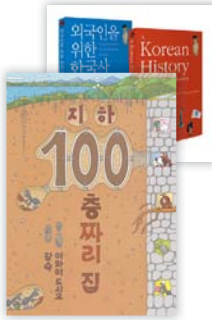
로버트 M. 피어시그 지음
장경렬 옮김
문학과 지성사 펴냄
1만8천원

선(禪)과 모터사이클 관리술

이 책은 1973년 출간 즉시 전 세계에 큰 반향을 일으켰다. 저자의 자전적 소설이자, 삶에 대한 철학적 탐구서이다. 과거 정신병의 경력을 가진 아버지와 그의 아들이 함께 미네소타에서 캘리포니아까지 17일간의 모터사이클 여행을 떠난다. 아버지는 정신병 치료 과정에서 과거의 기억 대부분을 잃었으나 여행을 통해 기억을 되찾는다.

"마침내 이 책이 왔도다! 라고 외칠 만큼 학수고대하던 책을, 장경렬 교수의 번역으로 드디어 읽게 되었다. 아주 단순한 이분법에서 출발해 점점 복잡하게 생각의 덩굴을 만들어간다."

추천 정과리(연세대 국문과 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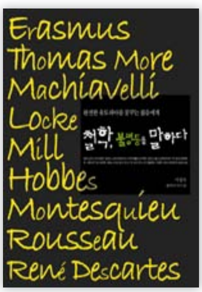
전국역사교사모임
휴머니스트 펴냄
2만원

외국인을 위한 한국사

세계인에게 한국의 역사를 어떻게 이야기할 것인가? 오랜 역사에도 불구하고 잘 알려지지 않은 전근대 시기 역사와 바깥에서는 잘 보이지 않는 한국인의 생활과 문화를 폭넓게 다루고 있다. 민주화와 산업화를 함께 이룬 한국의 역동적인 근현대사와 굴곡진 현대사에서도 희망의 역사를 창조해온 한국인을 만날 수 있다.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다양한 시각자료와 함께 대중적 서술을 시도한 점으로 볼 때 또 다른 기념비적 저술이라 할 수 있다. 외국인은 물론 한국인들에게도 한국의 역사를 제대로 소개한다."

추천 김기덕(건국대 문화콘텐츠학과 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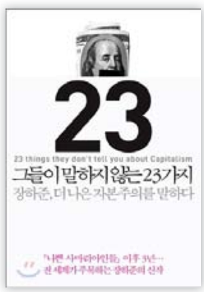
서정욱 지음
함께 읽는 책 펴냄
1만6천원

철학, 불평등을 말하다

대중의 어리석음이 그들로 하여금 행복하게 만든다고 한 에라스무스의 <우신예찬>에 대한 논의로 이 책은 시작된다. 저자는 불평등한 세상에 살 수밖에 없는 인간들이 꿈꾸는 유토피아에 대한 관심에 대해 말한다.100년 전 젊음들이 했던 고민과 이를 극복하려는 시도가 담긴 고전 속에서 현재의 젊음들이 길을 찾도록 돕는다.

"책은 고전 저자의 삶에 대한 간략한 소개를 한 후 가상적 대화를 이어 나간다. 그러고는 고전의 핵심사상을 전달한다. 이러한 전개 방식은 재미있고 읽기에도 편하다."

추천 김형철(연세대 철학과 교수)



장하준 지음
김희정 · 안세민 옮김
부키 펴냄
1만4천8백원

그들이 말하지 않는 23가지

세계적인 경제학자이자 <나쁜 사마리아인들>로 주목을 받았던 장하준 교수가 들려주는 자본주의 이야기이다. 자본주의의 문제점뿐만 아니라, 자본주의가 실제로 어떻게 돌아가고 어떻게 하면 더 잘 돌아가게 할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다. '경제 시민으로서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하는 데 필요한 경제 원리도 설명한다.

"다른 책들과는 달리 이 책은 글로벌 금융위기를 논의하지 않고 그 이전부터 이야기되어온 자본주의 시스템의 문제점을 23가지로 세밀히 정리해서 보여준다."

추천 박원암(홍익대 경제학부 교수)



정원오 지음
책세상 펴냄
8천5백원

복지국가

노숙인과 부랑인 등 우리 사회의 소외계층과 빈곤 문제를 집중적으로 연구해 온 저자는 이 책에서 복지국가의 정의와 기원, 발전단계, 위기와 전망 등의 총체적 역사를 말한다. 특정이념이나 정치적 입장으로부터 한발 물러난 태도로 차분하게 안내한다. 저자는 복지가 국가의 일방적 시혜가 아니라 국가에 대한 국민의 권리임을 말한다.

"독자들은 '복지국가는 국민 생활에 어느 정도로 개입해야 하는가?' '국민의 최저생활 수준을 보장하는 정도인가, 평등한 수준의 실현에까지 개입해야 하는가?' 등의 질문을 접할 수 있다."

추천 강정인(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에드워드 윌슨 지음
안소연 옮김
사이언스북스 펴냄
1만3천원

바이오필리아

바이오필리아는 생명사랑이란 말로서, 저자가 생물다양성의 보존을 호소하기 위해 탄생시킨 것이다. 저자는 책에서 인간이 생명을 탐구하고 생명에 친밀감을 느끼는 것이 정신 성장에 필수적이며 심오하고 복잡한 과정임을 증명하기 위해 수리남의 베른하르츠도르프, 브라질, 뉴기니, 쿠바 등에서 탐사 활동을 펼쳤다.

"〈개미〉 〈인간의 본성의 대하여〉로 유명한 사회생물학자인 에드워드 윌슨이 20년도 훨씬 전에 쓴 책이다. 생물다양성의 해인 올해에 읽어보길 더욱 추천한다."

추천 장경애(동아사이언스 경영기획실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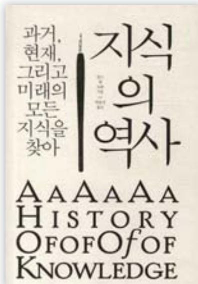
시오노 나나미 지음
김난주 옮김
한길사 펴냄
1만5천원

로마에서 말하다

〈로마인 이야기〉로 세계의 독자를 사로잡아온 저자는, 영화감독을 꿈꾸는 아들과 함께 영화에 대해 다양한 관점으로 접근한다. 대화체로 구성된 이 책은 1940년대 이탈리아 네오리얼리즘 영화부터 2000년 할리우드 블록버스터까지 140여 편의 영화를 다룬다. 두 사람의 시각이 합쳐져서 영화라는 주제를 입체적으로 다룬다.

"한 분야의 전문가와 상식이 풍부한 비전문가의 만남으로 이상적인 대화체 형식을 보여준다. 저자의 개인취향도 슬그머니 들여다볼 수 있어서 흥미를 더해준다."

추천 이주은(성신여대 교육대학원 교수)



찰스 밴 도렌 지음
박중서 옮김
갈라파고스 펴냄
3만5천원

지식의 역사

인간이 만들고 경험하고 이룩한 모든 것의 총체인 지식의 기나긴 역사를 탐구한다. 저자는 전세계 주요 지식과 그것을 둘러싼 역사, 인물에 대해 알려준다. 지식의 발전과 함께 울고 웃으며 살아온 인간사회의 풍경을 각 시대별로 세밀히 포착해낸다. 나아가 다가올 미래 지식의 전망까지 충실히 담아내고 있다.

"남들이 아는 만큼은 알고 있어야 하는 분위기인데 자신만 모르고 있다면? 이 책은 하루아침에 쌓이지 않는 교양에 대한 고민을 어느 정도 해소해 준다."

추천 탁석산(철학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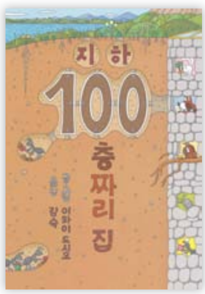
이시형 지음
생각속의 집 펴냄
1만2천8백원

위로

〈세로토닌하라〉 〈공부하는 독종이 살아남는다〉 등 많은 저서로 독자들에게 새로운 시각을 전한 정신과 전문의 이시형 박사가 위로의 메시지를 전한다. 좋은 시가 좋은 마음의 상태를 제시한다는 전제하에 49편의 시를 들려준다. 다양한 상황에서 겪는 마음의 진통들에 대해 현실적으로 유용한 마음 처방전을 제시한다.

"당신은 우연히 첫사랑을 만났거나, 소중한 사람이 세상을 떠났을 때 어떻게 대처하는가. 국민 주치의 이시형 박사가 49개의 물음에 일일이 시 한 편씩을 낭송하면서 처방전을 손에 쥐여준다."

추천 손수호(국민일보 논설위원)



이와이 도시오 글, 그림
김숙 옮김
북뱅크 펴냄
9천5백원

지하 100층짜리 집

목욕을 좋아하는 소녀 '쿠'가 목욕 중에 거북으로부터 지하 100층에서 열리는 잔치에 초대받는다. '쿠'가 땅 아래로 내려가는 중 다양한 동물들을 만나 벌이는 모험 속으로 어린 독자들을 안내한다. 각 층에는 해당 동물의 생활이 구체적으로 그려져 있어 비록 상상 이야기지만 실제 이야기 같은 느낌을 준다.

"시각적으로 볼거리가 풍부하다. 그림에 담긴 동물들의 일상사에는 놀이하는 모습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 이는 아이들의 생활상과 닮아있어서 어린이 독자들이 공감할 만한 책이다."

추천 오은영 · 서정숙(동시 · 동화작가, 그림책 평론가)

천재와 바보의 경계에 선

이그노벨상 아이구! 노벨상



일러스트 · 이우정



마크 에이브러햄스 지음
살림 펴냄
1만2천원

매년 10월, 노벨상 6개 분야의 수상자가 발표된다. 해마다 노벨상 수상자가 발표되면 으레 열리는 행사가 있다. '엽기 노벨상'이라고 불리는 '이그(Ig)노벨상' 시상식이다. 미국의 과학 유머잡지 '황당무계 연구 연보(Annals of Improbable Research, AIR)'가 1991년 제정한 상으로 '흉내 낼 수도 없고, 흉내 내서도 안 되는' 기발한 연구에 주어진다. 이그노벨상 수상자들이 이룬 업적은 사람들을 웃게 만들고 놀라서 머리를 흔들게 만든다.

'황당무계 연구 연보'의 편집자인 마크 에이브러햄스는 '비천한', '보잘 것 없는' 정도로 해석될 수 있는 단어를 앞에 붙여 상을 하나 만들었다. 노벨상과는 다른, 그러면서도 비슷한 상이 바로 이그노벨상이다.

대부분의 상은 좋은 것을 칭찬한다. 올림픽 메달도 아주 훌륭한 선수들에게 돌아간다. 노벨상은 과학자들, 작가들, 그 밖에 뛰어난 사람들에게 주어진다. 이런 상들은 대개 이들의 극단적인 인간애를 존경한다는 의미를 갖는다.

이 책에는 엘리베이터에서 나오는 음악이 감기를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준다는 사실을 발견한 의학 부문 수상자, 자신의 무식을 자각하지 못하는 상태가 어떻게 자신을 과대평가하게 만드는가에 대한 논문을 발표한 심리학 부문 수상자 등 괴짜들의 독창적인 연구 성과가 소개된다.

이그노벨상 위원회는 다른 사람들이 추천하거나 본인이 손수 추천한 놀라운 업적 가운데 10개를 선정해 매년 가을 하버드대학교 샌더스 시어터에서 시상식을 연다. 수상자 선정의 공식 기준은 '다시 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되는 업적'을 이룬 사람에게 주어진다. 또한 비공식 기준은 수상자가 이룬 업적은 '반드시 바보 같으면서도 시사하는 바가 많아야' 한다.

일반적으로 이그노벨상 수상자들은 누구도 궁금해 하지 않거나 궁금하더라도 귀찮아서 내버려 두는 질문들에 몰두한다. 사람이 먹는 우울증 치료제를 먹으면 대합조개도 기분이 좋아질까? 어쩌면 속옷만 신경 써서 만들어도 방귀 냄새를 막을 수 있지 않을까? 이그노벨상을 받은 사람들은 모두가 정말 진지했다. 자신의 연구를 장난으로 생각한 사람도 없었고, 내가 이런 연구를 왜 하고 있는 걸까 회의한 사람도 없었다. 그들에게 이건 진짜 중요한 일이었다.

이그노벨상은 이런 호기심과 그에 대한 답을 얻고자 하는 집념, 아무 생각 없이 경계를 뛰어넘는 상상력의 가치를 인정하는 상이다. 상식과 합리성의 울타리에 갇히지 않는 이그노벨상 수상자들은 이그노벨상의 모토를 그대로 실천하는 이들이다.

대한민국은 자연과학 분야의 노벨상 수상자를 한 명도 배출하지 못했지만 '튀는 아이디어'를 높이 평가하는 이그노벨상에서는 수상자를 배출했다. 권혁호씨가 1999년 향기나는 정장을 개발한 공로로 환경보호상을 수상한 것이다.

세상의 쓸데없는 부분을 눈여겨보는 괴짜들이 있는 한 매년 이그노벨상 시상식은 계속될 것이다. 이 책은 이러한 이그노벨상을 받은 이들의 다양한 이야기를 담고 있다. G

글 · 최지영(국립중앙도서관 사서)

생글생글

글과 그림 · 최영순



쾌활함과 행복감을 찾으려는 사람이라면
'미소'라는 두 글자를 잊지 마시라! – 카네기

김연아 · 박지성이 10명만 돼도

한국은 유럽이 주목하는 나라 될 것

3년간의 대만(臺灣) 생활을 마치고 2005년 서울로 발령받았다. 이 아름다운 나라에서 보낸 세월이 벌써 5년 반이다. 나는 네덜란드인이고, 주한(駐韓) 네덜란드 대사관에 속한 네덜란드 투자진흥청 한국지사에서 일하고 있다.



이곳에서 나는 물 만난 물고기와 같았다. 지난 5년간 우리 팀은 100여 개의 한국 업체가 네덜란드에서 사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왔다. 한국 비즈니스맨들은 네덜란드를 유럽으로 통하는 관문으로 선택했다.

네덜란드에 세워진 한국 지사들 대부분은 유럽 시장 진출을 위한 마케팅 세일즈 사무소이거나 물류창고 역할을 한다. 유럽 본부나 연구개발(R&D)센터 설립도 늘어나고 있다. 2011년 발효 예정인 한-EU 자유무역협정(FTA)으로 인해 향후 투자기업의 수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다.

한국은 '5F'의 흥미롭고 아름다운 나라

한국은 5가지 'F'로 설명된다. 한국인은 집중할 줄 알고(focusing), 친근하며(friendly), 빠르고(fast), 유연하다(flexible). 그리고 무엇보다 즐길(fun) 줄 안다. 문화적으로도 한국은 아주 흥미롭고 아름다운 나라다. 나는 유교에 대한 책을 많이 읽었다. 많은 한국인이 나를 두고 '준(準) 한국인'이라 한다.

아름다운 고궁, 그리고 한국 드라마와 노래도 무척 좋아한다. 매주 일요일이면 송해씨가 진행하는 KBS '전국노래자랑'을 즐겨본다. 제일 좋아하는 가수는 나훈아씨, 내 18번은 그의 노래인 '사랑'이다.

한국의 모든 것이 100% 완벽하다고 하면 거짓말일 테다. 이곳 생활에 어려운 점이 딱 두 가지 있었다. 첫째는 '운전'이다. 한국 운전자들은 다른 차의 끼어들기를 절대 허락하지 않는다. 양보하며 차례로 진입하는 것은 네덜란드에선 일상이다. 양보는 교통체증을 막는 큰 힘이다. 하지만 서울에선 거의 '밀어 넣기'를 해야만 진입할 수 있다.

두 번째 고충은 '바가지'다. 내가 바가지를 쓰는 이유는 단 한 가지, 외국인이기 때문이다. 그런 일을 당하면 나는 우선 농담을 던지고 활짝 웃으며 "왜 그렇게 비싸냐"고 묻는다. 물론 한국어로다. 물론 바가지만 쓰는 것은 아니다. 이는 극히 일부이며, 대부분 한국인은 내가 단지 외국인이란 이유만으로도 융숭한 대접을 해준다.

자격이 충분한데 잘 알려지지 않아 실망감

전국 방방곡곡의 한국 기업을 방문할 기회가 많았다. 출장을 떠날 때마다, 나는 아름다운 한국의 전원(田園) 풍경과 한국인의 친절한 인심에 매료됐다. 하지만 실망스럽게도, 이러한 한국의 아름다움이 해외에 잘 알려지지 않았다. 특히 많은 서양인이 한국에 대해 잘 알지 못한다. 서구 기자들 대부분이 한국은 제쳐놓고 중국과 일본에만 관심을 두기 때문이다. 그나마 자세히 들여다보는 기자들도 북한과의 대립 양상에만 주목할 뿐이다. 참 안타까운 일이다.

대한민국은 전 세계가 주목할 자격이 충분한 나라다. 나는 네덜란드에 갈 때마다 한국에 대해 적극적으로 알려왔다. 김연아나 박지성 같은 사람들이 10명만 나오면 한국은 순식간에 전 유럽이 주목하는 나라가 될 것이다.

2011년 여름이면 한국에서의 임기가 끝난다. 아쉬운 마음에 4년 연장을 본국에 요청했다. 퇴직 전 내 마지막 임기를 한국에서 보낼 수 있게 네덜란드 경제성에서 이를 인가해주길 소망할 뿐이다. 한국과 한국인을 진심으로 사랑하기 때문이다. G

글 · 하리 반 우오든(주한 네덜란드 투자진흥청 대표)



올 겨울은 또 어떤 모습이 숨어있을까요?
청소년과 가족을 위한 테마별 겨울 관광 코스

가보자! 구석구석 아름다운 대한민국



인천 밤바다 짱이예요!(당일)

[상품코스]
서울출발–달동네박물관–개항박물관–자유석식–월미테마파크– 서울도착



대게먹고, 한우먹고, 백암온천 즐기기(1박2일)

[상품코스]
1일차: 서울–이몽룡생가–중식(한약우불고기)–닭실마을–불영계곡–엑스포공원–석식(대게)–백암온천 및 숙박
2일차: 월송정–금강소나무생태경영림 –중식(산채비빔밥)–선바위관광지(영양고추홍보전시관) –두들마을과 이문열생가– 서울도착



남도별미/순천만갈대/향일암/오동도/담양온천(1박2일)

[상품코스]
1일차: 서울(용산역)–광주–송광사(별미식)–낙안읍성 민속마을 관광–순천만 갈대밭–여수(별미식)
2일차 : 향일암 해돋이–여수(별미식)– 오동도–담양(별미식)–대나무파크공원–담양온천 –광주–서울(용산역)



덕유산 곤도라/무주구천동/와인터널(당일)

[상품코스]
서울–대전역–무주리조트–곤도라탑승–자유중식 및 무주구천동 계곡 트래킹–와인터널–대전–서울



가야산국립공원 해인사와 생명의 땅 성주(1박2일)

[상품코스]
1일차 : 세계문화유산 해인사–중식–성주 성산동고분군
2일차 : 한개민속마을–세종대왕자태실



천년길 하늘재 트래킹과 수안보온천체험(당일)

[상품코스]
월악산 하늘재 트래킹–수안보온천



부산/외도/거가대교 (1박2일)

[상품코스]
1일차 : 서울–거제–외도/해금강–거가대교–부산(해운대) 숙박
2일차 : 동백섬–금정산성 케이블카–서울



동해의 선상크루즈와 안목항 커피로드(당일)

[상품코스]
서울–주문진항(선상크루즈)–주문진 수산시장–안목항커피거리–서울



태백산 환상선 눈꽃열차 여행(당일)

[상품코스]
영월 청령포–개별중식–영월〉태백 구간열차–태백산도착 태백산 눈꽃, 석탄박물관, 눈썰매 타기



딸기따고, 참숯가마 찜질하고 행복한 겨울여행 (당일)

[상품코스]
여주 신륵사, 개별중식–여주참숯가마 찜질–이천 딸기

떠나시기전에,
홈페이지 내의 이벤트 페이지에서
다양한 정보와 이벤트를 미리 만나보세요
기간 : 12월 30일부터
www.visitkorea.or.kr

Korea Be Inspired
한국관광공사

수량이 풍부했던 1930년대 나주 영산포



4대강살리기는 강의 원래 모습을 되찾아 주는 것입니다



4대강살리기 사업으로 제 모습을 찾기 시작한 금강세종시 구간

강에 퇴적토가 쌓이지 않았던 1930년대만 해도
내륙 깊숙이 배가 왕래할 정도로 수량이 풍부했습니다
4대강살리기는 퇴적토를 청소하여 우리 강을 치료하고
풍부한 수량을 확보하여 생명과 희망이 돌아오게 하는
우리강 제 모습 찾기입니다

강을 치료합니다

강바닥에 쌓인 퇴적토를 걷어내어
홍수와 가뭄으로 신음하던
강을 치료하게 됩니다

생명과 희망을 돌아오게 합니다

넉넉해진 강물로 인해 조류와 물고기등
주변 생태계가 풍요로워집니다

환경을 생각합니다

주변환경과 자연을 생각해서
환경을 보호하는 친환경 공법을
사용합니다

4대강살리기